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11 호 6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50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1호 (57)

1950년6월15일

내 용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호 소 문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들에게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친애하는 동포들!

친애하는 남북반부의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은 작년 六월에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책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력사적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미구에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인공적인 三八선은 의연히 남아 있어 우리 나라를 두 지역으로 분렬하고 있다。

쏘련 군대가 장구한 일제 통치로부터 우리 조선 인민을 해방시킨지 벌써 五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의연히 분렬된 채로 남아 있다。

누가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가?

분렬은 누구의 리익을 위하여 계속되는가?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리승만 매국 도당은 자기의 상전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를 따라 전체 조선 인민이 갈망하여 마지않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여 온갖 수단과 흉책을 다하여 이 통일을 방해하였으며 또한 방해하고 있다。

리승만 반동 도당들은 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가? 그들은 조선 인민을 국가 관리에 참여시키려고 하지 않는다。이 반동 매국 도배들은 자기 인민을 두려워하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 인민들이 증오하는 반동 친일 흡혈귀들의 경찰 제도를 보존하려고 발악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리승만 반동 도배들은 자기의 상전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배반하고 三八선을 영구화하며 그를 국경으로 만들려고 한다。이 매국 역도들은 자기들의 탐욕적 리익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노예로 팔아 먹고 있다。

만일 조선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을 미제와 리승만 도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수년 전에 벌써 민주주의 독립 국가로 통일되였을 것이였다。

만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제안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이 방해하지 안하였더라면 작년에 우리 나라는 벌써 통일되었을 것이다。이와 같이 우리 조국이 분렬된 채 통일이 달성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충복 리승만 도배들에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고의로 파탄시킨 후 조선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기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국의 통일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였을 뿐이다。

쏘련 정부는 一九四七년 九월에 조선에 주둔하였던 쏘미 량국군을 동시에 철퇴함으로써 조선 문제 해결을 조선 인민 자체에게 맡기자고 제안하였다。그러나 미국인들은 이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조선 인민과 쏘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 내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거수기 다수를 리용하여 조선으로「유·엔 위원단」을 파견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파견된 소위 유·엔 조선 위원단이란 것은 조선에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위원단」은 조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조선 인민의 리익에 위반 배치되게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위원단」은 조선 인민의 요망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며 리승만 매국 도배들과 친일파들과의 밀접한 련계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이「위원단」은 리승만 괴뢰 도배들이 실시하는 파시스트적 정책들을 지지한다。「유·엔 조선 위원단」은 괴뢰 도배들이 진보적 인사들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에 대하여 강행하는 야수적 탄압과 인민들에 대한 테로 무차별적 대량 학살 행위와 인민 운동에 대한 포벌을 맹렬히 지지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들은「유·엔 위원단」의 활동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으며 그를 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유·엔 위원단」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경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조국이 三八선으로 량분되여 있기 때문에 조선 경제는 그 발전상 큰 손실과 지장을 받고 있다。국내의 풍부한 모든 자연 자원들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완전히 리용되지 못하고 있다。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전력, 석탄, 비료, 금속과 공업 생산품들이 풍부히 생산되며 생산력이 날로 장성 발전되고 있다。그러나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생산되는 이 부원들을 조국이 분렬된 조건 하에서 남반부 인민들은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생산이 정지되고 타부분의 공장 제조소들이 폐쇄되고 실업자의 수는 一五○만 이상을 산하며 농민들은 오늘까지도 토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기아에서 헤매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러한 사태는 리승만 매국 도당과 그 주인 미국인들이 범한 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월가의 상인들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조선 산업이 능히 생산할 수 있는 자기들의 상품을 수출할 시장으로 화하고 있다。미국인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의 공업을 고의로 파괴시키며 우리 나라에 필요한 쌀, 중석, 흑연 등 허다한 자연 자원들을 헐값으로 가져가고 있다。

우리 조국 북반부에는 인민들의 자발적 창의로 인민 정권인 인민위원회들이 창설되였고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인민 정권은 벌써 두번이나 선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앙 정권 기관은 우리 조국 남북반부 인민들의 통일적 선거에 의하여 선거되였다。

선거는 일반 평등 직접적 기초 위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되였다。로동자, 농민, 인테리, 기업가, 상인할 것 없이 다만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전인민의 각계 각층은 모두 이 민주 선거에 참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인민에 의하여 선거된 정권이 없다。거기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시대의 통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거기에서는 도지사와 군수가 여전히 독단적으로 인민들을 통치하고 있다。

一九四八년 五·十 망국 단선으로 조작하여 낸 「국회」라는 것은 리승만의 충실한 종복들만으로써 구성되였었다。이 「국회」에는 대지주와 반동적 자본가들뿐이 들어 있고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한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리승만은 이 「국회」에서 로일환, 리문원, 김약수 등 十수명 대의원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실시된 五·三十 망국 「국회」 선거도 자유로운 선거가 아니였다。리승만에게 불리한 많은 립후보자들과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자들은 탄압 투옥을 당하였다。

선거 당시에 남반부에 횡행하고 있은 위협, 기만, 테로의 결과 소위 국회에 당선된 자들은 그 절대 다수가 반인민적 분자들이다。때문에 금번의 「국회」도 이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대표 기관으로 되지 못한다。

리승만 반동 도배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 경찰 제도를 수립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주를 위한 투사들을 탄압 학살하고 있다。

一九四七년에 조선 인민의 애국자 려운형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하여 학살 당하였고 一九四九년에는 우익 정당 지도자 김구가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련석 회의에 참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여 리승만에 의하여 학살당하였다。

이와 같은 리유로써 또한 남반부 우익 정당 지도자 중 한사람인 김규식은 정치 무대로부터 고립당하고 있다。

一九五〇년에는 우리 조국의 우수한 애국자이며 인민의 위업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사인 김삼룡, 리주하 선생들이 투옥되였다。

인민의 위업을 위하여 리승만 도당에 의하여 감옥에서 죽었거나 신음하고 있는 투사들과 우리 조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수는 막대하다。

이러고 보니 량심 분자들과 우국 지사들과 지어 반동 진영의 일부에서도 리승만 괴뢰의 멸망을 념원하며 리승만과 협조하고 있는 당의 어떤 인사들은 감히 로골적으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민들은 이러한 자들의 비겁한 태도에 대하여 분개하는 것이다。애국지사라면 어찌 조국과 인민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안일을 더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찌 박해를 두려워 정의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남반부에서는 실로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리승만 매국노들에게 복종하는 대한 국민당, 민주 국민당 (한민당) 과 같은 친일적 반동적 정당들에게만 자유가 보장되고 그 외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에 대하여는 언어 도단의 탄압을 감행하고 그의 당원 맹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 투옥하며 또한 재판도 없이 학살하는 것이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은 아주 무권리하다。그리고 도시의 소시민들에게도 역시 권리가 없다。자유는 오직 리승만 괴뢰 도배들이 의거하고 있는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의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또한 남반부에서 우리 민족 문화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우리 인민의 고귀한 모든 것들은 말살되여 버리고 미국식 퇴폐적인 썩은 양키 문화를 수입하여 장려한다。갱스터리즘과 쿠쿠락쓰 살인적 만행과 강간과 흑인 학대를 보여 주는 영화를 수입 장려하여 조선 인민들의 량습과 도덕을 파괴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

리승만 괴뢰 도배들은 자기 상전 미국인들과 자기 개인의 더러운 사욕을 위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를 미국에

복종시키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과거 五년 간에 국토의 인공적 분렬이 얼마만한 불행과 재해를 우리 인민들에게 주었는가를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우리는 三八선을 결코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인정할 수도 없다。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가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또다시 한번 제의 호소한다。

닥쳐 오는 八·一五 해방 五주년 기념을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로써 기념하여야 할 것이며 통일된 민주주의 독립 국가의 인민으로서 함께 기념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실현할 목적으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들과 전체 애국적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一、八월 五일—八일에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전지역을 통하여 총 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최고 립법 기관을 창설할 것。

二、八월 十五일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된 五주년 기념일에 이 총 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최고 립법 기관 회의를 서울에서 소집할 것。

三、六월 十五일—十七일에 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남북반부의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三八 연선 해주시 혹은 개성시 어느 한 도시에서 소집할 것。

이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들을 채택할 것。

(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 조건。

(나) 조선 최고 립법 기관 총 선거 실시의 절차。

(다) 총 선거를 지도할 중앙 지도 위원회의 창설。

四、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남북반부의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협의회 참가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파탄시킨 범죄자들인 리승만、리범석、김성수、신성모、조병옥、채병덕、백성욱、윤치영、신흥우 등 민족 반역자들은 남북 대표자 협의회에 참가시키지 말 것。

(나) 조국 통일 사업에 「유·엔 조선 위원단」의 간섭을 용허하지 말 것。 조선 인민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반드시 자력으로 조국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것。

五、남북 대표자 협의회 사업 기간과 총 선거 실시 기간에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당정권 당국은 사회 질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조국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 인민들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민주주의 통일 조선 만세!

통일된 조선 인민 만세!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재판 제도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김 동 철

(전호에서 계속)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현행 재판 체계 및 그 구성 원칙

이미 위에서도 약간 언급하였거니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에는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하여 특별히 딴장—제六장—을 두었다。그에는 공화국 재판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제 기본 원칙들이 규정되여 있다。 즉 재판은 최고 재판소、도 시 군 재판소 및 특별 재판소에서 수행하며、판결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헌법 제八十二조)는 것과 판사의 선거, 재판에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재판의 공개,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재판 용어로서의 모국어 사용,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독립, 오직 법률에 만의 복종 등 원칙들이 그것이다。 공화국에 있어서는 이상 제원칙들이 기본법의 역할에까지 이르고 있는 데 그 의의가 자못 큰 것이다。 최고 인민 회의 제五차 회의에서 채택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재판소 구성법은 이에 기초하여 제정되였으며, 이를 보다더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공화국 헌법 제六장의 의의, 즉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하여 특별히 딴 장에 규정한 의의는 국가 기구 체계 내에서 재판 기관은 다른 행정 기관과 본질적으로 차별되는 독특성을 가진 한 국가 기관이며, 민주 재판은 행정적 활동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수한 국가, 활동 부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재판 체계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우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 쏘베트 국가의 전사법 사업의 경험에 의거하였다는 데 있으며,

둘째로는 자본주의 국가의 재판 체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복잡한 심급을 피하고 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를 간소화시켜 대중들로 하여금 재판의 혜택을 최고도로

입게 하며, 동시에 재판 기관들을 인민의 권익 방위의 실질적인 간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원칙, 또는 재판 체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원칙 위에 립각하였다는 데 있으며,

세째로는 재판 기관과 인민과의 련계를 보다더 긴밀히 하며 재판 사업에, 즉 레닌이 언명한 바와 같이 이면에 대한 국가 관리 사업에 절대 다수의 근로 인민 대중을 인입, 망라시킬 수 있도록 그 체계가 성립된 데 있으며,

네째로는 각급 재판소들에 대한 관할권 (이에는 지역적 및 사건 관할—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의 범주를 규정하는 것을 이름) 의 확고한 분계 및 설정에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법률 위반자, 즉 범죄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형벌의 부과,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단, 유죄 무죄의 인정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인민에게 준법 사상을 제고시키며, 범죄자와의 투쟁에 다수 인민을 동원시키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범죄적 현상의 급격한 감소에로 일체 재판의 전활동을 총 지향시키는 등등에 있는 것이다。

이 원칙에 립각하여 성립된 공화국의 재판 체계는 일반 재판소로서 시 군(구역) 인민 재판소, 도 재판소, 최고 재판소와 당해 국가 기관이 수행하는 국가 기능의 특수성에 따라 그에서 생기는 모든 위법 사건들을 관할 재판하기 위하여 일반 재판 체계에서 구분되여 나가 있는 각종 특별 재판소—공화국에 있어서는 군사 재판소와 동운 재판소—가 그것이다。

모든 재판의 성격은 그의 조직 원칙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공화국 재판의 민주주의적 조직 원칙은 우선 재판의 유일과 모든 재판소들에 있어서의 법령의 유일 및 그들에게 한하여 유일한 구속력의 존재가 그것이다。

공화국에 있어서는 유일한 재판 체계가 존재하며, 또한 모든 재판소들에 있어서 한결같이 의무적이며 유일한 법전(형법、민법 및 소송법 등) 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공화국의 재판 체계는 공화국 내의 정치적—행정적 구분(區分)으로부터 유래하며, 공화국의 정치적 토대인 인민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며、실현하는 공화국의 유일한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에 공화국의 일체 립법권이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 재판소 구성법 제七조에는 이 원칙이 명백하게 지적되였다。

즉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재판은 「1、공민의 사회적 지위, 재산, 직위 및 민족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공민에 대하여 유일하며 평등하다。

2、모든 재판소에 있어서 형법、민법 및 소송법은 유일하며 의무적이다」라는 원칙에 위하여 수행된다。

이리하여 공화국에는 어떤 그루빠의 공민을 위한 특권적인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공민이든지 간에 재판에 있어서는 특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죄책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추구(追求)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들도 모든 공민에게 한하여 자기들의 재판은 유일하며 평등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법령은 빈천자를 제압하나 부자들은 그 법령을 조종한다. ……빈천자들에게는 이러한 법령이 있고 부자들에게는 저러한 법령이 있다」고 한 엥겔쓰의 말과 같이 그 본질 상 또는 실제에 있어서 모든 공민에게 한하여 재판과 법이 유일하고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十九세기 로씨야의 유명한 사실주의적 극작가 느·오스뜨롭쓰끼의 「뜨거운 심장」이란 희곡 중의 한 주인공―귀족층 대표 그라도보예브는 자기들 귀족들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때로는 법에 의하여 재판하나 때로는 그 법을 자리삼아 깔고 앉는다」고 말한 것을 미루어 우리는 짜리 로씨야에 있어서 재판과 법이 보통 공민들에게 있어 어느 정도까지 유일하였으며 평등하였겠느냐 하는 것을 가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 영 비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현실을 보아 부르죠아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의 민주주의적 조직, 원칙의 다른 하나는 재판에 있어서의 판사의 독립, 오직 법령에 만의 복종 원칙이 그 것이다. 공화국 헌법 제八十八조와 재판소 구성법 제八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 만 복종한다」.

그런데 이 판사의 독립성은 판사의 국가 및 사회로부터의 독립 또는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소는 국가의 한 기관이며, 재판소는 다른 국가 기구들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동일한 규률을 준수 수행한다. 그러므로 재판소의 활동은 다른 국가 기구들의 활동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각급 인민 위원회의 선거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는 시기에 있어서 재판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관련되는 모든 사건들을 취급 해결함으로써 이 사업의 수행을 원조하여야 할 한다. 또 만일 어떠한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기관들에 한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정들이 발로되였을 경우에는 재판소는 이 사정들을 반드시 그 기관들에 통고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부대 판정서(附帶 判定書) 방식으로써 재판소는 이를 수행하고 있다. 판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개개의 구체적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령에 엄격한 자기의 내심적 확신과 자기의 민주주의적 법의식에 의거하여 사건의 본질에 적응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

다. 어느 누구나―지방 주권 기관이나 사법성이나 검찰소나 상급 재판소나 간에 어떠한 구체적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그 사건을 여하히 해결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공화국의 모든 재판 기관들은 인민 전체의 리익을 표현하며 반영하는 국가의 명의로써 활동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판에 있어서의 판사의 독립, 오직 법령에 만의 복종 원칙이 부르죠아 국가에서 처럼 위선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격을 띠며 또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확고히 실현되고 있다. 공화국의 법령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의 표현이다. 때문에 공화국의 재판 기관들은 법령에 복종하면서 전체 인민의 명의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며 자기들의 모든 판결 및 판정에서 인민의 의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 헌법 및 재판소 구성법에는 판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중요한 조건들을 규정하여 놓았다. 우선 공화국 헌법 제八十三조에는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으며 공화국 재판소 구성법 제二十一조와 二十二조에는 「판사 또는 참심원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해임할 수 있으며 판사에 대한 형사 사건의 제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검사 총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화국의 판사는 근거없이 해임되거나 충분한 근거없이 또는 소추(所追) 기관의 마음대로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완전히 보장되여 있다.

부르죠아 법률, 부르죠아 파학도 판사의 독립, 오직 법령에 만의 복종 원칙을 형식 상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죠아 재판의 착취적 본질을 엄폐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인 것이다. 부르죠아 국가들의 판사들은 맑쓰의 말씀과 한가지로 아무러한 독립성을 행사하지 못하며 원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층들은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자들로써 판사를 선발하며 또 만일 우연히 선발한 그 판사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실현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를 판사직에서 해임한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재판에 대한 국가 주권의 직접적인 간섭은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니다. 제국주의 시기, 특히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즉 오늘에 와서는 이것이 어느 제국주의 국가를 물론하고 더욱 더 로골화되여 가고 있다. 오늘 영 미국의 재판 실정은 이에 대한 좋은 증거로 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공산당 지도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비법적인 공판과 서부 독일 및 일본들에 있어서 팟쇼 전범자들에 대하여 무죄 석방하는 미 군정 재판의 실정만으로도 이를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형식상 유사한 법률적 개념들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인민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계급적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니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소가 법령에만 복종한다는 것은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하며 민주주의적 기반의 공고화를 위하여 재판을 실행하는 것이며, 부르죠아 국가들에 있어서 재판소가 법령에만 복종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반대하며 소수의 착취자들을 위한 재판, 반동적 경향과 자본주의적 기반을 방위하는 재판으로 되는 것이다.

약간의 부르죠아 국가들에 존재하고 있으며 또 마치 판사의 독립성의 믿음직한 지주(支柱)나 되는 것처럼 운위(云謂)되는 소위 판사의 「비경질성(非更迭性)」도 사태를 변경하지 못한다. 실제에 있어서 이 판사의 「비경질성」은 그것이 지배 계급이나 혹은 가장 반동적인 제국주의자들 그루빠에게 직접 유리한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히 준수되는 것이다. 례하면 미국 최고 재판소는 최다액의 봉급을 받는 종신 기한으로 임명된 판사들로써 구성된다. 실제에 있어서 미국 최고 재판소는 반동의 방벽으로 되여 있으며 다소라도 진보적인 법령들을 실시하려는 여하한 시도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헌법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를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다.

루즈벨트 생전에 그가 미 국회에 상정한 여러가지의 진보적인 법령 초안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과 모순」된다는 구실 하에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처음 강력히 표명한 자들도 미국 최고 재판소 판사들이며 오늘에 와서 트루맨이 국가 예산 확장에 대한 법령 기초안을 미 국회에 상정하였다 하여 그에게 「사회주의자」란 허명을 붙여 주는 것도 그들인 것이다.

특히 이들과 미 국회의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분자들과의 간에는 긴밀하고도 강인한 련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생존시에 그가 미국 최고 재판소의 판사들 중에서 몇명을 경질하려고 기도하였으나 미 국회의 가장 반동적인 상원 의원들의 반대와 불찬동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그 기도를 실현하지 못하고 만 사실로써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미국 최고 재판소 판사들을 임명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그렇게 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판사의 「비경질성」은 이와 같이 보장되며 준수되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소 구성 원칙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판사 및 참심원의 선거와 재판에 참심원의 참가, 재판에 있어서 판사와 참심원의 동등권 보장 등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공화국 헌법 제八十三조에는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 재판소는 최고 인민 회의에서 선거

한다. 도 시 군 재판소는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 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원칙은 참심원에게 한해서도 동일하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원칙이 새것이 아니다. 우리는 벌써 헌법 시행 이전부터도 판사 및 참심원의 선거제 원칙을 실시하여 왔던 것이다.

쏘련에 있어서는 이것이 보다 더한 발전을 보고 있다. 쏘련 헌법 제一〇九조에 의하면 쏘련의 「인민 재판소들은 구(區)의 공민들이 일반적 직접적 및 평등적 선거제에 기초하여 비밀 투표로써 이를 선거한다」. 이 원칙에 의거하여 쏘련에서는 一九四八년 十二월——一九四九년 二월까지의 기간에 전련맹적으로 인민 재판소 판사 선거를 실시하였다.

우리 법령에는 판사 직위의 후보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설정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누구나 다 판사 및 참심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 헌법 제八조에는 판사의 선거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 통치 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일본 통치 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와 재판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만이 판사 또는 참심원으로 될 수 없게 되였다.

부르죠아 국가에 있어서의 판사는 선거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된다. 미국의 련방 재판소의 판사는 임명된다. 례하면 미국 최고 재판소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종신간 임명하는 九명의 판사들로써 구성된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재판소가 형식 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러나 판사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허다한 요건, 즉 「재산 상 자격」 「도덕적 순결성」 「년령 상 자격」 「교육 상 자격」 등등의 조건이 나서게 되며 그의 선거 진행 역시 여러 가지의 수단 방법에 의하여 많이 제약된다. 미국에 있어서 흑인종은 판사로 선거될 수 없다.

영국에 있어서는 왕이 대법관의 추천에 의하여 최고 재판소 판사의 대다수 및 치안 판사를 임명한다. 주 판사는 대법관이 직접 임명한다.

一九四六년 불란서 공화국 헌법 제八十四조에 의하면 판사들은 최고 사법원의 추천에 의하여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짜리로씨야에 있어서 녀성들은 판사의 직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재판의 참다운 민주주의의 성격은 재판에의 인민 참심원의 참가 원칙과 합의제 원칙 및 재판에 있어서 판사와 인민 참심원의 동등권 보장에서 표현된다.

모든 제一심 재판에 있어서 사건 심리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나 민사 사건에 있어서나 다 같이 三명의 재

관원——一명의 상임 판사와 二명의 인민 참심원——의 구성으로 된 합의제에 의하여 수행된다。공화국 헌법 제八十四조에는 이 원칙이 확고하게 규정되여 있다。

「제一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이 절차는 모든 一심 재판에 있어서 동일하게 실행된다。 때문에 인민 재판소로부터 최고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소요의 참심원들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一심 재판(특별 재판소에도 동일하다)에의 참심원의 참여는 불가결의 요건으로 되는 것이다。 다만 모든 一심 재판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를 심리하는 제二심재판에 있어서만이 다르게 된다。

제一심 재판의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제二심 재판은 참심원의 참여가 없이 판사 三명의 구성으로써 수행된다。 최고 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 이외의 모든 확정 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 상소 사건의 심리도 제二심 재판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다。

모든 제一심 재판에의 인민 참심원의 의무적인 참가는 첫째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의 수행에 다수의 인민들을 망라시키게 되는 것이며, 둘째 재판 수행에 직접적으로 인민적 원리,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법의식, 그들의 확신 및 량심을 도입시키는 것이며, 세째 재판에의 인민 참심원의 참가는 재판소의 사회적 교양자적 역할을 가일층 높이게 하는 것 등으로써 그 의의가 거대하다。

인민 참심원은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는 전기간에 있어서 판사의 모든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모든 제一심 공판을 지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심원은 재판 심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나 피소자, 증인, 감정인 등등을 심문할 때에 있어서나 합의하여 표결(票決)할 때에 있어서나 판사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나 표결할 당시에 있어서 만일 판사의 의견이 량 참심원의 동일한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량 참심원의 의견이 재판소의 명의로 내리는 그 사건에 대한 판결 및 판정으로 된다。

판사와 인민 참심원들의 동등권 보장은 그들의 선거 및 그들의 보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인민 참심원들은 판사 선거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선거되며 그의 해임 역시 동일하다。 이것은 헌법상 확립된 원칙인 것이다。 례하면 최고 재판소의 참심원들은 판사와 같이 최고 인민 회의에서 선거된다。

재판소 구성법 제十五조에는 참심원은 공포된 명부순에 의하여 一년에 十四일간 재판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재판에서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명백히 지적되였다。

재판소 구성법 제十六조에 의하면 로동자 또는 사무원이 참심원으로써 재판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전기간을 통하여 자기의 로동 임금을 보장받으며 로동자 또는 사무원이 아닌자가 참심원으로써 재판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전기간 중 매 로동일에 대하여 당해 재판소 판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참심원들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들이라는 것은 립후보자의 추천 절차와 그의 성분별에서 명백하여 진다。 례하면 최고 재판소 참심원들의 립후보자로는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의 중앙 본부에서와 각 중앙 국가 기관 및 공장에서 추천되며 그의 성분별을 보면 로동자 六三·六%, 농민 四·六%, 사무원 三一·八%이며 이 중에서 녀성은 一三·六%이다。

부르조아 재판의 공정성을 립증하려고 노력하면서 자본가들은 흔히 중요한 론거로써 주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회를 대표하는 듯한 배심원이 형사 사건 심리에 참가한다는 것을 인증한다。 그들의 론증에 의하면 배심원이 판사처럼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하여 선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자본 국가, 특히 소위 배심(陪審) 재판의 조종으로 되는 영국의 실지 경험은 배심원들이 부르조아의 질서를 보호하며 방위함에 직접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는 유산 계급 중에서 주로 선출되며 자본주의적 조건 하에서는 배심원들이 근로 인민들 측으로부터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그러므로 부르조아 국가들에서의 배심 재판은 근로 인민 대중 측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없으며 그들에게 교양자적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실제에 있어서 배심원들은 비록 재판 심리에는 참가한다 할지라도 이렇다 할 아무러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들은 합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권도 가지지 못한다。 결국에 있어서 배심 재판은 판사 단독으로 재판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 후 독일에서 중요치 않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맨처음으로 창설된 배석(陪席) 재판 역시 아무러한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공화국 재판소 구성 원칙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또한 공판의 공개, 피소자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보장 등에서도 표현된다。

재판의 공개란 매개 공민들로 하여금 재판소에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에 공판정에 립석할 수 있게 하며 재판 진행의 전행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출판물에 널리 공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화국 헌법 제八十六조에 의하여 재판소 구성법 제十조는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국가적 비밀의 보호,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에 한

하여 재판소의 리유붙인 판정에 의하여서 만이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十六조에는 재판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국가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 풍기를 문란하게 할 념려가 있을 때 또는 공민들의 개인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였으며 동 제十七조에는 공개를 금지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재판의 공개는 그의 교양자적 의의를 현저히 강화시키며 공화국의 합법성의 보장, 재판의 국가적 임무 및 목적 수행에 막대한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재판소를 범죄와의 투쟁의 실질적인 무기로 전환시키며, 공민들에게 준법 사상 제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 진정한 전인민적 대중적 학교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절대한 역할을 다하게 된다。또 재판의 공개는 공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선거한 재판소의 재판 수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감독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떼닌과 쓰딸린은 인간 의식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잔재 요소들과의 투쟁을 위하여 또는 국가 재산을 략취하는 자, 사무 집행을 공연히 지연시키는 자, 관료주의 분자 및 기타의 범죄자들과의 투쟁을 위하여 공개 재판을 널리 리용할 데 대하여 여러번 지적하였다。

떼닌은 사무 집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범죄자들에 대한 사건을 공개 재판에 회부할 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자가 사무 집행에 지연을 가져온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퍽 유리할 것 만은 의심할 바가 없지만 원칙 상으로 보아서도 비단 그를 엄격히 처벌(경고 처벌만 주어서도 충분하겠지만)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심념을 공공연하게 분쇄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사건은 관료주의적 기관의 권내(圈內)에 파묻어 두지 말고 공개 재판에 끄집어 내야 할 것이다」。또 다른 론문에 떼닌은 쓰기를 「재판을 공개하는 데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우리 재판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재판이니 만큼)。사무 집행의 지연을 가져오는 범죄자들을 공개 재판에로 끄집어 내, 와야 할 것이니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이 병(病)을 근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쓰딸린은 이미 二十여년 전에 다음과 같이 썼다。「이 수단은 그러한 좀도둑(小盜賊)의 주위에 전반적이며 도덕적인 뽀이꼬트와 주위 공중(公衆)의 증오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이 수단은 도둑질 할 가능성을 근절하며 도둑놈과 인민 재산 략취자로 하여금 살아 나갈 수 없게 할 그러한 깜빠니야를 광범히 전개하며 그러한 도덕적 분위기를

근로 인민들 속에 조성시키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부르죠아들도 재판의 공개를 주장하며 또 실제에 있어서 재판을 공개적으로 개정하기는 한다。그러나 이에는 주로 소위 「선택한 관중」이 참관하게 되며 근로 대중은 참관할 수 없게 된다。이에 대한 실증으로서는 一九四九년 초엽부터 시작하여 八—九개월간 진행된 미국 공산당 지도자 十一명에 대한 공판 정형을 들 수 있다。우선 공판정은 겨우 한 백명의 「선택한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서 진행되였다는 사실과 그 건물은 四백여명의 무장한 경관과 기마병으로써 호위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도 부르죠아들이 주장하는 바 공개 공판의 본의를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만일 부르죠아 재판에 근로 대중들이 자주 방청한다 할찌라도 그들은 그 재판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고, 도리여 그에 대한 증오감을 한층 더 굳게 가질 따름이다。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이 불공정한 재판이 근로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 아닌가?

공화국 헌법 제八十六조의 원칙에 립각하여 재판소 구성법 제十一조에는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규정되였다。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은 二중적 형태로 표현된다。

재판에 있어서 피소자의 리익을 위하여 준수되는 모든 보장 조건의 총화, 법령에 의하여 피소자에게 허여된 그리고 이에 의하여 피소자가 그에게 제기된 공소(公訴)에 대하여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의 총화와 피소자가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피소자에게는 재판의 모든 질서를 엄수하며 자기가 범행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솔직히 진술하며 재판소 및 당사자들의 심문에 정당하게 응답할 것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화국 형사 소송법은 우선 피소자의 궐석 재판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모든 一심 재판에 있어서 피소자의 변호권에 대한 약간의 제압 침해는 소송 수속에 대한 본질적 위반으로써 그 재판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사와 같은 당사자 자격으로써 재판에 립석하며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그에게는 재판 심리 과정에서 피소자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 조건, 환경 등등에 대하여 제시 해명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一심 공판에서의 그의 의무는 재판소를 보좌하며 재판 사건의 진상 전모를 해명시키며, 피소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모든 문제를 제기 해결케 하며, 피소자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 등등에 있는 것이

다. 재판에서의 변호인의 적법한 권리 리행, 즉 정당한 요구와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억제하지 못하며 재판소는 고에 대하여 적당한 해결을 지어 주어야 한다.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은 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은 피소자에 대한 一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피소자를 대신하여 상급 재판소에 리유불인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건을 심리하는 二심 재판소에 가서 까지 피소자를 위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상 최고 재판소에 비상 상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원칙상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二심 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여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리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소송 수속 상 본질적인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호인에게 매한 보수료 지급이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며 그 지급액 역시 누구에게나 다 가능할 정도로 규정되여 있다. 때문에 피소자들은 변호인에 의한 자기의 권리 보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화국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피소자의 권리 보장은 사천 관할 문제, 피소자에게 대한 불리익금지 원칙들에서도 충분히 표현된다.

그와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오직 돈 있는 자들만이 어데까지나 변호인의 봉사(奉仕)를 받을 수 있고 근로 인민들은 전혀 그것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또 변호인 자신들이 오직 돈 많은 자들의 리익만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만약 어떤 량심있는 진보적 변호인이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 나서게 된다면 그는 곧 추궁을 당하며 변호할 권리만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구금, 심지어는 비법적인 재판까지 받게 된다. 이를 립증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 공산당 지도자 十一명에 대한 공판 진행의 실정을 그 일례로써 들 수 있다. 이 공판 진행 시에 재판소는 미국 공산당 지도자 十一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출현하던 변호인 五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바로 그 재판소에서 소위 『재판에 대한 불경죄』로 그들에게 三년 내지 五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들의 상소까지 받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공화국의 민주주의적 재판 구성 원칙 중의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및 기타의 당사자들에게(검사 변호사 등)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가 그것이다. 재판소 구성법 제十八조에 의하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제一심 판결 및 판정에 대하여 피소자 변호인 또는 원고 피고 및 그의 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상급 재판소에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있는 것이

다. 오직 상소 혹은 항의에 의거하여 일건 기록을 심리하고 결말을 지은 二심 판정에 대하여는 상소 항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최고 재판소장과 검사 총장만이 최고 재판소에 비상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고 재판소의 제一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없고 오직 최고 재판소장과 검사 총장 만이 최고 재판소 전원 회의에 비상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 또는 항의를 심리하는 二심 재판소는 그 기록 속에 있는 모든 자료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들에 의거하여 제一심 판결 또는 판정의 합법성, 정당성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이에 있어서 二심 재판소는 만일 상소 또는 항의 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제一심 판결 및 판정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소 또는 항의 리유를 용인하여 판결 또는 판정을 일부 혹은 그 전체를 파기 변경하며 만일 상소 또는 항의 리유가 그 근거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기각하고 제二심 판결 또는 판정을 확정시킨다.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 제기는 그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 오직 二심 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래야 그 판결의 집행은 시행된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소자에게나 그 소송 당사자들에게 상소권이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원만히 보장되여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더우기 피소자들에 대한 상소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또한 미국 공산당 지도자 제니쓰에게 상소권을 주지 않은 최근의 미국 재판의 실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재판 구성 원칙의 민주주의적 성격 구명에 있어서는 또한 재판 상 용어 문제가 거대한 의의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판 상 용어 문제는 그 나라의 민족 정책의 본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며 법률 상 절차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다. 또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판 용어로서의 종주국의 언어(혹은 대민족의 언어)——이것은 부르조아들이나 부르조아 법률이 공인하는 『진리』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통치의 마지막 시기는 말할 여지조차 없거니와 소위 한일 합병 초기부터 놈들은 재판 용어로써 모국어 사용을 전혀 금지하고 일본어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예심 과정이나 공판정에서 오직 통역을 통해서 만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여 해명할 수밖에는 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조선 사람들에게 한하여서는 아주 불공정한 판결 언도가 내리였을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는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식민지 예속 하에 있는 제민족들과

소수 민족들은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든지 원만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현상은 민족주의 혹은 인종 차별주의를 제창하는 국가들에서 보다 더 현저하니 과거의 팟쇼 독일、이태리、제국주의적 일본 또는 짜리 로씨야 등 국가들에서와 오늘의 영 미 불 등 국가들에서 그러하였으며 그러한 것이다。

오직 쏘련에서 만이 모든 민족들은 그 대소의 차별을 불문하고 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사회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 재판에서까지 ─ 동일하게 자기의 모국어를 원만히 행용할 수 있다。이것은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의 기본에서 유래되는 원칙으로서 그것이 리론적으로 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정확하고도 철두 철미하게 구현화되고 있는 것이다。또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의 기본적 사상、기본적 내용은 현재 인민 민주주의 제국의 기본법에 확고 부동한 원칙으로 서 있으며 그 것이 이들 제국의 실제 생활에 까지 철저하게 표현되며 현실화되고 있는 거기에 그의 세계사적 국제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공화국 헌법 제三十一조에는「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 원칙이 규정되여 있으며 재판 부면에 대해서는 헌법 제八十七조와 공화국 재판소 구성법 제九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서 있다。

「재판 용어는 조선어로 한다。조선어를 모르는 자에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리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족 평등、제민족의 형제적 친선 원칙이 확고 부동하게 서 있으며 또한 실제에 있어서 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부면에서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어디에서나 자기의 모국어를 원만히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공화국 재판이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 재판이라는 것은 비단 공화국의 헌법에나 또 그에 기초하여 공화국 재판소 구성법에 이상과 같은 민주주의적 원칙들이 규정되여 있는 거기에서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 민주주의적 원칙들이 실제에 있어서 원만하게 구현화되고 있는 것으로써 여실히 표명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화국의 재판소들은 인민 재판소로부터 최고 재판소에 이르기 까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로 진정한 인민 재판소로서 한결 같이 통일적 민주 독립 국가 창건의 위업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

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의 상업 발전의 의의

조 헌 세

一、

조국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인민 민주주의적 제반 개혁에 의한 생산 관계의 기본적 변화는 상업 방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태를 낳게 하였으니 국가 상업과 소비 조합 상업이 곧 그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상업은 인민 민주주의적 총 로선에 립각하여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과 건전한 국가 재정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에 막대한 공헌을 이루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강탈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후 조선의 락후한 봉건 리조의 사회 경제 토대를 이루고 있던 농노적 명제 경작을 본질적으로 존속시키면서 지주를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적 반봉건적 농업 기구를 형성하였다。이리하여 놈들은 조선을 독점적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의 산업 건설을 조해하고 다만 락후한 농업국으로 머물러 있게 하면서 저렴한 일용 잡화와 사치품을 다량으로 조선 시장으로 실어 왔으며、반대로 조선으로부터 조선 농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쌀과 많은 공업 원료를 실어갔던 것이다。벌써 一九三三년에는 조선의 미곡 총 생산량의 五〇% 이상인 八七〇만석을 강탈하여 갔으며、놈들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에는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미곡 강제 공출 제도에 의하여 그 이상 강탈하였을 것은 물론이다。나타난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一九二一년으로부터 一九三一년에 이르는 사이에 매년 조선에 대한 수출액은 일본 총 수출액의 평균 一九% 이상을 차지하였으니 이로써 얼마나 놈들이 조선을 상품 시장과 식량 공급지화하였는가를 넉넉히 알 수 있다。

홍수 처럼 밀려드는 일본 상품은 조선 농촌의 자연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아울러 토착 지주들의 착취는 혹심하여 농민들은 극도로 궁핍하여 갔다。농촌의 자녀들은 생계를 얻기 위하여 광산 공장 등으로 팔려갔으며、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가혹한 로동력의 착취를 당하였다。이리하여 조선은 또한 일본 제국주의 자본가들의 값헐한 로동 시장으로 되였다。

一九一九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직접적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상품보다는 이제는 자본을 조선에 부식하기에 더욱 광분하였다。

일본 금융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자본을 부식하기 위한 매개 기관으로서 은행을 조선 내에 설치하고 자본의 회전과 리윤률이 높은 경공업 방면, 특히 식료 가공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이 반면에 당시 경공업 방면에 약간의 진출을 보게 된 조선의 토착 자본은 그 발전이 극히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 고리대 자본의 성격이 농후하여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품을 취급하며, 일제로부터 자본과 원료 및 기술적 「원조」를 받음으로써만 그들의 리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따라서 이러한 자기들의 처지에서 조선 토착 자본가들은 또한 정치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야합하였던 것이다。이리하여 조선의 산업은 완전히 일본 금융 자본가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였으며, 조선의 민족 경제는 급속히 파멸 과정을 밟게 되였고 일반 대중의 생활은 더욱 궁핍하여 갔던 것이다。농촌 경제의 몰락 과정은 극심하여 신용하기 어려운 「조선 총독부 통계 년보」에 의하더라도 총 경지 면적에 대한 자작 및 소작 경지 면적 비률에 있어서 一九三〇년에는 자작지 四四·四%、소작지 五五·六%였다면 一九四二년에 와서는 자작지 四一·七%、소작지 五八·三%로서 소수 지주에의 토지 집중과 아울러 소작 관계는 확대되여 갔다。다시 농가 호수의 구성 비률을 보면 一九三〇년에는 총 농호에 대하여 자작농 一八·四%、자작 겸 소작농 三七·五%、소작농 六八·一%로 되여 있다。이 자작농의 비률에는 놈들의 조사 방법에 의한 지주 이외의 많은 화전민과 극히 적은 토지를 소유하는 빈농민들도 포함되여 있을 것이다。

일제 통치 시기에 있어서 토지 집중화 과정이 남조선 지방에 비하여 그렇게 급속히 진행되지 않았던 북조선에서 해방 후 이루어진 토지 개혁의 결과만 가지고 보더라도 북조선 총 농가 호수의 七〇%에 해당하는 고용 농민과 빈농민들이 토지를 분여 받았으며 또 몰수된 토지는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지 (몰수 면적에 비하여 九·五%) 와 주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몰수 면적에 비하여 六一·一%) 로서 그 면적에 있어서는 북조선 총 경지 면적의 四六%를 차지하는 것이니 이상의 숫자만으로도 우리는 일제 통치 발년에 있어서의 조선 농촌 경제의 붕괴 과정과 농민 생활의 처참한 정형을 알 수 있는 것이다。더우기 一九二九년부터 닥쳐온 심각한 공황은 일본 제국주의를 일대 위기에 떨어뜨렸으며, 조선 내에도 이 선풍은 파급되였다。많은 중소 상업자들은 파산 당하고 상점문을 닫아 버렸다。

일제는 공황에서 받은 거대한 부담을 식민지 조선에서

다소나마 완화하려 하는 한편, 자기들의 궁경을 중국 대륙 침략에서 타개하려고 하였으며, 이리하여 조선을 대륙 침략의 소위 병참 기지로 삼고 이 때로부터 조선 내에 광공업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一九三一년 九·一八 만주 침략을 계기로 하여 일제의 중국, 쏘련에 대한 대규모의 침략 준비는 조선이 가지는 군수 자원의 가치를 재검토하게 하였으며, 특히 중일 전쟁 개시와 그의 장기성은 조선의 모든 군수 자원을 동원하여 본격적인 광공업의 확립을 요구하게 하였다。

一九三二년을 기준으로 一九三九년에는 공장 수가 一배반, 생산액은 약五배, 종업원 수는 二배반이나 증가하였고 과거의 식료 가공업은 격감하는 한편, 전쟁에 필요한 화학 공업, 금속 공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장성하였다。이와 같은 광공업의 건설은 놈들로 하여금 조선 로동자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착취와 전시적 강제 로동의 강화 등 더욱 가혹한 정책을 쓰게 하였다。로동자의 一일 평균 실 로동 시간이 十一시간 二十분이였던 반면에 임금은 一일 평균 불과 二원 전후로써 한정 인플레로 인하여 물가는 전쟁 전 四十—五十배로 등귀된 조건 하에서는 실로 생명조차 유지하기 곤난하였으며, 또 농민들에 대한 과중한 물질적 부담은 더 말할 수 없었다。소위 「중요 산업 통제법」 실시에 의하여 일제 독점 자본은 더 한층 독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산업 생산품은 일제의 장기적 침탈 전쟁에 동원 소비되고 조선의 상업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들어갔으며, 물가는 폭등하여 조선 인민의 생활의 위협은 극심하였다。一九四三년의 조선 상업에 있어서 민족 자본의 비률은 一五%에 불과하였으며, 이것도 일본 대독점 상업가들에 부속되여 그들로부터 상품 찌게기를 받아 잔명을 유지하여 가는 데 지나지 않았다。그리고 나머지 八五%가 일제 독점 상업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던 것이다 (이상 「조선 총독부 조사 자료」에 의함)。

한마디로 말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 三十六년 간은 실로 조선 인민 경제 생활의 파산 과정이였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 결과 조선 인민에 대한 착취와 억압, 괴로와 곤궁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 위대한 쏘련 군대는 우리 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조선 인민은 해방된 첫 날부터 조국의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이리하여 쏘베트 동맹의 끊임없는 원조와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의 올바른 지도 하에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건설은 찬란하게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계속 향상되여 가고 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산업은 일제의 장기간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장 광산은 과괴상태에 처하였고 또는 놈들이 패주하면서 고의적으로 중요 공장, 탄광, 광산 및 기업소들을 파괴하였으므로 그 생산 기능은 정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며, 일제 말년에 탐발된 지폐와 또 상품 특히 생활 필수품의 고갈로 인하여 일반 시장 경제는 형용할 수 없는 정도로 혼란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이 기회를 타고 모리 간상배들이 발호하여 해방된 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북조선 주둔 쏘련군 사령부에서는 一九四六년 一월에 북조선 중앙 은행을 설립하고 「붉은 지폐」를 발행하여 통화 조절을 도모하였으니 이는 우리 인민 경제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이였다. 발행된 「붉은 지폐」에 의하여 낡은 지폐는 점차 구축당하고 이에 화폐의 안정성을 보게 되였으며, 물가도 더 이상은 고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 정세 하에서 김일성 장군의 력사적인 二十개조 정강 발표에 의하여 인민 경제 방향이 명시되였으며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들이 착착 실시되였다. 一九四六년 八월 十일에는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이 발포 실시되여 전체 산업의 九○% 이상이 국유화, 즉 인민의 소유로 됨으로써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았다. 이리하여 우리는 인민 경제를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였다.

우리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 장군은 一九四七년도 인민 경제 발전에 관한 보고에서 「우리는 산업의 중요한 부문과 운수 급 은행을 우리 수중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인민 경제를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를 환기시키였습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을 보지 못하고 일반 경제 부문을 유일한 목적과 과업으로 포용하지 못하고서는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채굴업, 가공업, 발전소, 철도, 자동차 운수, 수상 운수, 농촌 경리, 어업, 상업, 소비 조합, 은행 등 인민 경제 제부문을 반드시 유일한 국가적 견지에서 실시하여야 될 것이며, 가급적으로 단기간에 우리의 경제를 부흥 재건하여야 만 경제 생활을 개선하여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재부를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

영명한 김일성 장군의 교시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一九四七년 一九四八년 두차례에 걸친 인민 경제 계획을 근로 대중을 선두로 한 전체 인민의 애국적 운동으로써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지금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이제 인민 경제 계획 달성에 의한 산업 발전 상황을 보면 공업 생산고에 있어서 一九四六년도를 一○○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도에는 一八九·三%, 一九四八

년도에는 二六三·三%, 一九四九년도에는 三七七·一%로 장성되였다. 기계 공업과 경공업 생산량은 벌써 전쟁전 수준을 초과 달성하였는바 一九四四년도에 비하여 기계 생산은 二四六·九% 경공업 생산은 一五二·七%로 각각 장성되였다.

농업 생산 부문(미 잡곡)에 있어서는 一九四六년도를 一○○으로 하여 一九四七년도에는 一○九%, 一九四八년도에는 一四○·六%,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三九·八%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수산 부문(어로 및 가공)에 있어서도 一九四七년도를 一○○으로 하여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一○·一%,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二二·九%로 장성되였다. 림산 기타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인민 경제 체제 하에서의 산업의 급속한 장성은 이에 상응한 새 형태의 국가 상업과 소비 조합 상업의 발전을 가져 오게 하였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상업은 국가 상업, 소비 조합 상업 및 일반 개인 상업의 형태로써 구성되였으며, 이 외에 농민과 생산 합작사원들의 생산품 판매 부분이 있는 바 그 중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이 주동적 역할을 하게 되였다.

상업은 원래 생산 관계 여하에 따라 그 본질이 규정되는 바 사유제에 기초한 사회적 분업 생산에서부터 나온 상품―화폐 관계, 즉 상품 교환은 그 자체가 또한 사유 재산을 축적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공화국의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은 주로 국영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교환 형태로서 인민 경제 발전과 전체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상업으로 전환하였다.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국가 상업과 소비 조합 상업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중대하다. 그것은 일반 근로 인민들의 상품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 생산품과 농산물의 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생산 부문의 확대 재생산을 촉진시키며 화폐 축적을 도모하여 국가의 재정을 원활하게 하며, 또 일반 시장 물가를 조절하여 인민들의 소비 생활을 통한 그들의 실질적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상업은 유일한 국가의 상품 수급 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운영되며, 또 국영 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 가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맹목적 가치 법칙에 의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 또는 생산비에 기초하여 국가 자신이 인민 경제의 강화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격을 계속 저하시키는 방향에서 의식적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 해방 후 국가 상업과 소비 조합 상업의 발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상업의 상품 총 류통액은 一九四七년도를 一○○으로 하면 一九四八년도에는 二○三%, 一九四九년도에는 四八二·一%로 장성

하였으며, 이를 一九五〇년 예정 숫자와 대비하면 五九五%의 장성을 보게 된다. 소비 조합 상업에 있어서도 一九四七년도를 一〇〇으로 하면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三三·五%,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五六·七%, 一九五〇년도 예정 숫자에 대비하여 一八五%의 장성으로 된다. 총 상점망에 있어서는 국가 상업은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에는 二〇一·三%로, 一九五〇년도 말에 가서는 二一二%로 확장될 것이며, 소비 조합 상업은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에는 一四八·五%, 一九五〇년도 말에 가서는 一五二·五%로 확장될 것이다. 특히 로동자 사무원용 배급 굴자와 각 직장 상점을 통한 상품 류통액은 一九四九년도 一년간에만 하여도 국가 상업 류통 총액의 四八%에 달한다.

이상과 같은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의 급속한 장성은 공화국 북반부의 근로 인민들의 소득이 계속 장성하여 감에 따라 그들의 소비 생활이 또한 높아 가며 이에 호응하여 국영 기업에서의 생활 필수품 생산도 증가되여 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의 급속한 발전과 아울러 一九四七년 十二월에 실시한 화폐 개혁의 결과로 북반부의 일반 물가는 현저한 저하를 보이고 있다. 국가 상품 가격은 그후 수차에 걸쳐서 인하되였고 따라서 일반 시장 물가도 계속 저하되여 가고 있다. 이제 국가 상품 가격에 있어서 一九四八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一九四九년도에는 국영 산업 부문 七·七%, 지방 산업부문 一七·七%, 림산 부문 一五·一%, 수산 부문 一七·三%로 각각 인하되였으며, 일반 시장 물가에 있어서도 곡물을 실례로 들어보면 一九四七년 一월에 비하여 一九四九년 十二월에 와서는 평균 四〇%가 저하되였다.

다음으로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시책은 또한 개인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 상업가들은 공화국 상업 정책에 순응하면서 인민 소비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一九四八년도에 있어서 개인 상업의 총 상품 류통액이 一八九억 三천만원이 있다면 一九五〇년에는 一九四억 五천만원으로 장성될 것이다. 또 총 상품 류통액에 비하여 보면 一九四八년에는 개인 상업이 六二%를 차지하였으며, 一九五〇년도에는 四五·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개인 상업이 상업 총 류통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국가 상업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생활 필수품이 직접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싼 가격으로 배급되거, 또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일반 시장가격보다 대단히 저렴한 것과,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주로 인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상품인 반면에 개인 상업에서는 화장품 등 기타 사치품들이 많이 취급되고 있음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취

급하는 상품의 량이 개인 상업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체 상업 부문에 있어서 국가 및 소비 조합이 주동적 역할을 하게 되는 데서부터 개인 상업이 차지하는 비례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여 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즉 중요 산업이 국가의 수중에 있고 국영 기업소에서의 생활 필수품의 생산 증가는 일반 중간 상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저렴한 국가 가격으로써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을 통하여 직접 소비 대중에게 공급되는 까닭이다. 끝으로 우리는 국내 상업 발전과 아울러 조쏘 량국 간의 상품 교류를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제 조쏘 량국 간의 一九四六년도 무역 총액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도에는 二〇四%, 一九四八년에는 三五七·七%, 一九四九년도에는 四五九·八%로 장성하였으며 一九四九년 一년 간에 있어서만 하여도 산업 발전과 농업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계, 자재, 원료 등으로써 제련 제철업에 절대 필요한 압연기 콕스탄을 비롯하여 방적기, 직조기, 공업 원료로서는 원유, 면화, 석고 등 기타 많은 공업용 기계 자재와 뜨락또르 기타 근대식 농기계 등을 수입하였는 바 이는 총 수입액의 六六·八%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 수입액의 二七·三%에 해당하는 인민 생활에 절대 필요한 각종 직물을 비롯하여 많은 의복류를 수입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쏘련과의 무역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 상업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쏘 경제 협정에 의하여 앞으로 량국 간의 상품 교류는 일층 활발하여질 것인바 쏘련과의 경제적 련계를 일층 강화함으로써만 우리 공화국 경제는 더욱 공고 발전하여 갈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하여 제 인민 민주주의 국가와의 상품 교류에 있어서 앞으로 커다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三、

우리는 이상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상업의 급속한 발전 상태를 보아 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세 형태의 상업으로서의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의 그 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며, 이는 생산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밀접히 련결시킴으로써 산업 생산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필수품을 원활히 공급하며 그들로 하여금 인민 경제 건설의 의욕을 일층 높이여 준다.

일찌기 쓰딸린 대원수는 상업 발전의 의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였다. 「……국내의 경제 생활을 룰성케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공업과 농업이 그 생산액의 계속 증대에 대한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 즉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에, 국내의 여러 구역과 여러 주와의 사이에, 인민 경제의 여러가지 부문 사이에 전개되여 가는 상품 류통이

있어야 한다。……보는 바와 같이 쏘베트적 상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함이 없이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긴요한 과업인 것이다」(이·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로동당 출판사 제三부책 二〇八폐지)。

만약 우리 상업이 자기의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하면 국영 기업소의 생산품은 체화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 결과 기업소의 생산 활동은 위축될 것이며, 인민들은 상품을 두고도 이를 사지 못하여 소비 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통화의 조절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의 재정 금융을 곤난하게 할 것이다。이와 같이 상업은 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에 앞으로 어떠한 과업이 제기되는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경제는 나날이 장성하여 가고 있다。공업 생산품과 농산물은 매년 증가되여 가고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근로 대중의 소득이 장성됨에 따라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효와 소비가 또한 급격히 늘어 가고 있다。특히 장성하는 근로 인민들의 소비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내각은 一九五〇년도에 있어서 금속 제품, 식료품, 섬유 제품, 화학 제품, 유리 제품, 목제품, 도자기 등 기타 五억 四천만원에 해당하는 생활 필수품을 증산하기로 결정하였다。이상과 같은 제조건들은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의 분야가 일층 확대되여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현재 형편으로써는 국영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 도구와 농촌 생활 필수품은 아직 농민들의 수요에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태로서 이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에서 공급 받지 못하는 부족되는 물품을 부득이 일반 시장에서 고가로 구입하게 되며, 농산물 가격과 일반 시장 물가와의 차이로 인하여 농민 생활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그러므로 이런 환경에서 국영 기업소에서는 농촌 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나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에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 및 생활 필수품을 싼 가격으로 신속히 더 많이 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과 공업의 련계를 더욱 긴밀히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일층 튼튼히 하는 데 그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은 오늘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 앞에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은 국영 기업의 생산품을 지체 없이 일반 소비 대중에게 공급하여 상품—화폐의 회전을 촉진시키며, 이리하여 생산 부문의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또 아직 일반적으로 상품이 부족한 오늘의 조건 하에서는 배급 제도를 일층 강화하며, 자체 수매 사업을 활발히 전개

하여 생산품 류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일반 시장 물가를 조절함으로써 간상배들과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기본적 제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구체적 과업이 나서게 된다。

(一) 오늘과 같은 실정에 있어서 각급 당 단체와 당 일꾼들은 상업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들과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산업 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김일성 수상께서는 「전체 산업 일꾼들은 인민과 국가 앞에서 자기가 가지는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자기의 사업을 상당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그를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이 말씀은 곧 상업 부문 일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상업 일꾼들 중에는 아직도 국가적 립장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상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함을 볼 수 있다。일부 상업 일꾼들 가운데는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점에 근무하고 있는 자기의 국가적 인민적 임무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 못하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로 알고 있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자기 사업에 대한 해이성과 무책임성을 나타내게 하며, 전망이 없는 사업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실례들을 가져 오게 한다。쓰딸린 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공산당원들의 일부에는 일반적으로는 상업, 특수적으로는 쏘베트적 상업에 대하여 멸시하는 거만한 태도가 아직도 군림하고 있다는 그것으로부터 말하기로 하자。이 소위 공산당원들은 쏘베트적 상업은 부차적인 가치없는 사업으로 간주하며, 또한 상업 일꾼들은 여망없는 사람들로 간주한다。이 사람들은 쏘베트적 상업은 우리의 혈연적 볼쉐위끼적 사업이요, 소매점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 통틀어 넣어서 상업 일꾼들은 만일 그들이 진실하게만 일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적 볼쉐위끼적 사업의 실행자가 된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一九四九년 조선문판 제三분책 二〇八폐지)。실로 쓰딸린 대원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의 일은 천한 일이 아니며, 그것은 조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에 복무하는 일꾼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고상한 국가적 임무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또 그 방향에서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상점에 진렬된 상품에는 먼지가 쌓이고 상품을 되는 대로 취급하며, 간상배들과 투쟁하려고도 하지 않고 「물건이 없으니 할 수 없지요」하는 식의 부기력한 사업 작풍과 장사하는 것을 배우려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지내는 안일한 경향들과 상점에 찾아 드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불친절한 그러한 모든 관료주의적 해독적 작풍을

급속히 퇴치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상업 일꾼들은 높은 정치 사상 의식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상업에 대한 리론과 기술로써 무장함으로써 자기들의 임무를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이 민주 상업을 통하여 자기들의 생활 필수품을 명랑한 기분으로 아무 불편도 없이 언제나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문명한 상업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특히 이부문에서 일하는 우리 당원들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二) 개인 상업과 일반 시상에 대하여 국가 상업과 소비 조합 상업은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위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이 공화국 북반부의 일반 상업은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과 일반 개인 상업의 형태로써 구성되었으며, 상품 류통액에 있어서 개인 상업이 아직 상당히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一九四九년도를 례로 들어 본다면 산업 총 생산액에 있어서 국영 산업이 八七·六%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상품 총 류통액에 있어서는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은 四九·一%, 개인 상업은 五〇·九%라는 비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 비률은 국영 산업에 있어서 아직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풍족하게 생산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의 현하의 발전 상태는 우리 나라의 상품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국가、및 소비 조합 상업을 앞으로 일층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방책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제기되는 것이다。

개인 상업이 이상과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우리는 일반 시장 물가와 통화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곤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 상품 가격과 일반 시장 물가의 현격한 차이로 말미암아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과 일반 시장 사이에 중간 간상배들이 준동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의 당면한 과제는 국영 생산품과 중요 생활 필수품은 전적으로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실시하며, 특히 중요 도시들에 있어 중간 간상배들이 준동하여 물가를 올리는 현상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 일반 물가를 저락시킴으로써 간상배들의 준동을 배격할 것이며, 민간 자금을 상업 방면에 돌리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를 생산, 즉 생활 필수품 생산 방면에 돌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모든 지방적 원료 원천과 국영 기업의 잔여 자재를 동원하여 생활 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망을 일층 확장하여 자체 수매 사업을 지방적 실정에 비추어 능동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상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국가 상품이 중간 간상배의 손

에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상품 배정 또는 판매 조직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 농민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농산물에 대한 중간 간상배들의 준동을 배격하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도시의 근로 대중에게 판매케 하여 농민들과 근로 소비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과거의 실례를 보면 이와 같은 사업들이 철저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즉 자체 수매 사업에 있어서 수매 원천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대신에 중간 상인들에게서 고가로 매입하며, 또 상품 판매 계획과 상품 회전수를 달성하는 데만 급급하거나 또는 많은 상품을 도매하여 버림으로써 개인 상점에는 그 상품이 진렬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상점에는 상품이 없어 팔지 못하는 실례도 있으며, 일부 상업 일꾼들이 도시들의 시장이 일반 물가를 얼마나 좌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탓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투쟁할 데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아 그 시장 안에 설치되여 있는 국영 상점은 도리여 간상배들의 롱락을 당하고 있는 사실들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현상들과는 조금도 타협없는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三) 다음으로 상품 배정 사업을 옳게 조직하기 위한 보장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 배정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결점들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어느 지방 또는 어느 상점에는 상품이 체화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 상품이 없어 인민들의 수요에 응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든가 해당 상품의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한 까닭에 장기간에 걸쳐서 체화되는 사실도 있으며, 또 지역적 조건과 소비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분배하여 버리는 경향들도 있으며, 상품 배정 통지를 지연시킨다든가 또는 상품 배정 통지를 받고도 오랫동안 상품 인수를 하지 않는 사실들이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로동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로사용 물자를 정확히 공급할 대신에 일반 시장에 [illegible]유 판매하는 부분적 사실들도 있다。

자체 수매 사업에 있어서도 그 수매 원천을 지방적으로 정확히 조사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위로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에서 지방 하부 일꾼들은 자기 수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 까지 찾아 다니는 실례들이 있으며 또 중간 간상배들을 상대로 하여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상품 원가를 높이며, 따라서 시장 물가에 까지 영향을 주는 사실들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결점들을 급속히 퇴치하고 구체적 실정에 적합하도록 상업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 배정 사업과 관련하여 상업망 포치 문제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바 상업망 확장에 있어서 특히 지

역적 조건과 상품의 수요 정도 또는 국가 상업망과 소비 조합 상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치에 유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四) 상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국가에 리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사업은 전체 상업 일군들의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一九四九년도 국가 상업의 결산 결과를 보면 적지않은 손실을 가져왔다. 물론 오늘의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업은 리윤만을 추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 부문에 투자된 국가의 자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 국가 상업을 통하여 회수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경제 활동이 그렇거니와 특히 상업에 있어서 리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업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국가 상업에서 손실을 보게된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매개 상점, 식당, 리용 시설들에 있어서 독립 채산제를 확립못한 것과, 부분적 일군들에게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적은 것 또는 상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상업 부문에서는 아직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관리체 단위로 종합 채산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 일군들에게는 독립 채산에 대한 관심이 회박하여 자기들의 상점에서 리익을 냈는지 손실을 보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급속히 독립 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널리 경쟁 운동을 전개시키며, 가능한 정도에 따라 상금제를 실시하여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특히 재정 경리 규률을 엄격히 세워야 할 것이다.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업 부과비를 저하시키며, 상품 취급을 신중히 하여 자연 감모와 파오손률을 저하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품 회전을 신속히 하며 불필요한 로력을 축소하여, 경비를 극력 축감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상 부분적 결점들을 들어보면 법정 부과 비률을 유지못한 반면에 경비는 초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illegible]오손 등으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주었으며, 상품 회전에 있어서도 一九四九년도에 있어서 계획 회전수 七、二회전에 대하여 실적은 五、三회전이라는 락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결점들을 급속히 퇴치하고 상업 부문에 있어서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고 재정 규률을 엄수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여 국가의 인민 경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전체 상업 부문 일군들은 인민 경제 부문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의 일층 발전을 위하여 높은 국가적 견지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 경제의 파멸과 근로 인민들의 빈궁상

신 정 호

최근 리승만 매국 역도들과 그 상전 미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반동적 언론 기관, 라디오, 기타 선전 기관들을 통하여 소위 미국의 원조 혜택으로 산업 및 농업 경제가 남반부에서 「발전」 되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면 남반부의 경제는 과연 「발전」 되고 있는가? 아니다. 정반대로 더욱 혹심하게 파멸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하게 예속화되고 있다. 역도들과 그 상전들의 선전은 허구 날조로서 미 제국주의의 악독한 침략적 결과를 은폐하고 리승만 역도들의 매국적 정체를 기만하려는 음흉한 책동에 불과한 것이다.

리승만 매국 정권이 조작된 이래 미제국주의자들과 역도들과의 사이에 소위 「한 미 경제 원조 협정」이 체결되고 제一차로 一九五〇년도 경제 「원조」액 一억 二천만 딸라를 계상하여 그 반액인 六천만 딸라를 一九四九년 七월 一일로부터 一九五〇년 二월 十五일까지의 기간 내에 제공하고 나머지 반액인 六천만 딸라는 二월 十六일부터 六월 三十일까지의 사이에 제공하기로 예정되여 있다.

역도들과 그 상전들은 一九五〇년도 제一차 「원조」액 중 그 상반기분 六천만 딸라에 해당한 물자가 공급된 결과 남반부 경제가 一九四九년도에 마치 「굉장」하게 「발전」 된 듯이 떠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놈들은 소위 발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련의 숫자들을 허구 날조하기에 전력을 경도하고 있다.

그러나 허구 날조한 숫자 그 자체의 모순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것이요, 더우기 이것으로 생생한 현실을 은폐할 수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실로 미 제국주의자의 악독한 침략과 그 주구들의 매국적 악행 하에 있는 남반부의 예속 경제는 산업 및 농업을 통하여 해마다 더욱 혹독하게 파멸되고 식민지적 예속성은 일층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 대중들의 생활은 극도로 비참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파멸과 예속화는 미국인의 소위 원조에 의하여 더

욱 촉진 격화될 뿐이다.

* *

이제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소위 원조의 정체를 살펴 보자.

탐욕적 세계 제패를 몽상하고, 자국내 경제 공황의 출구를 새 전쟁 방화에서 찾으려는 월가의 「대왕」들은 우리 남반부에 대한 독점적 시장화를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월가 「대왕」들의 소위 경제 원조는 우선 남반부의 전경제를 자기의 리익에 완전 봉사시키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소위 경제 원조는 철두철미 이 방향과 이 목적 달성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一九四九년 七월 一일부터 금년 二월 十五일까지의 소위 원조 물자의 종목과 그 수량에서 아주 분명하게 폭로되고 있다.

소위 경제 원조처 책임자 번즈의 발표에 의하면 六천만 딸라의 「원조」 내용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一、식량	二○二、○○○딸라
二、비료	二四、六七○、○○○딸라
三、의료품	四二四、○○○딸라
四、석유 제품	四、六○○、○○○딸라
五、생산재	一一、六一四、○○○딸라
六、공업 기계	五八○、○○○딸라
七、부흥 계획비	七、八六二、○○○딸라
八、항공 시설	三五○、○○○딸라
九、기술 감정	五六一、○○○딸라
一○、기술 원조	一、八六一、○○○딸라
一一、이·씨·에이 행정비	一、七○○、○○○딸라
一二、해상 운송비	六、一六二、○○○딸라
一三、운송비	五○、○○○딸라

번즈가 발표한 이상의 내용은 놈들이 남반부 경제를 「원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그 실제보다는 저들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표준한다 하여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경제 원조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첫째, 六천만 딸라 중 미국인들의 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막대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씨·에이 행정비, 해상 운송비, 기술 감정비 및 원조비라는 것이 합계 一천 二十八만 四천 딸라로서 전액의 一七%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것은 「원조」 항목에 들어 있으나 어떠한 물자로써 남반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미국 상인들의 주머니 속에 딸라 그대로 들어 가는 것은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의 소위 원조라는 것은 一할 七분의 선리자를 때는 고리 대금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위 원조

물자는 실제에 있어 五천만 딸라 이하로 되는 것이다.

둘째, 소위 원조 물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비료이다. 즉 비료는 二천 四백 六十八만 딸라로서 전액의 四一%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업 발전을 위한 기계류는 겨우 五十八만 딸라로서 ○·九% 밖에 아니 된다.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은 왜 소위 원조액 중에 四一%나 비료를 포함시키고 반면에 공업 기계에는 ○·九% 밖에 배당하지 않았는가? 미 제국주의자의 시도는 여기에서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는 다액의 비료를 배당하면서 언필칭 식량의 자족 자급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주 교활한 허위와 기만인 것이다. 다액의 비료의 배당은 결코 남반부 인민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저들의 극동 침략의 앞잡이인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목적한 것이다. 놈들이 강제로 떠맡기는 비료 때문에 농민들은 더욱 파산하게 될 뿐이다.

그것은 우선 다음의 사실에서 명백하다. 현재 一딸라 대 一천 八백 五십원(공정 환산률)으로 계산하면 반년간 비료 대금은 실로 四백 五십 六억 三천 九백 五십만원으로 된다. 이것은 놈들이 발표한 남반부 백미 수확 최고량인 一천 四백만석을 놈들이 강제 공출시키는 가격, 一석 六천원으로 계산한 八백 四十억원의 절반 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반부 농민들에게 비료를 강제로 떠맡[illegible] [illegible] 부 농민들이 생산한 백미 총수확의 거의 六○%를 수탈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비료는 원료 비료가 아니라 합성 비료로서 그 질이 아주 나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소위 국회 의원들까지 루차 항의한 것이다. 또한 비료 배급은 결코 농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적당하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지나서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였다. 四월 二十일 「한성 일보」 보도에 의하면 소위 추곡 보상용 비료 배급이 전북에는 四○% 미만, 충북에는 二○% 밖에 되지 못하였으며 충남에는 하나도 배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제사실들은 농민으로부터 전생산물을 강탈하여 일본 군국주의 재생을 방조하며, 농민을 기만하여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주는 것이다. 반면 공업 기계가 ○·九%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반부 경제 정책의 악독한 [illegible]을 아주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침략 정책 하에서 만약 산업 경제가 발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산업 파멸을 위한 미 제국주의자의 악독한 정책은 작년 十월부터 소위 경제 원조 물자 중 현재 남반부에 있는 모든 공업 부문의 수요품 및 보급 부분품을 일체 제외한데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十九종의 물자를 소위 [illegible]

제외하였는데 그 중에는 방직, 제지, 제혁, 석로 제조, 인쇄 등 제공업의 수선 및 보수 부분품 등이 포함되여 있다.

사실상 남반부의 중공업 부문은 벌써 완전히 파멸되여 있고 아직도 약간의 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방직 공업을 위시한 경공업 뿐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경공업 부문까지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하여 그 수선 및 보수 부분품을 소위 원조 물자 중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위 원조 물자 六천만 딸라 중에서 기계는 一%도 되지 못하고 기존 공업 부문에 필요한 수선 및 보수의 부분품까지 제외하는 그 의도와 추구하는 목적이 어데 있는가가 아주 명백하지 아니 한가?

여게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미 제국주의자의 소위 원조라는 명목 하에서 진행되는 남반부에 대한 경제 정책은 남반부의 현존한 산업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남반부를 일제의 식민지 시대보다도 더욱 후퇴시키여 아주 락후된 봉건적 중세기적 농업 국가로 정체시키는 동시 미국 자체와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 또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그것이다.

세째, 그러면 소위 六천만 딸라의 원조액 중 그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위하여 배당되였는가? 소위 부흥 계획비, 항공 시설 및 석유 제품이라는 명목 하에서 저들의 군사 기지화 및 군사 행동을 위한 물자로서 一천 二백 二十一만 二천 딸라가 지출되고 소위 생산재, 식량, 의료품의 명목 하에 一천 二백 二十四만 딸라의 소비용 상품이 배당되여 있다. 물론 생산재 속에는 약간의 고무, 면화 등이 포함되여 있으나 그 대부분은 반제품 완제품으로서 소비용 상품으로 되여 있으며 소위 부흥 계획비는 저들의 설명과 같이 도로 교량 등 토목 공사를 위한 것으로 저들의 군사 시설이 그 목표인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경제 원조는 一九五○년도 상반기 六천만 딸라에 한하여서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一九五○년도 하반기, 즉 一九五○년 二월 十六일로부터 一九五○년 六월 말일까지의 소위 원조액 六천만 딸라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요사이 새로이 미 국회에서 통과된 一九五一년도 소위 원조액 一억만 딸라의 내용에서도 또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三월 十三일 이·씨·에이 단장 데리 앤드슨의 발표에 의하면 一九五一년도 「원조」액 一억만 딸라의 예정 내용은, 품종이 감소되였는데, 다만 비료만은 一九五○년도에 비하여 七백 五十五만 二천 딸라가 증가되였다 하며 감소된 물품 중에 가장 현저한 것은 소위 생산재인데 이 생산재 중에서도 면화와 면사가 결정적으로 감소되였다고 한다. 여게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 농민들을 더욱 혹독하게 착취 강탈하여 일본 군국주의

재생에 봉사시키고 약간의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섬유 공업까지도 원료를 아니 줌으로써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것이 더욱 명백히 판명되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의 소위 경제 원조의 본질은 간단히 이러한 것으로써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남반부 경제의 파멸적 현상을 가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 ※ ※

미 제국주의자의 이러한 침략 정책과 매국노 리승만 역도들의 유린 하에 있는 남반부 산업은 과연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는가? 특히 一九四九년도에 와서 놈들이 떠드는 것과 같이 「발전」되였는가?

이제 우리는 놈들이 발표한 숫자의 파렴치한 허위성과 그 자체의 모순 당착을 구명하는 동시 남반부 산업의 현상과 그 장래 방향을 검토하여 보자.

一九四九년도 조선 경제 년감(조선 은행 발행)에 의하면 一九四八년도 남반부 산업의 총 생산고는 五백 二十억원으로서 一九四○년도 二천 四백 八十억원 (一九四八년도 물가로 환산한 액수)에 비하여 二一·二% 밖에 아니 되며 一九四三년도에 비하여는 실로 一四·五%에 불과하다.

놈들이 발표한 이 한가지 숫자에서 우리는 벌써 남반부의 산업이 一九四八년도에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파멸되였다는 결론을 간단히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 생산의 기본 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 및 그의 산업 부문에의 활용 정형(一九四九년도분)은 다음과 같다.

남반부 전력 생산고 (一九四九년말)

발전소	생산고
영월 화력 발전소	三八、○○○KW
당인리 화력 발전소	一一、○○○KW
부산 화력 발전소	二二、○○○KW
부산 발전선	一○、○○○KW
인천 발전선	二二、九○○KW
청평천 수력 발전소	九、七○○KW
령암 발전소	五、一八○KW
보성 발전소	一、○○○KW
목포 발전소	二、七○○KW
계	八二、六八○KW

(「경향 신문」二월 一일부)

남반부의 전력 소비에 있어 공업용과 전등용 비률 관계를 보면 一九四七년에는 공업 五七%, 전등 四三%, 一九四八년에는 五九% 대 四一%이다(一九四九년 조선 경제 년감). 그러한 까닭으로 一九四九년말 전력 총 생산고인 八二、六八○KW를 공업 六、전등 四의 비률로 보면 아무리 많이 공업 부문으로 전력을 보냈다 하더라도 五○、○○○KW를 초과하지 못하였을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남반부의 공업용 전력은 어떻게 변천되였는

가?

一九四五년 一一七、五一六kw
一九四七년 八〇、八六五kw
(이상 一九四八년 조선 은행 조사 월보 제五호)
一九四九년 , 五〇、〇〇〇kw

즉 총업에 소요된 전력이 一九四九년에는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六二% 밖에 아니 되는 형편이다. 이것은 一九四九년도 남반부 산업용 동력이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四〇%가 감소된 것을 말하는 동시 산업 생산도 그 정도에 따라 파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一九四九년도 전력 생산이 과연 놈들의 발표와 같이 八二、六八〇kw에 달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숫자는 허구인 것이다. 그것은 남반부 최대의 발전소인 녕월 발전소의 一九四九년도 생산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충분한 것이다. 一九四九년 조선 년감에 의하면 「남한 최대 화력 발전소인 녕월 발전소에서 월 평균 四〇、〇〇〇kw 출력하자면 三만톤의 석탄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이 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는 녕월 탄광의 一九四九년도 석탄 채굴량은 총계 二七〇、〇〇〇톤으로 월 평균 二二、〇〇〇톤에 불과하다. 즉 一九四九년도에 녕월 발전소에 공급된 석탄량은 월평균 三〇、〇〇〇톤이 아니라 二二、〇〇〇톤 내외로서 그 발전량은 三〇、〇〇〇kw 이상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一九四八년도의 실적을 보면 十월—十二월 三개월간 녕월 탄광 채굴량은 평균 一八、八〇〇톤으로 동시기 녕월 발전소 평균 출력량은 一九、七〇〇kw에 불과하였었다 (一九四九년 조선 경제 년감). 이러한 비률로써 계산하면 一九四九년 평균 석탄 채굴량 二二、〇〇〇kw에 대하여 발전소 출력량은 겨우 二二六、〇〇〇kw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一九四九년도 녕월 화력 발전소 발전량은 三八、〇〇〇kw가 아니라 三〇、〇〇〇kw 이하에 훨씬 떨어진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이 한가지 실례로써 一九四九년도 남반부 총 전력 생산이 八二、〇〇〇kw라는 것이 과장한 허구 숫자이며 산업에 들어간 전력이 五〇、〇〇〇kw가 아니라 그 이하에 훨씬 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一九四九년도 남반부 산업 생산은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四〇% 보다도 훨씬 더 저하되였을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一九四七년도와 一九四八년도에 벌써 남반부 산업이 결정적으로 파괴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一九四八년도 생산이 一九四三년에 비하여 一四·五%에 불과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一九四九년도에 와서는 一九四七년도의 六〇% 보다도 훨씬 더 참혹하게 파괴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은 이와

같이 무참하게 파멸된 산업 경제를 가리켜 소위 원조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다. 이 얼마나 파렴치하며 기만적인 것인가?

최근 남반부 산업 파멸에 대한 또 한가지의 숨길 수 없는 증거는 一九四七년 이래 남반부 산업이 더욱 령세화 세분화된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一九四九년도 조선 년감에 의하면 「남한 공업의 령세화 분산화는 동력의 대소별 수요를 고찰하면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력의 절반이 령세 공업, 반 수공업에 류입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었다.

전력 관계에서 또 한가지 구명할 것은 전등용 전력 이외의 전력은 전부 공업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조선 경제 년감에 의하면 남반부 공업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一九四三년에는 잡공업에 〇·九五%, 기타에 一〇·一七%에 불과하던 것이 一九四八년에 와서는 잡공업에 一一·六八%, 기타에 二九·九二%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잡공업과 기타란 무엇인가? 동 서적에 의하면 기타는 치안, 국방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요, 잡공업은 一〇kw 미만의 극 령세 동력을 쓰는 수공업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두 부문은 一九四八년에 있어 산업용 전력 전량의 四〇%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력 관계에서 보면 一九四九년도 실제 공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층 감소됨으로써 산업의 혹심한 파멸을 더욱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이 동력 관계에서 본 남반부 산업의 파멸적 현상이다.

남반부 산업의 파멸적 현상은 전일본인 소유의 공장 기업소, 즉 귀속 산업의 운영 상태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귀속 공장 및 기업소는 사실상 대부분이 폐쇄 상태에 있다.

남반부 산업이 해방 전에 있어서 그 거의 전부, 즉 九五% 이상이 일제에 속하여 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까닭에 귀속 공장 및 기업소의 운영 및 생산고 등은 남반부 전산업 경제의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정확한 척도의 하나인 것이다. 一九四九년 조선 경제 년감에 의하면 一九四八년 말에 운영된 귀속 공장 및 기업소는 중앙 직속 四〇三개소 중 一三八개소, 즉 三三%와 지방 소속 三、一四九개소 중 六三九개소, 즉 二〇·三% 밖에 운영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앙 직속과 지방 소속을 합한 공장 및 기업소 三、五五二개소 중 겨우 七七七개소, 즉 二一·九%가 운영된 것이다. 이것으로만 가지고도 남반부 산업이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얼마나 참담하게 파괴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운영되는 공장 및 기업소들의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장 및 기업체들이 자체

의 시설과 기계 능력에 비하여 얼마마한 정도로 운영되느냐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놈들이 발표한 다음의 숫자는 소위 운영되는 공장 및 기업소는 극히 부분적으로 움직일 뿐이요、그 대부분은 죽은 헛뎅어리로서 남아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종목	생산고	비률
귀속 공장 및 기업소	一、八四二、七〇〇만원	三五%
기타	三、四二一、九〇〇만원	六五%
계	五、二六四、六〇〇만원	一〇〇%

여기서 一九四八년 말에 운영되는 귀속 공장 및 기업소는 그 수로서는 해방 전에 비하여 二一·九%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동년의 생산고는 一九四三년에 비하여 겨우 一四·五% 밖에 아니 되는 전 생산액의 三五%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一九四八년도에 운영된 공장 및 기업소가 그 기계 능력과 설비의 四분지一 이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즉 전체 귀속 산업의 五% 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 ※

이제 각산업을 부문별로써 검토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一、금속 공업 (단위 톤)

품명	一九四六	一九四七	一九四八	一九四九(九월까지)
강철	六、八三九	七、五四八	—	—
선철과 주철	三〇、〇〇〇	八、〇〇〇	—	—
철관과 강관	二五〇	三〇〇	—	—
동선	二四一	二〇〇	—	—
전기동	?	二六〇	五一四	二九四
양정	五、四〇〇	七、八〇〇	一、六九五	一、八二四

(이상 一九四八、一九四九년 조선 경제 년감)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금속 공업은 산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식민지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업이 특별하게 발전되지 아니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중공업이 발전되지 아니 하는 까닭으로 식민지 산업은 예속성과 락후성과 편파성 등을 현저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공업에 있어서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업 발전을 조해하였는바 그 중 특히 이 중공업 부문의 발전을 극도로 조해한 까닭에 그 락후성과 편파성이 우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남반부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일제 시대에 건설되였던 그것까지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는 것을 상기 숫자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속 공업 중에서도 중요한 부문인 강철、선철、주철、철관、강관、동선 등은 一九四八년도부터는 저들의 산업 생산에 대한 발표 숫자 중에서 아주 말살하여 버렸으며 一九四八년도부터는 소위 금속 산업에 있

어서 오직 전기동과 양정만이 놈들의 발표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전기동과 양정에 있어서도 전기동은 一九四八년 월 평균 생산 四二·八톤에 비하여 一九四九년 九월까지의 생산은 월 평균 三一·七톤으로서 二四%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양정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도 월 평균 생산 六五〇톤에 비하여 一九四九년 九월까지의 생산은 월 평균 二〇三톤으로써 六九%의 격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二、기계 기구 공업

기계 기구 공업은 금속 공업과 함께 기간 산업이다。 식민지에서는 금속 공업과 함께 이 공업이 가장 그 발전을 조해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선에 있어서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금속 공업과 마찬가지로 이 기계 공업의 발전을 극도로 조해하였었다。 오직 일제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 약간의 기계 공업이 조선 안에서도 발달되기 시작하였고 이 공업은 주로 남반부 지역 내에 건설되였었다。 그리하여 기계 공업은 약 七一%가 남반부에 있었다。

그 유수한 공장으로는 부평 조병창、홍중 기계 제작소、룡산 공작소、진해 공작소、부산 중공업 공장 등이 있었으며 공구 제작、선박 기계、광산 기계、철도 차량급、운수용 기계、산업용 기계、기타 기계 부분품 등이 제작되였었다。 그리하여 一九四四년도에는 국내 산품으로 국내 수요의 五一·七%를 자급하게 되였다고 발표되였었다。

그러나 미군이 남반부를 점령하면서 이러한 유수한 공장과 그 기계 및 시설 등을 거의 전부 파괴하여 버리였다。 여기서 해방 전에 렬거되여 있던 국내 생산 품명 중 기관 및 동부속품 제조가 공용 기계、시계、학술용 기구、전신기、차량、선박 기관、자동차 기계、의료 기구、운수용 기계、광산용 기계 등은 완전 소멸 말살되고 말았다。 약간의 농기구 제작이 있으나 그것도 역시 통계표 상에 올리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것으로 되여 있다。

놈들은 기계 기구 공업 통계에 있어 오직 다음의 네 가지 품종밖에 발표하지 아니 하고 기타의 품종에 대하여는 전부 말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품종	一九四六	一九四七	一九四八	一九四九(七월까지)
변압기(대)	二、六四五	二、四七〇	一、九五九	三六四
전동기(대)	九一六	一、〇八八	二六六	五五
축전지(대)	一、三六八	二、七二一	三、〇八四	五四九
전구(천개)	二、二七五	三、七一九	三、三七三	二七四

(一九四九년 조선 경제 년감)

一九四七년의 월 평균 생산을 一〇〇이라 하면 一九四九년도에 와서는 변압기는 二五·三%로、전동기는 八·八%로、축전지는 三四·五%로、전구는 五·三%로 각각 감소되였었다。 또 一九四八년도에 비하여도

여지없이 감소되였었다。
놈들은 모든 산업 중 가장 중요한 기간 공업인 금속 공업과 기계 공업을 이상과 같이 파멸시켜 놓고도 남반부 산업이 발전된다고 떠들고 있다。

다음 중요한 산업들을 보면 유지 공업과 비료 공업은 역시 一九四八년도 一九四九년도에는 전연 놈들의 통계표 속에서 말살되여 있으며、카바이드 공업은 一九四七년 월 평균 생산 四三一톤에 비하여 一九四九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一五二톤으로 겨우 三五·二%에 불과하고、양지 공업도 역시 一九四七년도 월 평균 생산 五천 八백만 폰드에 비하여 一九四九년 상반기 월 평균 생산량은 五천 一백만 폰드、즉 八七·七%로 감소되였다。세멘트 공업에 있어서는 一九四八년도 월 평균 생산량 二、四七七톤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 상반기 월 평균 생산량은 一、七〇〇톤、즉 六八·六%로 격감되였었다。

다음 광산 채굴을 보면 금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도 월 평균 一八·六瓩에 비하여 一九四九년 상반기 월 평균 생산은 七·七瓩、즉 四一·四%로、은에 있어서는 一九四九년 월 평균 생산량 一、七三五瓩에 비하여 一九四九년 상반기 월 평균 생산량은 단지 六三瓩으로 三·六%에 불과하다。그리고 동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도에 一二八톤、一九四八년도에 六六톤、연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에 二三九톤、一九四八년에 二六〇톤、아연광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에 二、三四九톤、一九四八년에 四二二톤、아연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 一二五톤、一九四八년에 二二〇톤이였었는데 一九四九년도에 와서는 전연 생산되지 아니 하였다。물론 철광도 전연 채굴되지 아니 하였다。

이상과 같이 금속 기계 공업이 전멸되고 광업 채굴이 또한 거의 전멸되고 기타 중요한 모든 산물들이 여지없이 격감 내지 거의 멸망하여 없어진 것이 남반부 산업의 一九四九년도의 현상이며、미 제국주의자의 소위 원조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一九四九년도에 남반부 산업이 「발전」되였다고 짖거려대는가?

이것은 단지 고무 제품、면포、중석、흑연、및 석탄인 것이다。

교활하고 간사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매국노들은 一九四九년도 남반부 산업을 말할 때에 전멸되고 격감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일언도 언급하지 아니 하고 一九四八년도의 형편보다 조금 나아진 것만을 추켜들고 떠들어댐으로써 그 가증한 제국주의적 사기사와 짐승만도 못한 매국 주구들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은 도처에서 공장문이 계속 폐쇄되고 대공장이 과피 해체되여 군소 수공업으로 분해되는 것

을 매일 목도하며、기아에 허덕이는 실업자의 수가 날로 늘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아무리 교활한 사기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엄연한 현실을 어찌 기만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놈들이 추키여 들고 떠들어대는 공업 부문들은 과연 놈들의 말과 같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다。침소 봉대적 과장이며 기만인 것이다。

먼저 방직 공업을 보자。방직 공업은 남반부 공업 중 그 생산액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또 이 부문에 대하여는 일제 시대로부터 국내 반동들이 약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말 이래 번즈를 위시한 월가의 앞잡이들과 리승만 매국노들이 남반부 산업 경제가 「발전」된다고 떠든 종목 중에 이 부문이 그 대표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一九四九년도의 면포 생산에 대한 이·씨·에이 단장 번즈의 금년 一월 미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숫자와 매국 정권 상공부에서 발표한 숫자는 약 二〇〇%나 틀리고 있다。즉 번즈의 보고서 중에는 一九四九년도 남반부 면포 총 생산고가 八六五、四五二필(「련합신문」二월 五일)이라 하였으며、매국 정권 상공부에서는 一、七〇八、四七〇필이라고 하였다。「상공부」의 발표가 번즈의 보고에 비하여 二〇〇%나 더 증가되여 있다。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손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면포 생산에 대한 숫자 날조는 놈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성이 스스로 여지없이 폭로되고 말았다。

이 두 숫자 중에서 번즈의 보고서 중에 나타난 숫자가 허구성이 비교적 적기는 하나 이 숫자도 역시 상당히 과장한 것으로 실제 생산량은 그 이하에 훨씬 떨어질 것은 물론이다。또 이 숫자를 그대로 표준하여 보더라도 一九四九년의 면포 생산량은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三五%에 불과하며 一九四三년에 비하여는 질로 二四%에 불과한 것이다。

一九四三년에 비하여 二四% 밖에 아니 되는 생산을 가지고 면포 생산이 「굉장」히 「발전」되였다고 떠들 수 없으며 이것으로써 전체 남반부 산업의 파멸을 부정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남반부의 최대의 공업인 면포 생산이 해방 전에 비하여 二四% 밖에 아니 된다는 것은 남반부 산업이 총체적으로 파멸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엄연한 사실은 될찌언정 결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실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또 이것을 가지고 「발전」되였다고 떠드는 것은 이 이외의 다른 산업은 완전 파멸되였다는 것을 자체로 증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남반부의 면포 생산 수준이 참담하게 파멸된 一九四九년도의 수준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즉 一九四九년도의 생산 수준도 결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매국노들이 매달려 있는 一九五一년도 一억딸라의 소위 원조액 중에서 결정적으로 삭감된 것이 곧 면화와 면사인 까닭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의 동방 침략 정책은 일본을 공업 중심지로 재기시키고 남조선 등 기타 지역은 일본 공업 산품의 판매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것은 트루맨의 소위 「아세아를 단일체의 경제 쁠럭」으로 만들려는 반동적 침략적 계획 속에 예정되여 있으며 또 이것은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반동 분자들은 미 제국주의자의 방조 하에서 대량적으로 저들의 각종 상품을 남반부에 수출하려는 바 그 중 면포와 석탄이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국노들이 금년 봄에 벌써 일본으로부터 二회에 걸쳐 면포 二十만필을 구입하여 들인 사실에서도 넉넉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앞으로 면화와 면사를 남반부에 수입하는 것을 더욱 삭감시키고 남반부를 일본산 면포의 판매 시장화하는 정책을 더욱 강행하게 될 것이며 이 결과는 남반부의 一九四九년 면포 생산 수준을 더욱 비참한 정도로 파괴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다음 석탄을 보면 역시 생산 숫자에 대한 기만적 날조가 폭로되고 있다. 석탄 생산에 대하여는 一九四八년에 벌써 그 생산 숫자가 두가지로 발표되여 있다. 그 중 많은 것은 一九四八년도 생산을 과장하려 할 때에 들고 나오고, 적은 것은 一九四九년도 석탄 생산이 「굉장」히 「발전」된 듯이 떠들 때에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一九四八년도의 석탄 생산에 대하여 「상공부」에서는 七十八만톤으로 발표하였고 다른 공식 발표에는 九十四만톤으로 되여 있다. 물론 이 량자가 다 과장적으로 날조된 것으로서 실제 생산은 七十八만톤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들이 발표한 一九四九년도 석탄 생산액의 숫자는 역시 새빨간 허위일 것은 의심할 것조차 없는 것이다. 이것은 놈들이 석탄 생산이 증가되였다고 떠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반부 수요량의 절반도 못된다는 자백에서도 명백한 것이다.

금, 은, 동, 철, 연, 아연 등 중요 광물의 전멸 상태와 아울러 석탄 생산의 이러한 정형은 역시 남반부 산업의 파멸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또 석탄 생산 수준도 역시 면포 생산과 마찬가지로 그 전망은 비관적인 것이다. 일본산 석탄을 남반부에

강제 판매시키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가 남반부 백미를 일본으로 수출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되여 있다. 남반부 백미를 절대 필요(一년에 적어도 二十만론의 백미를 일본 군국주의자는 요구한다)로 하는 일본 군국주의를 위하여 일본산 석탄 일정량에 대한 남반부 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은 남반부의 一九四九년도 석탄 생산 수준도 결코 유지시키지 아니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다음 고무 공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선 번즈를 위시한 일련의 인물들이 고무 공업을 자전거 타이야, 자전거 츄부, 자동차 타이야, 자동차 츄부, 총고무화, 운동화, 지하족 등등의 각종 각색의 종목으로 세분하여 떠들고 있다. 이것은 고무 공업이 무슨 중요한 산업이나 되는 것같은 인상을 주려는 데 그 교활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각종 각색의 종목의 생산이 증가되였다고 떠들어댐으로써 인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고무신짝이나 만들고 자전거 타이야나 만드는 공업이 중요한 산업 부문이며 가령 이것이 증가되였다고 하여 참말 남반부의 산업이 발전되거니 하고 생각할 자 있겠는가?

다른 중요 공업들이 모두 파멸되고 보니 내놓을 것이라고는 고무신짝 만드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금속 공업과 기계 공업의 전멸을 위시하여 전산업이 파멸 또는 격감되는 형편 하에서 이 고무 공업의 약간의 증가가 산업 파멸을 부정할 아무러한 사실도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다.

또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중요한 공업이 모두 파멸되는데 고무신짝이나 만드는 것만이 돌각적(突角的)으로 증가되는 것은 남반부 산업의 락후성을 일층 증대시키고 편파성을 일층 격화시키며 산업이 수공업적 반 수공업적으로 세분화 령락화 하는 동시 미 제국주의자에 대한 식민지적 예속성을 일층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떠드는 것의 한가지는 중석과 흑연인 것이다.

이것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원료인 것이다. 특히 일본 군수 공업을 위하여는 남반부의 중석과 흑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산업과 광업은 일체 파멸시키면서 중석과 흑연만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여기에 미국인들의 제국주의 침략의 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미 제국주의자의 「원조」하에 있는 남반부 산업 경제의 현상태이다.

실로 一九四九년도의 남반부 산업 경제는 월가 상인들의 「대자대비」한 「원조」의 「혜택」에 의하여 기

간 공업인 금속 및 기계 공업의 전부를 위시하여 비료, 유지, 카바이드, 세멘트, 제지, 금, 은, 동, 철, 연, 아연 등이 여지없이 파멸되고 있으며 놈들이 떠든어대는 석탄 및 면포도 형언할 수 없이 파괴되어 있다.

다만 고무 공업과 중석 흑연이 약간의 증대를 보이고 있으나 고무 공업의 증가는 남반부 경제의 예속성과 원료 시장화 및 식민지적 락후성 편파성을 촉진하며 그를 증명하는 데 불과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반부 침략 정책은 남반부 산업을 완전 파멸시킴으로써 남반부를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동시 일본 군국주의 재생에 봉사하는 원료와 식량 공급 지대 및 군사 기지로 만드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경제 원조의 미명 하에서 부한대의 내정 간섭을 실시하고 전경제를 완전히 저들의 리익에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실로 파렴치적으로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완전히 남반부의 주인이며 만능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만능의 주인공들이 남반부 경제를 지배하기 위하여 그 사이 어떻게 경제적 독점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一九四八년 十二월 소위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한 후 一九四九년도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한미 합자의 형식(괴뢰들의 투자분도 미 제국주의자가 담당한 것)으로 벌써 「대한 전력 회사」, 「대한 석유 회사」, 「대한 석탄 회사」, 「광업 개발 회사」, 「광업 진흥 회사」, 「대한 해운 공사」 등을 조직하여 동력, 연료, 지하 자원 및 운수에 대한 전 권리를 장악하였다.

「경제 원조」 물자의 수입과 함께 남반부의 경제는 경중 대소를 물론하고 전부 이·씨·에이의 감독, 지휘, 간섭 하에 놓여가게 되였었다.

금년 一월 리승만 괴뢰들은 재정 경제 상태를 「개선」시킨다는 명목 하에서 재정 경제에 관한 전권리를 장악하는 소위 「한국 재정 경제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소위 「한국 재정 경제 협의회」는 식량, 외화의 가격, 예산 회계 통제, 은행 기업 보조금의 억제, 세금, 기부 통제, 귀속 재산 처리, 광업 시설의 리용, 농지 개량, 외국 위체, 물가급 배급 통제 등에 대한 대책 수립과 그 대책들을 실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 농업, 무역, 식량, 금융, 재정 등 일체 경제 문제의 대소 경중을 막론하고 그 어느 것 하나가 이 「협의회」의 간섭과 관리 하에 놓여가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협의회」는 八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여 있는바 그 중 로―퍼, 안더―슨, 기니, 맥, 허 등 미국인이 五명을 차지하여 아주 로골적이며 공공연하게 그 전 권리를 미국인들이 틀어 쥐고 있는 것이다.

지난 三월 소위 「한미 선박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부산 중공업(一만 二천톤급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설이 설비되여 있음)을 위시한 각지 조선소들을 점거하였다.

그리고 四월 二十八일 二천 五백만 불의 기금으로 소위 「풀부라이트」 재단을 창립하였는데 그 목적이 남반부 경제 독점에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반부 경제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각방면으로 이와 같이 강화하면서 다른 방면으로는 남반부 민족 경제의 파멸을 더욱 혹독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광분하고 있다.

당연히 인민의 소유로 되여야 할 귀속 재산에 대한 리승만 매국노들의 매도 시도(賣渡試圖)는 미 제국주의자의 산업 파괴 정책과 깊이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소위 「귀속 재산 처리법」에는 대공업과 기업체의 시설 및 가계의 분해 처리가 허용되여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매국노들은 공장, 기업소들을 폐쇄함에만 그치지 않고 아주 산산히 깨여 놓으며 완전히 해체하려는 것이다. 매국노들은 인민의 피와 땀으로 된 이 귀중한 민족 산업을 도둑질하여 팔아 먹을 뿐 아니라 아주 뿌리채 파괴하여 미 제국주의자의 산업 파괴 정책에 봉사하려는 것이다.

또 一九五〇년에 들어서면서 미 제국주의자의 소위 인플레이슌 억압 정책과 및 이·씨·에이 「원조」 물자 가격의 대폭 인상 정책은 잔존한 남반부 산업까지 파괴하려는 흉책의 일부분인 것도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四월 十三일부 「서울 신문」은 상기 정책을 론평하면서 「일반 산업계는 대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생산 부문에 있어서는 설사 좋은 시설과 충요 생산지를 갖추고 있다고 할찌라도 이에 따르는 자금 고갈로 인하여 생산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고 하였다. 동 신문은 四월 十五일 다시 「이러한 산업 부문의 정돈 상태는 전력 수요면을 엿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전의 서울의 동력 수요량은 二만키로로부터 二만 五천키로에 달하였는데 최근의 실정은…불과 一만으로부터 一만 五천키로 내외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층 이 상태는 악화 일로를 밟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다음 농업 통계에 대하여 말하면 그 기만과 날조가 산업 부문보다도 더욱 혹심하다. 그것은 소위 원조 물자의 절반이나 이 부문에 투하되므로 놈들은 농업 파멸의 현상태를 더욱 파렴치하게 은폐 외곡하는 허구 숫자를 날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놈들이 발표한 숫자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년도　남반부 총경지 면적　비률

一九四四년 二、二一八、〇〇〇정보 一〇〇·〇%
一九四六년 二、一九一、〇〇〇정보 九八·七%
一九四九년 二、〇七〇、五七四정보 九三·三%
(이상 괴뢰 정권 농림부 발표)

즉 해방 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에는 약 十五만 정보의 경지 면적, 즉 七%가 감소된 세음이다.

그러나 총 수확고에 있어서는 一九四〇—一九四四년의 년 평균 二四、四〇八、〇〇〇석에 비하여 一九四九년에는 一九、九七八、〇〇〇석, 즉 八五%로 감소되였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경지 면적과 수확고에 있어 놈들의 이 통계가 날조 허구인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거니와 이 통계만 가지고도 남반부의 농업이 얼마나 혹심하게 황폐화되고 있는가를 넉넉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경지 면적에 있어 十五만 정보가 감소되였다는 것은 사실 상 광장한 농업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十五만 정보의 경작지가 얼마나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북반부의 실례를 취하여 보면 안주 평야와 그 부근 수전 경작지를 합한, 즉 안주 대수리 관개 예정 면적을 가진 평야의 다섯배나 되는 바 이러한 것이 없어졌으며 남반부의 례를 취하여 보면 충북 한 도가 (충북 전경지 면적 一五九、〇〇〇정보 — 一九三九년 통계) 없어진 것이다.

또 수확고의 감소 방면에서 보면 일제 시대에 일본 놈들이 소위 산미 증식이라고 떠들면서 놈들의 식량 해결을 위하여 소위 농업 개량을 한다 하였지만 一九三〇—一九三六년간 남반부 년 평균 수확고에 비하여 一九四〇년—一九四四년 남반부의 년 평균 수확고는 불과 三·三%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

즉 一九三〇년으로부터 一九四四년까지 十五년 간에 겨우 三·三%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역도들의 유린 하에 있는 남반부에서는 불과 五년 간에 四、四七〇、〇〇〇석, 즉 一五%나 격감된 것이다. 봉건적 소유 관계하에서는 천재지변의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감률이 비교적 심할 수 없는 농업의 경지 면적과 생산고가 五년 간에 이렇게 감소된 것은 참으로 혹심한 농업의 황폐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놈들의 소위 비료 원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장 날조한 숫자인 것을 첨가하여 생각한다면 남반부 농업의 황폐화란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시기에 와서 남반부 농업의 더욱 황폐화에 대한 증거는 남반부의 농산물 가격이 작년 十一월부터 일층 급격하게 폭등한 데서 명확히 실증되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은 대개 추수기가 되면 다소간이라도 저락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그러나 一九四九년도에 있어서는 추수기가 제반 곡물 가격을 비약적으로 폭등시키는 시기로 되였었다. 그리하여 그 이후 일로 폭등

의 길을 달리여 금년 四월에는 백미 소두 一두에 二천七백원에까지 도달하고 소위 인플레 억압과 강제적 통화 수축 정책에 의한 전체 구매력의 저하로 말미암아 다른 물품들은 다소 저락의 경향을 보이는 시기에도 식량 가격만은 고등의 일로를 견지하였었다.

이것은 一九四九년도에 농촌 경리가 일층 황폐화하여 식량 수확고가 더욱 격감된 데 그 리유가 있는 것이다.

남반부 농업의 황폐화는 리승만 역도들의 가장 악독한 범죄의 하나인 광범한 농촌의 강제 집단화 정책 한가지만으로 보아도 아주 불가피의 사태인 것이다.

곡창 전남 평야를 위시하여 지리산 주변, 태백산 주변, 경북 동남부, 경남 동부 지대의 수백만의 농민들이 작년 봄 이래 주택과 전답과 가재를 박탈 당하고 도회지 부근으로 강제 이주되였었다. 이것은 놈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숫자에만 의하여도 一九四九년 十二월까지 十五만 五천여 호에 달한다.

태백산 주변 지대만 보아도 봉화, 안동, 영양, 청송 四개군에 있어서는 전군의 三분지 二가 강제 집단화되였으며 영덕은 四분지三, 의성은 二분지一, 영주는 五분지 三이 강제로 소개 혹은 초토화되였다.

그 중 영양군 수비면은 二十여개 부락 중에 남은 것은 四개 부락 뿐이며 석보면은 十八개 부락 중 八개 부락, 청기면은 二十개 부락에서 二개 부락, 일월면은 二十여개 부락 중 三개 부락뿐이다. 영덕군에 있어서는 영해면은 二十五개 부락 중에서 四개 부락, 창수면은 二十개 부락 중에서 三개 부락만이 남았다.

영주군 단산면은 十七개 부락에서 四개 부락, 부석면은 二十五개 부락에서 七개 부락만이 잔존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천추 만대의 원쑤 리승만 역도들의 이러한 포악 무비한 파괴 초토화의 흉행 하에 있는 남반부 농촌 경리가 어떻게 황폐화하고 파멸적 타격을 받지 아니하겠는가?

이와 같은 농촌의 파괴, 초토화, 강제 소개는 몇군 몇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수十개군, 수백개면, 수천개의 부락의 광범한 지역에 뻗히고 있는 것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원조 물자라 하여 비료 가져오는 것을 아주 큰 자랑처럼 떠들며 이것으로 식량이 자급 자족된 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시기가 맞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합성 비료로서 질이 나쁜데다가 고가인 것이다. 미국놈들의 비료는 남반부 농민들의 량곡을 대량 수탈하는 한개의 매개물로서 농민을 더욱 못살게 하고 농업 생산을 오히려 조해하는 것이다.

놈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방해

반대하고 분할 식민지화를 남조 고정화하기 위한 五·三十 망국 단독 선거와 관련하여 기만적 「농지 개혁」 실시를 획책하고 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써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청산하는 토지 혁명만이 농업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북반부의 현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남반부 농민들도 해방후 五년 간을 통하여 시종 일관 이러한 토지 혁명을 요구하였고 벌써 작년부터 남반부 여러곳에서 이러한 토지 혁명을 농민 자신의 손으로 용감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리승만 역도들은 결코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지 아니한다。 토지 혁명은 다만 농민 자신의 힘으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진리를 남반부 농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적 경험에서 완전히 체득하고 있다。 남반부 농민들의 토지를 위한 투쟁은 더욱 치열화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영용한 진출에 전률하는 역도들은 五·三十 망국 단선과 관련하여 농민을 일층 교묘하게 기만하기 위한 흉책으로 기만적 농지 개혁을 들고 나왔다。

소위 「농지 개혁법」에 의하면 남반부 농민들이 금번 하곡부터 평년 수확량의 三분지 一을 토지 대금으로서 지주에게 납부하고 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소위 공과금, 강제 기부금 등을 부담하게 되고 구채 및 신채를 부담하며, 더욱 혹심한 강제 공출을 부담하며, 미 제국주의자의 강탈적 고액의 비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되게 되였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 三분지 一을 五년간 납부하는 지가(地價)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은 一九四九년 十二월 一일 「서울 신문」 주최 좌담회 석상에서 소위 국회 의원 황두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토지 대금이 一단보에 三만 二천 二백 五十원이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 시가로 매매되는 가격이 많이 받아야 二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十五할로 하면 三만 二천 二백 五十원이 되니까 가격으로 말한다면 거의 二배가 됩니다」(「서울 신문」 一九四九·十一·七)。 또 괴뢰 정부 「농지 국장」 강진국의 발표에 의하면 「땅값을 시가로 자유로 매매하더라도 평당 五十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一백여원이란 값으로 정부가 알선해 가지고 고가로 팔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역도들의 소위 농지 개혁이 얼마나 농민을 강탈하고 지주의 리익을 보장하는 것인가를 알수 있는 것이다。

또 금년부터 부담하여야 될 세금 기타 공과금은 얼

마나 되는가?

소위 농지 국장 강진국의 말에 의하면 「현재 자작농이 부담하는 부담력을 보면 현 수입의 二——三할을 자작농이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소작인이 실지 부담하는 몫을 생각할 때에는 상환률(토지 대금) 三할과 공과금 기타 부담이 약 三할이 될 터이니까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년수입의 六할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소위 농지 개혁……필자) 농업 경제를 자립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농업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단언합니다」(「서울 신문」 一九四九·十一·七)。

물론 이상의 계산은 一九五〇년도 예산에서 세금을 파천황적으로 인상시키기 전의 계산이다。 매국노들은 금년도부터 세금을 일약 六배로 인상시키였다。 농민들의 토지와 관련된 세금과 기타 공과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러고 보니 농민들이 소위 농지 개혁에 의하여 전수확고의 六할보다 훨씬 많은 량을 토지 대금과 세금 및 공과금에 빼앗기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원쑤들의 소위 농지 개혁은 농민들을 더욱 극심하게 파산, 몰락시키는 수단으로서 농민들을 토지의 주인으로 되게 할 대신에 정든 고향에서 추방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 대중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혁명에 대한 지향과 투쟁을 학살, 테로로써, 억압 말살하고 강도적 기만적 방법으로 창제 실시되는 소위 농지 개혁의 결과는 남반부 농업 경제를 더욱 급속하게 황폐화하며 농민들을 더욱 참혹한 기아와 빈궁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 * *

산업 경제의 전면적 파멸 예속화와 농민 경제의 심각한 황폐화의 정세 하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이 참을 수 없이 비참한 도탄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이것은 우선 거대한 실업자의 숫자에서 볼 수 있다。 놈들이 저들의 추악한 상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에 축소를 다하여 발표한 숫자에 의하여도 현재 남반부에서 산업 파멸의 결과 직장에서 축출된 실업자 수는 다음과 같다。

공업 실업자 八七、一七九명
광업 실업자 四七、〇二六명
운수 실업자 二九、五二四명
계 一六三、七二六명

산업이 극도로 타락된 남반부에 있어 직장으로부터 축출된 실업자가 十六만이 넘는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숫자이다。

놈들은 정확한 실업자의 통계를 발표하기를 가장 두려워 한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적 통치의

결과를 가장 명백히 증명하는 자료의 하나가 되는 까닭이다. 놈들은 一九四九년 五월 현재로 저들이 조사한 실업자의 수가 八八九、一三九인이라고도 발표하고 또 추측이라 하여 一백 五十만 이상의 실업자가 있다고도 한다(괴뢰 정부 로동부 집계).

물론 이것은 허위이다. 그놈들은 一九四九년 五월 현재 八八九、一三九명 중 경기도의 실업자를 五八、五一○인이라고 하고 경기도 실업자 중에 농업 실업자가 二○、八一八인이라 하였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농업실업자를 제외하고는 三만 七十여인의 실업자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농업 실업자의 종류에 들지 않는 인천의 실업자만 하여도 三만여명이라고 금년 二월 十一일 「련합 신문」은 보도하였다. 여게서는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 있어 농업 실업자 이외의 실업자는 단 七천명 밖에 아니 된다는 것으로 된다. 누가 보든지 이것이 허위이며 축소한 날조 숫자인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 놈들에게 강제로 끌리여 자기의 고향에서 쫓기여난 수백만의 소개인들도 대부분이 실업자인 것이다. 이 강제 소개인들을 포함하면 현재 남반부의 실업자는 무려 四——五백만에 달할 것은 쟁론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남반부 전주민 一천 五백만의 거의 三분지 一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 실업자들은 하루에 한끼의 죽도 먹지 못하고 비절 참절한 도탄 속에서 죽엄의 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취업 로동자들과 일반 사무원들의 생활 형편도 비참하기 짝이 없다.

남반부 반동 신문에 의하면 현재 三인 가족의 최저한도의 생활비는 백미 소두 五두 대금을 위시하여 적어도 三만 三천원은 가져야 연명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남반부 로동자의 월 수입은 불과 七천원 내외라고 한다. 이것은 최소한도 三인 가족을 연명시키기 위한 절대 필요 생활비에 비하여도 그 수입이 약 五분지 一밖에 아니 되는 것이다. 즉 一개월 수입으로 三인 가족의 생활을 六——七일 밖에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一개월 간에 六——七일 밖에 살 수 없는 수입을 가지고 三十일간 연명하게 되니 남반부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상태가 그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물론 위에 지적한 생활비 속에는 소위 공채 목표 등의 명목으로 강제 수탈하는 것과 각종 세금、공과금、기부금、병들 때의 약값、자재 교육비 기타 추호만한 문화 생활비는 일체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며 또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사회 보험제에 의한 국가적 혜택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에 대한 배급 물자 같은 것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남반부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생활이 개나 돼지의 생활보다 무엇이 나을 것이 있으며 죽지 못하여 사는 형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농민 대중의 생활 형편에 대하여 말한다면 역시 눈물이 없이는 말할 수 없다.

一년 동안 지은 수확물의 五——六할을 지주의 소작료로 납부하고 그 남은 것은 놈들의 총검에 의한 강제 공출에 빼앗기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一九四九년도에 들어서서는 수많은 곳에서 수확물의 전량을 우선 자기 집으로 가져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전부 경찰이나 「국방군」들의 지정한 장소에 가져가게 되였었다. 그리하여 다수 농민들은 소작료와 공출량을 제외하고 보니 추수하던 그때부터 벌써 절량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참경에 빠지게 되였다.

이것은 소위 국회 의원 황두연 등 二十여명의 련서에 의하여 매국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여 옥신 각신하게 되였는데 황두연 등은 「식량이 결핍한 농가에 영농 량식을 환원(還元)하여 줄 것」 등 七개 항목을 들어 론쟁하였던 것이다.

이제 남반부 농민들의 생활 상태를 알기 위하여 반동 분자 자신들이 발표한 몇가지의 실례를 들기로 하자!

금년 四월 二十일 「한성 일보」에 의하면 전북 완주군 봉진면 아중리에 사는 김희동(물론 반동 분자임——필자)은 자기 동리는 六十호요、만경 옥야(萬頃沃野)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끼 죽도 먹지 못하는 농가가 七○%라고 하였으며 남강원도 녕월군 덕천면 덕천리에 사는 박명하(역시 반동 분자임——필자)는 자기 동리에는 주민의 四할이 완전 절량되였다고 말하였다. 또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창리에 사는 황명현(역시 반동 분자임——필자)은 자기 동리에는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자가 三○%이며 죽만으로 연명하는 자가 四○%라고 하였다.

이것이 남반부 농민들의 일반적인 생활 상태인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는 고리 대금의 마수에 의하여 더욱 혹심하게 되고 있다. 남반부 농민들에 대한 고리 대금의 혹독한 착취는 실로 농민의 피속의 기름까지 짜내고 있는 것이다.

전기 보령군 황명현의 말에 의하면 자기 동리의 고리 대금의 리자률은 놀랠지 말라! 최저 二○%로부터 보통 五○%라고 한다. 이러한 흡혈귀적 고리 대금에 의한 부채액은 一九四九년에 이르러서는 남반부 전농가에 대하여 일인당 평균 一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태양신문」 금년 三월 二十三일 보도에 의하면 경남 금해읍 전하리 길구에는 一三五호가 있는데 전부채액이 五백만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남반부 농가들 중에는 극빈 농가들이 더욱 다액의 부채를 걸머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그들은 이 평균 부채액인 一만원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걸머지고 있는 것이다.

놈들에게 강제 소개되여 소위 집단화된 부락에는 두

한방 초옥 속이면 평균 재 가족이 수용되여 있는데 한 방에 두집 가족의 로소 남녀가 울분과 원한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남반부의 기름진 땅 위에 이러한 비결 참절한 죽엄의 광환을 가져 오게 하였는가? 누가 농민들을 이러한 처참한 도탄 속에 몰아 넣었는가? 매국 역적 리승만은 반드시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물가는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각종 부역 로무들에 굶주린 전체 인민들을 채쭉으로써 그칠 사이 없이 몰아내고 있다. 전체 인민들은 누구다 할 것 없이 죽엄의 간두에서 닥쳐오는 다음 순간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과 공포와 불안으로써 전률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 참화, 기아, 파산, 암흑이 남반부 인민들의 전 생활이며 이것들은 시시 각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위에 피에 주린 인민 도살자들의 야수적 테로 학살의 파시스트적 만행을 첨부하여 생각한다면 남반부 인민들의 두 뺨 위에 어찌 분노와 저주의 눈물이 마를 사이가 있겠는가?

번째 二十만에 달하는 애국적 인민들이 흡혈귀 리승만의 손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의 탐욕적 침략과 그 주구 매국노들을 타도하기 위한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남반부의 귀중한 민족 경제를 통채로 파멸시키고 예속화하는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의 남반부 지배는 결코 머지 않아 박멸될 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 수상의 영명하신 령도 하에서 전체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 완성을 위하여 더욱 굳은 단결로써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의 웅대한 민주 건설과 남반부 인민들의 영웅한 투쟁은 원쑤들을 절망의 공포 속에서 전률케 하고 있다.

남반부의 인민들을 도살 학살하고 남반부 경제를 통채로 팔아먹고 남반부 인민들을 참담한 도탄 속에 몰아넣고 흉악한 내란 도발에 광분하는 매국 역도들의 운명은 최후 순간에 다달았다.

생산 직장 내에서의 당 정치 선동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당 중앙 본부 선전 선동부 부부장 차 도 순

오늘 우리 당 각급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은 조국의 군사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급속한 실현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조직에 대한 당 단체들의 구체적 지도 사업과 병행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의 앙양된 애국적 증산 의욕을 보다 높이 고무 추동하며 그들의 치열한 증산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근로자들의 실생활과 또는 그들의 생산 행정과 일상적으로 밀접히 결부된 정치 선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일찌기 쓰딸린 대원수는 「당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항상 또 어데서나 선동이다」 라고 당 정치 선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당 정치 선동 사업을 당 단체들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의 개선 강화에 많은 당적 주목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중 정치 선동 사업은 당과 정부의 제정책을 일층 인민 대중에게 광범하게 해석하여 주며 최근 사변과 정세들을 실지 자료에 의하여 가장 편이하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증산 투쟁을 고무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 직장 내 부분적 당 단체들은 아직 직장 내 정치 선동 사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차요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강서군당 상무 위원회는 三월에 강선 제강소 내의 당 단체들의 군중 정치 선동 사업을 토의함에 있어서 이를 아주 무관심하게 토의하였으며 남포시 당 단체는 작년 一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당 회의에서 一차도 취급하지 않

않다。

당 지도 기관들에서 생산 직장 내의 당 정치 선동 사업을 이와 같이 등한히 하는 결과는 오늘 적지 않은 생산 직장들에서 당 정치 선동 사업이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게 하였다。 남포 견직 공장 초급 당 단체들은 목관 제품 부문에서 매일 三〇%의 불량품이 산출되여 견직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당적 대책을 취하여 그의 원인을 정치적으로 탐구 분석하여 선진 로동자들의 창의적 의견들을 광범히 접수하여 군중화함으로써 이를 정치적으로 보장할 데 대하여서는 전혀 무관심하였다。

부분적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이 당 정치 선동 사업을 광범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속에서 체계있게 그들의 실지 생활과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켜 조직하지 못하고 다수 경우에 일반적 문제들을 호소하는 데 그치는 사실들이 있다。

일찌기 쓰딸린 대원수는 선동원들 앞에서 「근로자들의 실지 생활과 생산과 또는 구체적 당면 과업들로부터 리탈된 정치 선동은 그들의 창조적 로력적 적극성의 앙양을 조성할 수 없으며 또한 생산 계획의 수행과 초과 완수에로 동원할 수 없다」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나 오늘 일부 직장 내 당 단체들에서는 정치 선동을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킬 데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 정치 선동이 생산과 유리되여 진행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일부 당 단체들은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로 하여금 생산 행정에서의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당 선동 사업을 미약하게 전개하고 있다。

일부 당 단체들은 생산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생산 정지 및 기계 사고, 화재 사전 등에 대하여 예리한 당적 및 정치적 주의를 돌리며 이를 분석하고 그의 원인을 구명하며 폭로하는 선동 해석 사업들을 조직 진행할 대신에 객관적 조건들과 타협하고 「기계가 로쇠되여…」, 「부속품의 장비 대채가 못되여…」 또는 「로동자들이 작업과 기계 운영에 숙련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만 간주하고 있었다。

부분적 공장 기업소 내 당 단체들이 당 선동의 중요한 무기로 되는 직관물 선동 사업을 사상성과 선동성이 없이 조직하며 당면한 생산 문제와 유리되고 있거나 또는 직장 내의 단순한 미화 공작으로 밖에 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생산 직장 내 벽보판, 각종 게시판, 증산 도표판들은 선동 사업에 충분히 리용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 직장 내에서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결점을 내포하고 있는 직장들에서는 인민 경제 계획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오늘 생산 직장 내 당 정치 선동 사업이 이상의 지적한 바와 같이 모두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의 창의적 열성과 노력으로써 당 정치 선동 사업이 생산과 또는 광범한 근로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는 우수한 실례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실례로 룡문 탄광 내 당 정치 선동 사업은 금년 一·四분기 까지 극히 형식적이였고 락후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국가 경제 계획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탄광 당부는 당 정치 선동 사업이 락후하게 된 중요 고리가 오늘까지 당 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며 선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을 등한히 한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장에서 당 선동 사업을 여하히 조직 진행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법적 문제를 가지고 선동원들을 위한 집단적 쎄미나르와 개별적 담화식 지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수준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각개 부리가다에 배치된 선동원들의 역할이 급속도로 제고되였으며 정치 선동 사업은 급속히 강화되였다。

一 오늘 룡문 탄광 내 당 선동원들은 매일 작업 전 三十분 정도로써 대기 시간을 리용하여 간단한 직장 내 새 소식과 시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며, 그날 작업이 끝나면 二十—三十분 동안 작업 과정에서 나타난 우결점을 총화하여 주었다。 특히 매개 로동자들의 생산 실적과 그들의 수입을 매일 알려 주면서 그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또한 락후한 로동자들을 선진 로동자들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기 위하여 선진 로동자들의 생산 경험을 소개하며, 생산 실적이 낮은 로동자들의 작업에서 락후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소한 웃점이라도 보이면 이를 좋게 평가하여 주었다。 동시에 각항 입구마다 증산 경쟁 게시판을 설치하고 매일 출가률과 생산 실적을 갱구별, 개인별, 부리가다별로 게시하여 주었다。

이에 대한 성과는 곧 생산에서 표현되였다。

一、출탄에 있어서—四월 三일 현재 일간 생산 계획의 七六% 밖에 달성 못하였다면 四월 十五일부터는 일간 생산 계획을 넘쳐 실행하게 되였으며 四월 二十一일에 와서는 一一〇·三%로 초과 달성하고 있다。

二、굴진에 있어서도—四월 三일 현재 일간 계획을 六一% 밖에 달성 못했다면 四월 十일부터는 一〇〇%로 완수하게 되였으며 四월 二十一일에 와서는 一一三%로 초과 실행하였다。

三、출가률에 있어서도—과거 취득갱과 봉천갱의 출가률이 평균 六六·六%였다면 四월 十九일부터는 무단 결근자가 없게 되였다。

평양 특수 고무 공장 내 선동원 조희선 동무는 작업 전후 시간과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국내외 정세들은 상세히 로동자들에게 제때에 알려 주는 동시에 국가 법령과 정부의 결정들을 해석 침투시키였다。 그리고 그는 공장과 부리가다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생산

문제들을 제때에 자기 부리가다원들에게 제기하여 해결하는 한편 선진 로동자들과 타직장들의 우수한 경험들을 널리 소개 보급시킴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 례로서 며칠전 로동신문 제三면에서 평양 화학 공장 고영숙 동무의 원단위저하 운동 호소를 부리가다 내 전체 로동자들에게 세세히 알려준 후 그는 곧 자기 부리가다에서도 원가 저하 및 물자 절약 운동을 광범히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재 「실절약과 「기계 애호」「기름치기」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희선 선동원은 자기의 선동 사업을 공장 내 실정과 또는 생산과 밀접히 련결시키여 일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증산 의욕을 높은 수준으로 고취시켜 주고 있다。 조희선 동무의 이와 같은 모범적인 선동 사업은 앙상 자기 부리가다에서 생산 실적을 一三○%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모범 부리가다의 칭호를 계속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 직장 내에서의 정치 선동 사업의 강화는 당면한 국가 경제 계획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보장함에 실로 거대한 성과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 * *

생산 직장 내에서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며、그들의 계급성을 강화하며、생활과 밀접히 련결된 선동 사업을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은 일부 당 단체들이 당 사업을 행정화하고 당 정치 선동 사업을 등한시하는 옳지。못한 경향들과의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체계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 단체들은 자기의 정치적、지도적 역할을 더욱 높여 관리층을 정치적으로 지도 방조할 것이다。 또한 유능한 당 지도 간부들을 생산 직장들에 파견하여 광범한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 속에서 정치、강연、해설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을 고상한 애국적 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공화국 정부의 제반 시책들을 철저히 인식시켜 조국 건설에서 로동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깨닫게 하며 자기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경제 건설에서 더욱더 영웅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경제 건설 사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과 군중과의 련결을 강화하고 또는 전체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을 증산에로 고무 추동시키기 위하여 직맹、민청、녀맹 단체들을 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켜야 할 것이다。

생산 직장 내에서의 당 선동 사업을 당면한 정치 경제적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문제는 당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된다。 그것은 국가 경제 건설에 있어서의 모든 성공은 당 단체들의 정치 선동 사업의 진행과 밀접한 련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十二월 정기 회의에서는 정치 선동 사업이 생산과 밀접히 련결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결함을 급속히 시정하고 생산 직장 내에서의 정치 선동 사업을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당면한 구체적 경제 건설 사업과 밀접히 련결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직장에 있어서는 기회있는 대로 인민 경제 건설의 거대한 의의와 매개 로동자들의 구체적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을 옳게 결부하여 침투시키며 불량품 생산、무고 결근、류동 분자 및 건달군들을 반대하는 절박한 문제들을 제때에 대중 속에 반영 비판케 하는 사업들을 강화하고 출판물 및 직관적 선동 사업들을 다채롭게 조직하여 직장과 작업 장소 및 로동자들의 집합 장소인 공장 출입구、구락부、민주 선전실 등에 게시하여 우수한 선진적 모범 일군들과 공장 전체 로동자들의 증산 경쟁 맹세에 관한 부리가다 직장 및 전체 공장 사업들을 직관적으로 소개하며 또한 생산 작업을 와해시키려는 일체의 락후한 현상들을 군중들로 하여금 제때에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허가이)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의 정치적 경각성을 일층 제고하기 위한 문제는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가장 절박한 과제 중 하나이다。 오늘 국제 국내의 민주와 반민주와의 투쟁이 더욱 첨예화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쑤들의 도전적 방법은 각종 각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제국주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수 밑에 리승만 역도들은 반 인민적 학살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들의 숙망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정치적 기반을 잃어버린 계급적 패잔 분자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민주 건설을 파괴하려고 교활하게도 파괴 분자、탐정 분자들의 과견 잠입을 시도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갖은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고 있다。

김일성 동지는 산업 부문 경제 일군 및 직맹 열성자 회의 총결 연설에서 「우리 나라에는 인민적 국가에 대하여 적대적 경향을 가진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업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남조선 반동파에 의거하여 적대 분자들은 싸보따쥬 및 파괴 등 갖은 수단을 다하여 산업 발전과 인민 국가의 공고화를 방해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성을 가일층 높이여 적이 어떠지

가장한다 할찌라도 그를 적발할 줄 알며 또 인민정권을 통하여 적을 근절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적 국가의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을 인민들에게 꾸준히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각급 당 단체들은 일부 산업 일꾼들의 기계 사고는 기계가 로쇠되고、부속품의 장비 대체가 못되고、또는 종업원들이 작업과 기계 운영에 숙련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간주하는 옳지 못한 경향들과의 견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항상 직장과 작업반、아그레카드 및 로동자들이 작업하는 구체적 정형을 료해하고 기계 및 작업장에서 로동자들과의 일상적 련계를 강화하여 적의 잠입、암해적 행동들에 대하여 예리한 당적 주목을 돌리여 그를 제때에 적발 폭로하는 정치 선동 사업을 기동성있게 조직 진행하여 전체 종업원들로 하여금 항상 적들의 기도에 대하여 예리한 눈초리를 돌리도록 할 것이다。

생산 직장 내에서 부리가다 내 선동원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는 문제는 그것이 곧 당 정치 선동 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굳은 련결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부리가다 내에 배치된 선동원들이 당 정치 선동망의 기본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각공장 기업소 내 부리가다 및 작업반 단위로 배치하는 선동원들을 적임자로 옳게 선정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선동원을 선발 배치함에 있어서는 우선 매개 부리가다 내에서 로동 년한이 오래고 작업에 정통하며、정치적 문화적 수준과 선동사업에 대한 기능 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국가적 립장과 계급적 립장을 튼튼히 보지할 수 있는 로동자로써 선발 배치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이와 같이 선발 배치된 선동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당적 지도를 주어야 한다。작업별 교대별과 출퇴근시를 참작하여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 정상적인 쎄미나르를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쎄미나르에서는 간단한 시사 문제와 방법적 문제를 주로 취급하되 시사 문제에 있어서는 미제를 선두로 한 반동들의 몰락상과 강유력한 민주 세력의 급격한 장성 등을 대비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 주어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은 정당한 길임으로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편에 있다는 확신성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방법상 문제에 있어서는 매개 직장들의 생산 조건과 환경에 기초하여 그에 적응한 선동 사업을 실시하도록 항상 념두에 두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선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 방조는 선동원들을 위한 쎄미나르가 그의 전부는 아니다。당은 항상 직맹 단체와 기타 사회 단체 내 당 지도 일군들을 추동하여 수

시로 그들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도 · 방조할 것이며 수시로 당 회의에서 선동원들의 사업을 청취 토의하여 제세한 과업들을 일상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동원들은 자기가 속한 학습망 체계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자체의 사상 정치 수준을 제고함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각종 신문、잡지、선동원 수첩 등 광범한 출판물을 통해서 발표되는 국가 법령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반 결정들을 깊이 연구하는 작풍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개 부리가다 및 작업반 단위로 배치된 선동원들은 자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매개 선동원들은 자기 작업장의 구체적 조건들과 환경을 고려한 기초 위에서 월별、일별로 되는 구체적 계획들을 작성하는 문제이다。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반드시 산만성과 혼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오를 범하게 되는 근본인 것이다。그러므로 매개 선동원들은 일정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전후의 적당한 시간을 리용하여 민주 선전실、휴계실、작업 장소 등에서 자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심 시간 등에는 시간을 옳게 조절하여 공동적으로 라디오 청취、독보회、담화、독서、오락회 등을 조직하여 줌으로써 자기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또한 생산 직장 내에 배치된 선동원들이 자기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보장하려면 그는 항상 군중과의 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매개 선동원들은 군중 속에서 배우며 군중을 가르치는 원칙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매개 선동원들은 군중 속에서 항상 그들의 선구자가 되여 그들의 요구에 민첩하게 수응하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직장에 진출해 온 신입 로동자들을 교양 훈련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지난 생활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그들에 알맞는 방식으로 교양주어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그들이 직장 내부 질서를 옳게 파악하여 직장에 애착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조국 건설에서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옳게 인식하고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산업 용사가 되도록 적극 방조를 줄 것이다。

군중 정치 선동 사업의 주요한 무기로 되는 직관물 사업을 개선 강화함은 생산 직장 내 당 정치 선동을 더욱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된다。직관물은 간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사업 비판의 무기로 되며 선진분자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들의 우수한 경험을 교환하며 널리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증산 투지를 더욱 고무 추동시키는 교재이다。한편 락후한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을 고무하는 지도적 역할을 놀며 또한 수사로

제기되는 직장 내의 사정과 국내의 소식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중요한 보도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일부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이 직관물 사업을 전임 미술원을 두고 그림을 그려 붙이여 직장 내 미화 공작 대산으로 리용하려는 옳지 못한 경향을 시정하고 대개 직장들의 구체적 경제 건설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층 조직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직장 내 벽보판, 각종 게시판, 각종 생산 실적 도표판, 속보판, 만화 공작 등을 통하여 항상 시기와 생산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옳게 포착한 기초 위에서 자기 직장과 타 직장의 선진 로동자 또는 부리가다들의 생산 성과들을 높이 찬양하며, 그의 경험들을 널리 소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반면에 태공적 현상들을 군중적으로 비판하여 로동자들의 증산 의욕을 일층 고무 추동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관물은 광범한 군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장소와 위치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며 알기 쉬워야 하며 아름다와야 한다. 각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이 직관물 사업을 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조직되여 있는 벽보 위원회와 미술 써클들을 일층 조직 강화하며 때때로 그들을 위한 세미나르 등을 조직하여 주는 등 그들의 역할을 일층 높일 데 대하여 특별한 당적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산 직장 내 선동 사업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중요 공장, 광산, 탄광, 직장들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장 신문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하도록 보장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공장 신문은 산업 건설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일층 제고하며, 증산 경쟁 운동에 있어서의 집단적 및 개인적 우수한 경험들을 널리 보급 침투시키며 로동자들에게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 선동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각급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은 공장 신문 발간을 위한 온갖 조건을 지여 줌에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당 선동 사업을 강화함에 심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생산 직장 내에서의 당 정치 선동 사업을 일층 조직 강화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긴절하게 요구되는 당면 과업이다. 각급 당 단체들에서는 이상의 지적된 문제들에 류의하여 생산 직장 내의 정치 선동 사업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

아·아라께란

一、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

소유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주요한 문제이다。소유의 본질을 구명한다는 것은 생산 수단이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생산의 결과를 누가 소유하느냐를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는 매 사회—경제 구성의 형태를 규정하는 동시에 사회—생산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매 생산 양식에는 그에 적합한 소유 형태가 필요한 것이다。소유의 형태는, 생산 수단이 누구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그것이 사회 성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으며, 그것이 전체 사회의 관할 하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계급을 착취하기 위하여 또는 그 다른 계급의 로력의 결과를 횡취하기 위하여 리용하는 일정한 계급에게 속하였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로력의 결과를 횡취한다는 것은 소유 관계에 결정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맑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가에게 있어서의 소유는 타인의 불불(不拂)로동 또는 그의 생산품을 횡취하는 권리이며, 로동자에게 있어서의 소유는 자기 자신의 생산품을 그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이다」(칼·맑쓰「자본론」제一권 로문판 四五九폐지 一九三五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뀐 결과 로력의 결과를 소유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은 로력의 생산품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분배 방식으로 변환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사회주의 제도에 있어서는「생산 관계의 기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이다。여기에서는 벌써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없다。「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생산품은 로력에 상응하여 분배된다。여기에서는 생산 행정에 있어서의 인간의 상호 관계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의 관계이며, 사회주의적 호상 원조의 관계로 된다」(이·브·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五五八폐지。로동당 출판사판 제三분책

一—三九二폐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초가 사적 소유이라면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인 것이다。생산 수단은 그것이 자본가들의 독점물로 되여 있는 때에, 로동력이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여 있는 때에, 생산 수단을 상실한 로동자가 노예적 처지에 빠지고 자본주의적 착취에 봉착하게 되는 때에 자본으로 되는 것이다。

쏘련에서는 생산 수단이 로동력으로부터 분리되여 있지 않으며, 로동 계급은 생산 수단의 공동적 주인으로 되여 있다。그러므로 쏘베트 경제에는 자본이란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이 범주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설정됨에 따라 철페되였다。

맑쓰는 자본의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의 분렬을 발견하였다。불변 자본이란 생산 수단으로 전화되였고 생산 행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변경하지 않는 부분의 자본을 의미한다。가변 자본이란 로동력으로 전화되고 생산 행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변경하며, 자본가들에 의하여 횡취 당하는 잉여 가치를 발생하는 부분의 자본을 말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분렬의 의의는 막대하다。이 분렬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사회적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며,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유와 로동력 간의 불상용적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잉여 가치의 근원, 즉 로동자의 잉여 로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변 자본은 자본주의 제도에서의 착취 조건으로 되여 있으며, 로동 계급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리용되고 있는 것이다。맑쓰와 엥겔쓰는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에 대치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산 로동이 축적된 로동을 증대시키는 수단일 따름이다。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축적된 로동이 로동자들의 생활 과정을 확장하며, 풍부케 하며, 안락케 하는 수단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칼·맑쓰 와 프·엥겔쓰「공산당 선언」국립 출판사 一九四八년 六九폐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불변 자본의 장성은 수다한 소생산자들의 파산, 실업자의 증대, 로동의 강화 또는 일반적으로 로동 계급의 물질 상형편의 악화 등과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수단의 확대와 로동의 기술적 보장은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하며, 생산과 수요의 전반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의 조건 하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지배하는 관계로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적대적 모순이 생산과

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산 로동이 대상화된 로동과 대립되여 있지 않으며, 량자 간에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대상화된 로동이 프로레타리아트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되여 있는 그러한 적대적 모순이 없는 것이다.

쏘련에는 가변(可變) 자본이 없으며, 로동력은 상품으로 되여 있지 않다.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 근로자들과 더불어 생산 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자이다. 사회적 소유가 존재하는 까닭에 사회주의의 경제에는 착취 관계가 없는 것이다. 로동자들은 착취자 자본가들을 위하여 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사회, 자기의 국가, 전체 근로자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쏘련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의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여 있기 때문에 불변 자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폰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불변 자본과 생산 폰드 간의 원칙적 차이는 또한 량자의 상호 특별한 물질적 및 가치적 구성과 량자의 상이한 행정을 조건 지여준다.

자본의 발생과 사회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발생하였다. 자본주의적 소유는 자연 발생적으로 봉건 사회의 태내에서 초기 자본주의적 축적의 과정을 토대로 하여 발생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농민 대중의 토지를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식민지적 약탈과 전쟁 배상의 방법으로, 근로 대중을 혹독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혁명 투쟁의 결과, 부르죠아 사회 제도를 철폐하고 로동 계급의 독재를 수립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시초는 로동 계급을 혹독하게 압박, 착취한 결과 부요하여진 부르죠아의 소유를 페절하는 그것이였다. 맑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점차적으로 부르죠아에게서 전체 자본을 빼앗기 위하여, 전체 로동 도구를 국가의 수중, 즉 지배적 계급으로서의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하기 위하여, 가급적 신속히 생산력을 장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리용한다」—(칼·맑쓰, 프·엥겔쓰 전집 제五권 로문판 五〇一—五〇二페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창설하는 첫 법령은 一九一七년 十一월 八일 제二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서 채택된 토지 법령이였다. 전체 농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채택된 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영원히 페절되여, 전체 인민의 소유, 국가의 소유로 바뀌게 되였다. 토지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은 과거 지주, 부르죠아, 황족, 수도원, 교회 등의 수중에 있던 토지 一억 五천만 제샤찌나를 받게 되였였다.

다음의 법령은 대공업, 은행, 운수, 대외 무역 기타의 국유화 법령이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소유는 착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창설되였다. 이것은 생산 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이행, 즉 전체 인민의 소유에로의 이행의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회주의적 소유의 발생의 또 다른 방식이 있었다.

사회주의적 소유가 발생된 두번째 방법은 소상품 생산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길, 분산된 소상품 생산자들을 사회주의적 대규모 생산의 궤도에로 이행시키는 길이였다. 이것은 소규모적 경리를 대규모적 집단 경리에로 자원 련합하는 조합화의 길이며, 개인 소유로부터 소유의 사회적 형태에로 이행하는 길인 것이다. 이 과정은 꿀락크의 경제력을 파탄시키는 기초 위에서 그들을 계급으로서 숙청하는 것과 병행되였었다.

그 후 사회주의적 소유의 부문은 쏘베트 인민에 의하여 전례없는 대규모적 범위에서 수행된 신건설과 새로운 경비의 투자에 의하여 더욱 장성되였다.

二、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

사회주의적 소유의 발생에 있어서의 두개의 길은 력사적으로 사회적 소유의 두가지 형태를 예정하여 놓았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두가지 형태, 즉 국가적 혹은 전인민적 소유 형태와 협동 조합적—꼴호즈적 소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쏘련에서는 토지, 지하 자원, 산림, 강하, 국영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쏩호즈, 기계—뜨락또르 지정소, 국영 상점, 도시와 산업 지대에서 기본 주택 폰드 및 기타가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통하여 전체 쏘베트 인민에게 속하여 있다.

협동 조합적—꼴호즈적 형태의 소유에는 꼴호즈와 협동 조합 단체들에 있어서 전체 공유 기업소들이 그의 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편입되는 것이며, 공동 건물 및 꼴호즈나 협동 조합 단체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산품들이 또한 편입되는 것이다.

두 형태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있어서 동일한 특징을 가진 공통한 면이 있는 동시에 량자 간에는 또한 차이되는 점도 있는 것이다. 이 두 형태의 소유가 내포한 반공통성과 통일은 무엇에 있는가? 왜 이 두 소유의 형태는 동종류의 소유 형태인가?

소유의 국영 및 협동 조합 형태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징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一、이 두 형태는 모두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다. 생산시 사회적 성격에 사회적 소유는 합치한다. 생산의 두개의 주요 요인인 로동력과 생산 수단이 로동 도구와 로동 대상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초 위에서 서—

련결된 것이다。

二、둘째 특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친목한 협조와 생산 수단에 대한 그들의 동일한 관계이다。사회주의적 소유의 이 어느 형태에서든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三、국가의 소유이거나 끌호즈 소유이거나를 막론하고 각자는 기능에 의하여 로력하며、각자는 로력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다——라는 유일한 사회주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四、사회주의적 소유의 이 두 형태가 지배하는 분야에서는 경제 발전이 계획적 기초 위에서 공황、생산의 무질서、실업、기아 등등의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고질들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이상에 지적한 특성 가운데서 하나라도 다른 특성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의 공통성을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오직 그것들을 모두 합하여 하나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만 위에서 지적한 특성들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이 두 형태가 왜 동일한 형태로 된다는 데 대한 문제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소유의 이 두 형태의 동일성이 결코 그것들을 꼭같이 동일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사회적 소유의、이 두 형태 사이에 있는 차이는 소유의 국가적 전인민적 형태가 협동 조합적—끌호즈적 형태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라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이 기본적 차이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의 구체적 특성의 여러 경우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국가적 소유는 전체 인민에게 종속되여 전인민적 소유로 되지마는 협동 조합적—끌호즈적 형태의 소유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집단에 종속되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적 소유에는 모든 생산 수단이 다 공유화되였지마는 협동 조합적—끌호즈적 소유에서는 오직 기본적인 주요 생산 수단만이 공유화되였다。농촌 경리 끌호즈에서는 그 가축의 일부이나 또는 개인 경리에서 사용되는 농구 같은 것이 공유화되지 않았으며、그것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유로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오직 국영 기업소들만이 철저하게 전형적 사회주의적 기업소로 되는 것이다。

세째로 국영 기업소들에서는 모든 관리 기구의 체계가 유일 관리제의 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였다。각개 기업소마다 쏘베트 국가는 지배인을 지정 임명하는데 그는 국가의 신임자로 그 기업소에 제정된 계획적 과제의 실행을 위한 전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지배인에게 일정한 물질적 자원과 자금을 위임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이 자원 및 자금의 정확한 리용을 조직하며、기업소의 전체 생산 행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유일 관리제는 우선 사회주의적 국영 기업소에서 한 지도자가 개별적 분구、부리가다、전체 끌렉찌브의 사업을 조정하며、계획 집행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유일 관리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리에서의 대중의 열성적인 창발적 참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장하는 것이다。그것은 광범한 쏘베트 민주주의 원칙의 실시를 예기한다。여기에 있어서 우선 당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적하여야 된다。

각개 기업소마다 모든 공산당원들을 련합하여 생산 계획의 완수와 초과 완수를 위한 사업에 대중의 력량을 동원시키는 초급 당 단체가 존재한다。그리하여 초급 당 단체는 지배인에 대립하지 않고 행정 상 활동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다。직업 동맹과 기타 대중 단체들에 립각하여 당 단체는 그 생산 기업소의 정치 경제 생활에 대한 모든 근로자들의 참가를 보장하여 준다。

생산 관리에서의 대중적 참가의 기본 형태로 되는 것은 생산 협의회이다。생산 협의회에는 로동자、기사—기술자、사무원 및 그 기업소 당국 전체가 다 참가한다。이 회의에서는 각 개별적 분구들이 어떻게 일하여、어떻게 계획을 집행하며、어떤 결점들이 있으며、그 결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퇴치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토의된다。로동 생산성 제고와 증산 경쟁 조직 등의 문제들도 여기에서 역시 토의된다。이 회의에서 기업소 당국은 생산 형편에 대하여 보고하며、이 회의는 로동자들의 비판과 자기 비판의 연단으로 변화된다。

관리에 대한 대중적 참가의 다른 중요한 형태로 되는 것은 단체 계약 체결이다。로동자들은 자기의 직맹 위원회를 거쳐 기업소 당국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은 량방의 호상 서약으로 되는 것이다。이 량방의 계약 가운데는 당국 측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며、로동자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한다는 것이 지적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기업소에는 당국과 로동자들 사이에 적대성이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반대로 그들 간의 호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표현하는 쏘베트 민주주의가 표현되는 것 뿐이다。

단체 계약에서 기업소 당국은 생산을 완성하며、어려운 로동 행정을 기계화하며、주택—생활 조건을 개선하며、새로운 문화 기관、탁아소、종업원들의 치료 또는 로양 등등의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그리고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금후 생산 장성의 방법을 예정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 쌍방적 의무 부담과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은 관리 당국과 모든 종업원들 전체가 생산 관리 사업에 참가함을 표명하는 것이다。

끌호즈에서의 최고 관리 기관은 끌호즈원들의 총회이다。그것은 끌호즈 생활의 기본 문제들、농촌 끌호즈 규약에 맞추어 결정한다。총회와 총회의 사이에

총회에서 선거하며, 그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꼴호즈 경리부가 모든 지도를 실시한다。

네째로 국영 기업소와 협동 조합적—꼴호즈적 기업소들에서 로력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의 구체적 실시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영 기업소 로동자들의 로력에 대한 보수는 오직 화폐로만 실시된다。 여기에서 국가는 로동자들의 각종 등급에 대한 임금의 범위를 그들이 실행하는 로력의 기능 질—량 등에 맞추어 결정한다。

그러나 꼴호즈에서는 로력에 대한 보수의 체계가 二중으로 형성되였으니 그것은, 즉 현물과 화폐이다。 그리고 꼴호즈원들의 기본 수입은 로동일에 의하여 내여주는 현물이다。

로동일에 의하여 받은 현물적 보수와 보조 경리의 수입으로부터 받은 생산물은 꼴호즈원들의 개인적 처분 하에 돌어간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꼴호즈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직접 소비한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그들이 꼴호즈 시장 가격에 의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 가운데서 국가 소유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 소유의 발전의 목표가 쏘련 경제 발전을 전체적으로 예정한다。 전체 사회주의적 경제에 있어서 국가 소유의 주요 역할은 우선 공업과 건설에서, 쏘련 생산 기금 총량에서 그가 절대적 우세를 점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미 제二차 五개년 계획 말기에(一九三六년) 쏘련 전체 생산 기금 중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기금이 九八・七%를 차지하였다。 이 총액 가운데서 九〇%가 국가에 종속되고 기타 八・七%가 협동 조합적—꼴호즈적 기업소들에 종속되였다。

국가 소유의 주요 역할에 대하여 말하면서 쏘련에서는 토지가 전인민적 소유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농촌에서의 사회—경제적 행정에 대한 영향의 강력한 공간을 점유한 것이다。 이런 례로써 혼천련 조성은 꼴호즈들에 머지 않은 장래에 농촌 생산 발전에서의 비약적 발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협동 조합적—꼴호즈적 소유의 협정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공업의 역할이다。 특히 사회주의적 공업으로 인하여 꼴호즈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가 창조되였다。

꼴호즈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국영 농기—트락또르 지정소와 쏩호즈가 막대한 의의를 갖는다。 국가는 농기—트락또르 지정소를 경유하여 꼴호즈원들의 로력을 기술적으로 무장시키며, 농촌 경제의 로력을 공업 로동력의 일종으로 전환시킬 것을 준비한다。

농업 생산의 국영 농장으로 되는 쏩호즈는 거대한 선진적 농업 경제의 표본으로써 꼴호즈를 강화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또한 놀고 있다。

이렇게 국가 소유는 쏘련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의 주

요한 기본적 형태로 되는 것이다。

그 외에 협동 조합적—꼴호즈적 소유 자체의 발생, 존재, 발전도 또한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회주의 경제에서만이 협동 조합적—꼴호즈적 소유 형태가 적은 의의를 가졌다는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조국 전쟁 직전에 곡물 총 생산량의 九〇%와 상품 곡물의 八八・八%를 꼴호즈들이 생산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협동적 공업도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一九四〇년도 쏘련 공업 생산물 총량이 二천三백八十五억 루블리에 이르렀는데 협동적 기업소와 협동 조합들에서는 二백 三十억 루블리 가격의 생산물을 산출하였다。 협동적 공업의 대기업소만도 그 당시에 一만개소 이상이나 되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의의는 국히 거대하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거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조건을 지여 주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덕택으로 쏘련의 인민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에 의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도 도달할 수 없는 급속한 속도로 장성되고 있다。 一九一三년부터 一九四〇년에 이르는 동안 쏘련에서의 주철 생산은 약 四배가 증가되였는데 미국에서는 그 기간에 三八%가 증가되였음에 불과하며, 영국에서는 저하되기까지 하였다。 一九一三년부터 一九四〇년에 이르는 동안 쏘련에서의 강철 생산은 四배반 증가되였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저하되였다。 이 기간에 쏘련의 모든 대공업 생산량은 十二배 증가되였는데 미국에서는 七〇%, 영국에서는 三〇%가 증가되였음에 불과하다。 여기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인민 경제의 독립적 발전의 기본——사회주의적 중공업 생산이 특히 급속하게 증가되였다는 것이다。 一九四〇년 중공업은 一九一三년에 비하여 생산량을 二十배나 증산하였으며, 기계 제조 생산량은 이 기간에 五十배가 증가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사유 재산 경제는 전례 없는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유 재산 경제는 자본주의의 국히 첨예화되는 전반적 위기의 환경 하에서 심각화되는 경제 공황의 타격으로 저락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반대로 쏘련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덕택으로 공업의 평화적 로선으로의 재전은 一九四六년 중에 기본적으로 완료되였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가장 커다란 우월성은 전후 시기에 명백하게 표현되였다。 만일 전쟁 기간에 쏘련이 당한 바와 같은 물질적 대손해를 당하였다면 어떠한 부르죠아 국가라도 대단한 퇴보를 보았을 것이며 제二류 국가로 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쏘

쏘베트 국가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덕택으로 최단기간 내에 공업 생산의 전전 수준을 부흥할 힘이 있었다. 一九四七년 제四·四분기에 공업 생산량은 一九四〇년도 수준에 달하였으며,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九四〇년도 수준을 四一% 초과하였다. 一九四九년 제四·四분기에 있어서의 공업 총생산의 월 평균 생산고는 전쟁 전 一九四〇년도 수준을 五三% 이상으로 초과하였다.

—자본주의의 질곡과 죄악, 즉 생산의 무정부성, 공황 실업 및 기타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완전한 지배는 어느 자본주의 국가도 가질 수 없는 급속한 속도로써 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승리의 결과로 제四차 쏘딸린적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경제의 부흥 발전은 사회주의적 소유가 아직 지배적이 되지 못하였던 제一차 세계 대전 이후와 외국 무장 간섭 이후에 비하여 훨씬 급속히 실현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거하여 있는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쏘련에서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쏘베트 인민은 레닌—쏘딸린당의 지도 밑에 전쟁으로 인하여 당한 상처를 최단기간 내에 회복하였으며, 국가의 생산력을 강력히 발전시키는 길로 전진하고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는 쏘련에서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결정적 요인이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의 기초이며, 각자는 능력에 의하여 일하고 각자는 수요에 의하여 받는다는 공산주의의 원칙이 쏘련에서 장차 실현될 담보이다.

三、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인 소유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반박」하려고 애쓰는 자본주의 변호자들은 공산당원들이 마치 필수품에 대한 개인 소유와 함께 각종의 개인적 리익, 취미 및 요구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듯이 비난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공산당 선언」 중에서 이미 맑쓰와 엥겔쓰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부르죠아 「비판가들」의 이같은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함을 폭로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다음과 같이 론술하였다. 「공산주의는 사회적 생산품을 소지할 가능성을 아무에게서도 박탈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소지물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로동을 착취할 가능성을 박탈한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로 대중은 참말로 사회주의에 있어서 력사에서 처음으로 필수품 소유를 위한 광범한 가능성을 받았다.

쏘딸린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사회주의는 개인적 리익을 무시할 수 없다. 이같은 개인적 리익에 가장 완전한 만족은 사회주의의 사회뿐만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의 리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공고한 보장인 것이다」 (이·쏘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一〇판 六〇二페지).

사회주의의 제도는 필수품에 대한 개인 소유를 없이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근거하여 개인 소유가 장성할 모든 조건을 창조하고 있다.

사적 소유와 개인 소유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부르죠아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이 자본가 착취자들의 사적 소유로 되여 있다. 개인적 필수품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소유도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필수품은 잉여 가치를 짜냄으로써 부르죠아에게 소득되는 까닭이다.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공민의 개인적 소유는 근로 소득과 저축, 주택 및 부업, 가정용품, 일용품, 개인 필수품 및 설비에도 적용된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헌법이 착취자들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는데 쏘련에서의 쏘딸린적 헌법은 공민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개인 소유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개인 소유는 그들 자신이 소비, 매각, 상속할 수 있다.

꼴호즈원들의 개인적 부업은 소사유 경제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꼴호즈원들에 있어서는 기본적 생산 수단은 공동화 되였으며 채전에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꼴호즈 규정으로써 제정된 한도 내의 생산 가축, 가구 및 기타는 개인 소유로 되여 있다.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의 집단적 로동은 꼴호즈원들에 있어서의 기본적 및 결정적 수입의 근원이다. 그뿐 아니라 부업 자체가 꼴호즈의 사회적 경제에 대단히 좌우된다. 례를 들면 꼴호즈원은 터앝을 경작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로부터 받는 인력(引力)을 리용할 수 있다. 꼴호즈원들의 개인 소유의 생산 가축은 로동일에 대하여 꼴호즈로부터 받는 사료로 사육하고 있다.

꼴호즈원들의 개인 소유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근원으로 될 수 없다. 꼴호즈원은 자기의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킬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 리유는 독특한 상품, 즉 로동력을 구입할 수 없는 까닭이다.

쏘련 헌법은 개인 로동에 의거하여 있으며, 타인의 로동을 착취하는 것을 배제하는 개인 농민 및 수공업자들의 소규모의 사적 경제의 존재를 허용한다. 쏘련에서의 소규모 상업의 비중은 보잘 것 없다. 一九三八년도 자료에 의하면 인민 소득에서의 그의 부분은 〇·七%인데 공업 생산에 있어서는 〇·〇三%, 농업 생산에 있어서는 一·二%이다.

四、쏘련의 계급적 구성, 쏘베트 인민의 도덕—정치적 통일

사회주의 혁명과 그 후의 사회—경제적 개조—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 및 농업의 집단화의 결과로 쏘베트

사회의 계급적 구성은 변동되였다。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승리는 쏘베트 사회의 계급적 구성의 근본적 변경을 일으켰다。우선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청산에 의거하여 자본가와 지주 계급이 청산되였으며、그후 생산 수단의 집단화와 공동화에 의거하여 꿀라크라는 수다한 착취 계급이 청산되였다。

一九二八년 자료와 一九三九년도 인구 조사 자료와 비교하면 쏘련 인구의 계급적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변동이 발생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즉 一九二八년도에 로동자 및 사무원은 전체 인구의 一七%에 불과하였던 것이 一九三九년에는 거의 절반—四九·七%에 달하였다。꿀호즈원들과 협동 조합 수공업자들의 비중은 一九二八년도의 三%로부터 一九三九년도의 四六·九%로 증가되였다。따라서 로동자、사무원、꿀호즈원 및 협동 조합 수공업자들은 一九三九년에는 九七·六%에 달하였다。나머지 二·四%는 개인 농민 및 협동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수공업자들에 해당한다。

이러하여 쏘련 인구의 압도적 대다수는 사회주의 소유와 직접 련결되여 있다。쏘련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 기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변동되였다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쏘련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전연 새로운 계급으로 되였으며、그는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생산 수단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있으며、국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동 계급으로 전화하였다。쏘련 농민대중도 모든 착취로부터 해방된 전연 새로운 계급으로 되였다。농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거한 꿀호즈에 가입하였다。쏘련의 인테리겐챠도 역시 변동되였다。모든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절대 다수가 농민 로동자로부터 나온 쏘베트 인테리겐챠는 사회주의에 복무하고 있으며、쏘베트 인민에 복무하고 있다。

쏘련 근로자들 간의 계급적 한계는 점점 소멸되여 가고 있다。공동 소유에 기초하여 쏘련 근로자들의 도덕—정치적 통일이 발생되였으며、강화되였다。쏘련에서는 무 위대한 힘、즉 인민과 공산주의가 한덩어리로 결합되였다。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에는 적대적 모순이 결코 없었지만 꿀호즈화가 승리하기 전까지는 그들 간에 근본적 차이점만은 존재하여 왔다。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동자는 대규모적 공동 생산 직장에서 일하였는데 농민은 소규모적 사영 경제에서 일하였던 점에 있는 것이다。도시에서의 대규모적 사회주의 공업과 농촌에서의 분산된 소상품 생산 간의 모순이 퇴치된 이후、즉 꿀호즈화가 승리한 이후에는 농민과 로동 계급 간의 그 근본적 차이점도 또한 일소되였던 것이다。그리하여 이제 와서는 사회주의적 경제가 그 량 계급、존재의 원천으로 되였다。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로동 계급과 농민 간에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가 현존

합으로부터 류출되는 한계와 부분적 특성의 차이점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사회주의적 농업 발전에 기초하여 농업 로동이 공업 로동의 일종 형태로 점점 더 변경한 결과 (농촌을 광범히 기계화하며、농촌 문화와 농민들의 기술 상식을 제고시키는 방도로) 그 한계는 점점 소멸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 농민 및 인테리 간의 한계도 또、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레닌—쓰딸린당의 지도를 받는 쏘련 인민들은 근로자들의 통일 집단에 결속되였다。거기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는 곧 공산주의 사회 건설자들의 친선 협조 관계이다。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기초인 공동 소유가 확고히 되면 될수록 로동자、농민 및 인테리들 간의 친선 관계도 더욱 강화되여 간다。

이·브·쓰딸린은 十八차 당 대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로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농민과 지주 사이에의 융화될 수 없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분렬되며、그것이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이때에 착취의 기반에서 해방된 쏘베트 사회는 이와 같은 모순들을 알지 못하며、이 사회에는 계급적 충돌이 없으며、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의 친선적 협력의 정경을 보이고 있다」(이·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一판 五八九페지。당출판사판 제三분책 四五三페지)。

쏘베트 사회의 도덕—정치적 통일은 그의 군사적 위력을 강화시키며、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의 보다 급속한 속도를 보장하며、공산주의의 최고 단계로의 점진을 촉진시킨다。

쏘련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공동 소유가 창설된 결과 인민들 간의 영원 불멸의 친선이 맺어졌으며、더욱 강화되였다。쏘베트 국가의 모든 민족들의 정치적 평등은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 혁명의 혜택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 분야에서의 그들의 평등은 사회주의적 소유가 승리한 결과에 이루어졌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개인 소유와 자유 자본은 인간을 필연코 분리시키며、민족적 갈등을 조장하며、민족적 압박을 강화하지만 공동 소유와 공동적 로동은 인간을 극진히 접근시키며、민족적 갈등을 파탄시키며、민족적 압박을 일소한다」(이·쓰딸린 「맑쓰주의와 민족—식민지 문제」 九〇페지)。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의 경제적 기본은 곧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확립이다。쏘베트 국가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혜택으로 민족들 간에는 새로운 친선 관계가 확립되였다。

쏘련의 모든 인민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진실로 평등적이며 쏘련에는 피착취 및 지배적 민족이 없다。민족별과 인종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적인

사실, 경제 및 사회생활면에서 모든 민족들간의 형제적 협조,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쏘련 각 민족 문화의 번영, 이것이 말하자면 쏘베트 다민족 국가의 특징이다.

쏘련 인민들의 애국주의라고 하면 이것은 한갓 그들이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쏘베트 애국주의의 기본,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근로자들의 애국심과 충성의 기본에는 자본주의에 대비한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깊은 리해가 잠재하여 있다.

브·므·몰로또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혁명의 주요한 전취는 곧 쏘베트 애국주의자로 장성서의 사람들의 새로운 정신적 면모와 사상적 장성이다」

조국 전쟁 시기에 철석 같은 견인성과 영웅적 투쟁 및 영웅적 로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놀래운 쏘베트 인민은 전체 인류에게 쏘베트 애국주의의 위력을 보이였다. 현재 쏘베트 애국주의자들은 평화적 로력 전선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또다시 용감성을 발휘하며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애착심과 충성심을 다시금 시위하고 있다.

쏘베트 애국주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사회주의 조국 발전의 거대한 추진력으로 되여 있다. 이 당은 쏘베트 국가의 위력과 경제 문화적 륭성을 위한 쏘베트 사람들의 헌신적 투쟁에서 그 구체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쏘베트 애국주의는 교쓰모뽈리찌즘의 그 어떠한 표현과도 융화치 않는다. 레닌이 체르늬셉쓰끼에게서 지적한 그런 「진정한 조국애」는 쏘베트 사람들에게서 환희와 긍지감을 초래하고 있다. 레닌—쓰딸린의 학설에 대한 탁월한 선전자인 스다노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 조국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지 않고는……국제주의자가 될 수 없다.……이러한 진리를 망각하는 것은 지도적 로선을 상실하며, 자기의 면모를 상실하며, 무근거한 교쓰모뽈리트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도덕—정치적 통일, 인민들의 친선 및 쏘베트 애국주의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 사회의 유력한 추진력으로 되여 있다.

* * *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쏘베트 사회 제도의 기초이며, 쏘련 경제의 무궁 무진한 력량과 거대한 가능성의 원천인 동시에 쏘련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원천인 것이다.

유사 이래 처음인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의 향상은 국민 수입이 一九一三년도의 二一〇억 루블리로부터 一

九四〇년도의 一、二八三억 루블리로 장성된 것이 명백히 증명하였다. 一九五〇년도에 국민 수입은 계획에 의하여 一、七八〇억 루블리로 장성되게 된다. 국민 수입의 일부는 새 기업소 건축과 생산 확장에 리용되며, 일부는 필요한 저축으로 리용되며, 또 일부는 수요 폰드에 리용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승리에 의하여 실업은 이미 一九三〇년에 완전히 퇴치되였다. 로동자들의 주택 조건과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매일같이 향상되고 있다. 쏘련 처럼 인민 보건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승리에 의하여 쏘련의 문화는 급속도로 장성되고 있다. 지금 소 중학교들에는 三천四백만의 아동이 수학하고 있다. 대학들에는 一九四九년 한해 동안에 만도 三十二만명의 학생이 입학하였으며, 전문학교들에는 四十五만명이 입학하였다. 一九四九년도에 전체 八六四개소의 대학에서 백十二만 八천명의 대학생이 수학하였으니 이것은 전전 대학생 수를 三十一만 六천명이나 더 초과한 것이다. 전문 학교들에는 一九四九년도에 백三十만 八천명이였는데 이것은 전전 수를 三十三만 三천명이나 더 초과하였다. 쏘베트 주권 수립 이래 二七二개소의 과학 실험 연구소를 가진 十六개소의 과학 아카데미야가 창설되였다. 그밖에도 쏘련에는 九백개소 이상의 부문별 과학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 연구소는 해당한 성, 관리국들에 속하여 있다. 쏘련에는 一九四七년도에 과학 일꾼들의 수는 약 十만명에 달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며, 강화하는 것은 매개 쏘베트 공민의 임무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강화 발전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사회 제도는 더욱 강력하여 질 것이며, 쏘베트 인민은 보다 더 신속히 공산주의의 제一계단으로부터 제二계단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인민의 복리의 부단한 향상은 사회주의의 법칙이다

쁘·므쓰찌스랍쓰끼

一九五〇년 二월 二十八일부 쏘베트 동맹 내각 및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의 식료품 및 제조품에 대한 국정 소매 가격의 새로운 인하에 관한 결정과 쏘베트 동맹 내각의 금본위에 대한 루블 교환률의 변경 및 외국 화폐에 대한 루블 교환률 제고에 관한 결정은, 인민 경제의 새로운 거대한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승리한 사회주의의 나라의 근로자들의 복리는 부단히 향상되고 있다。

쏘베트 혁명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우리 조국의 수백만 근로 대중의 생활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시대는 우리 나라의 착취 계급의 멸망으로써, 로동 계급, 근로 농민 및 인테리겐차들의 정치, 경제 및 문화 관계에 있어서의 부단한 향상으로써 표시되였다。

쏘베트 동맹 인민들은 지주와 자본가들의 정권을 전복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축적한 사회의 부(富)의 주인이 되여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을 부단히 또 급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도 또한 획득하였다。「우리 혁명의 특징은──쓰딸린 동지는 지적하고 있다──그것이 인민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부(富)까지 유족하며 문화적인 생활의 가능성도 주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제十一판 四九九페지。당출판사판 제二분책 二八二페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의 발전이 한줌도 못되는 착취자──자본가들의 탐욕적 리익에 종속되고 있다。착취자들은 리윤을 많이 짜내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므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로동자들의 생활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며 실업자는 증대한다。자본주의의 축적 하에서 로동자는 절대적 빈궁에 빠진다。즉 종전보다 더욱 빈궁하여지며 생활 조건이 악화된다。또한 로동자들의 상대적 빈궁화가 일어난다。즉 사회적 소득에 있어서의 그들이 차지하는 몫이 감소된다。맑쓰는 다음과 같이 썼다。「……한 극(極)에 있어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또 상대되는 극,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생산하는 계급측에 있어서의 빈궁, 로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야만성 및 도덕적 타락 등의 축적이다」(『자본론』一권 一九四九년판 六五一페지)。맑쓰에 의하여 천재적으로 밝혀졌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의 전력사가 확증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은 이와 같은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특히 자본주의의 모든 적대적 모순이 극도로 격화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는 로동 계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의 과정이 급격히 장성된다。실업은 대중적이며 만성적인 것으로 되고 위기는 더욱 심각하며 장기적으로 되여 세계에는 수백만 근로자들에게 죽엄과 파산을 가져오는 제국주의 전쟁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경제 발전의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바 이는 모든 인민 경제의 앙양에 기초한 인민의 복리의 부단한 향상의 법칙이다。

전인민적 복리 향상의 사회주의적 법칙은 착취 계급과 착취가 없으며 빈궁과 실업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온다。즉 그는 생산 도구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립각하며 또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며 인민 대중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사회의 전정원에 대하여 부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조직하는 것을 목적과 동인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자체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건설과 착취 계급의 청산은 국민 소득의 분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자본주의의 국가들에서는 부르죠아들이 국민 소득의 절반 이상을 횡취한다。례컨대 전쟁 전에 미국에 있어서 국민 소득의 五五·六%가 착취 계급의 몫으로 되였으며 영국에 있어서는 五九·二%가 착취 계급의 몫으로 되였다。전후의 미국에 있어서는 로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농업 경영자들의 수입은 감소되고 있으며 그 반면 자본가들의 리윤과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제금은 년년이 증가되고 있다。이것은 착취자들이 횡취하는 국민 소득의 몫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 소득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소비되고 있다。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의 분배는 인민 경제 계획에 일치시켜 실시하고 있다。국민 소득은 착취 계급(우리 나라에서는 청산되였다)을 부유케 하는 목적으로 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물질적 상태의 계통적 개선과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계통적 발전을 위하여 리용되고 있다。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의 이와 같은 분배의 원칙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백만 로동자와 농민 가운데서의 쏘베트 정권의 힘과 권위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 쏘베트 동맹의 로동자와 농민의 물질적 복리의 계통적 증대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쓰딸린 전집 一二권 二九六페지).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에 있어서의 로동자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경되였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주요한 생산력, 즉 생산 경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소유한 인간 및 안재는 가장 고귀하며 가장 결정적인 자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 주요한 생산력은 자본가들의 개인 소유로 되여 있는 생산 수단의 부가물로 전변되여 있으며 자본주의적 소유의 축적의 리익에 종속되고 있다. 맑쓰와 엥겔쓰는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산(活) 로동은 오직 대상화된 로동을 증식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대상화된 로동은 오직 로동자의 생활 과정을 확장시키며, 부유하게 하며, 안락케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쏘베트적 경제 체계에 있어서는 「생산의 발전은 경쟁과 자본주의적 리윤의 확보의 원칙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 지도와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 원칙에 종속되고 있다」(쓰딸린 전집 一二권 三二一페지).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수요와 적대적 모순으로 된다. 한편에서는 축적과 생산의 무한한 확장의 경향과 다른 편에서는 근로자들의 수요의 감소를 일으키는 인민 대중의 파멸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이다. 생산력의 성격과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의 불가 상용적인 모순의 표현은 과잉 생산의 주기적 공황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수백만 근로 대중의 물질적 보장의 부단한 저하는 불가피적으로 공황의 지반을 만드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중의 수요(구매력)의 증가는 생산의 증대에 언제나 따라가지 못하며, 부단히 뒤떨어지며, 항상 생산을 공황에로 내몬다」(쓰딸린 전집 一二권 三三二—三三三페지). 공황 시에 있어서 「자본가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대중의 령락 때문에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여 생산품을 소각하며, 완성된 상품을 페기하며, 생산을 정지시키며, 또 생산력을 파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그 때에는 수백만 대중은 상품의 결핍으로가 아니라 상품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하는 수 없이 실업과 기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 간략 독본」 二二一페지. 당출판사판 二一八페지) 라고 쓰딸린은 썼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대중의 수요는 생산 발전과의 적대적 모순이 없으며 생산의 발전을 조해하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자들의 수요, 대중의 수요의 증대는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극으로 된다.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는 수요의 증대, 대중의 구매력의 증대는 항상 생산의 증대를 앞서 나간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부단히 성장하는 생산 확장의 원천으로 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형편의 계통적 개선과 그들의 수요(구매력)의 장성은 로동 계급을 과잉 생산의 공황으로부터 실업과 빈궁의 증대로부터 보장하여 준다」(쓰딸린 전집 제一二권 三二一페지). 여기에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최대의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는 생산에 대한 자본주의적 자극을 새로운 사회주의적 자극으로 바꾸어 놓았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추진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의 자각인 바 이 자각은 근로자들이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계급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국가를 위하여 일한다는 그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자극과 추진력은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에서 들여오는 수입이 개인을 부요케 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앞으로 더욱 확장하며, 로동 계급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상태를 개선하며, 로동자와 농민에게 수요되는 공업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데로, 즉 또 다시 그 근로 대중의 물질적 상태를 개접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쓰딸린 전집 제一〇권 一二〇—一二一페지).

근로자들의 복리의 부단한 향상은 쏘베트 동맹의 인민 경제 발전의 추진력이다. 로동자 농민의 물질적 보장을 확고히 또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중공업과 운수의 발전의 급속한 템포가 필요하다. 생산의 확대, 모든 인민 경제에 있어서의 기술적 진보 및 상품 거래의 발전이 여기에 의존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은 사회적 재부의 증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확고한 앙양, 쏘베트 동맹의 독립의 공고화 및 그의 방위력의 강화를 위한 계획에 의하여 발전된다.

* * *

사회주의 국가와 레닌—쓰딸린당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기획하며 경제 계획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 근로자들을 동원 조직하면서 로동자, 꼴호즈원, 쏘베트 인테리겐챠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위한 공고한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보장하는 중공업의 발전 템포를 강행함과 동시에 당과 정부는 소비품 생산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농업의 발전을 백방으로 방조하고 있다.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혜택으,

도 이미 전쟁전 제五개년 계획의 시기에 쏘베트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쏘베트 동맹의 국민 소득은 一九四○년에는 一九一三년에 비하여 六・一배로 장성되였다。소비품 공업 생산은 一九二八년부터 一九四○년까지 四배 이상으로 장성되였으며、一九一三년에 비하면 五・六배의 장성이다。一九四○년에 곡물 수확은 一九二四년에 비하여 二・四배로 증대하였으며、상품 곡물 수량은 一九一三년에 비하여 七七%가 증대되였으며、사탕무 생산은、一九一三년에 비하여 二배로 장성하였으며、면화는 三・五배로 장성하였다。로동자 및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제二차 五개년 간에만도 二배로 제고되였으며 꼴호즈원들의 화폐 소득은 三배로 제고되였다。국영、협동 조합 및 꼴호즈 상업의 소매 상품 거래는 三배로 증대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고생스러운 시기에 근로자들의 물질적 형편에 관한 당과 정부의 배려는 국정 가격으로 국가 폰드로부터 로동자와 사무원에게 상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데서 표현되였으며 이 국정 가격은 전 전쟁 기간 중 불변히 지속되였다。

전쟁의 승리적 종결과 평화적 건설에로의 이행은 쏘베트 인민 앞에 그들의 복리의 새롭고 힘찬 향상의 전망을 열어 놓았다。쓰딸린 동지는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자기의 력사적 연설에서 전후 시기에 있어서 「소비품 생산의 확장에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을 부단히 저하시키는 방도로써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의 제고에 특별한 주의가 돌려질 것이다」라고 교시하면서 이 과업을 강조하였다。

一九四六——一九五○년 인민 경제 복흥 발전 五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 가운데는 중요 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다。즉 쏘베트 동맹의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의 보장과 중요 소비 물자를 풍부히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꼴호즈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배급제를 발전된 쏘베트 상업으로 바꾸는 것、도시와 농촌의 부흥 및 앞으로의 건설에 관한 문제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는 것、인민 보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민 교육망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당과 정부는 공업 원료와 주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의 부흥 발전에 대하여 거대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一九四七년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 二월 총회「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농촌 경리의 발전 대책에 관한」결정을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에는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의 발전의 볼쉐위끼적 방대한 강령이 표현되어 있다。

전체 쏩호즈、기계 뜨락또르 지정소 및 전체 꼴호즈의 약 四분지 一에다 전력을 확보할 것을 예견하는 농업 전기화의 一九四八——一九五○년 국가 계획

이 一九四八년 五월에 비준되였다。

一九四八년 十월에 쏘베트 동맹 내각과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는「쏘베트 동맹의 구라파 지방의 초원 및 산림 초원에서의 높은 안정된 수확을 보장하기 위한 못 및 저수지의 건설、호전림 조림(湖田林 造林)、목초 륜작 재배(牧草輪作栽培)의 계획에 관한」력사적 결정을 채택하였다。이 거대한 계획의 실현은 수확고를 一・五——二배로 증대하는 것이며 높은 안정된 수확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은 농업에 거대한 원조를 주고 있다。一九四九년에 농촌 경리는 전쟁 전인 一九四○년에 비하여 三——四배나 더 많은 뜨락또르 및 농업 기계를 받았다。一九四九년 중에 농촌은 十五만의 뜨락또르(十五마력으로 환산하여)、二만 九천대의 꼼바인(그 중에서 一만 二천대는 자동(自動)이다)、六만 四천의 화물 자동차、一백六十만의 련결 기구 및 기타 농업 기계 등등을 받았다。그러고 전쟁 전보다 현저히 질적으로 좋은 광물질 비료들이 농촌 경리에 공급되였다。

이 모든 방책들과 꼴호즈 농민들의 로력의 미증유의 앙양은 一九四八년까지에 이미 주민에 공급하기 위하여 또 종자 저축의 조출을 위한 필요한 수량의 식량을 국가에 보장하였다。一九四九년에 농산물 곡물 총수확량은 七十六억 뿌드에 달하였는데 이것은、즉 五개년 계획에 의하여 一九五○년의 목표로 되였던 그것과 거의 같다。

一九四九년 四월에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와 쏘베트 정부는 곡물 문제의 해결과 이 령역에 있어서의 금후의 성과를 위한 튼튼한 토대의 창설을 강조하면서 쏘베트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축산의 발전을 중심 과제로 내세웠다。채택된 一九四九——一九五一년 꼴호즈 및 쏩호즈 가축 생산 발전에 관한 三개년 계획은 근로자들의 수요를 전면적으로 충족시켰데 관한 당과 정부의 깊은 배려를 특징짓는 것이다。

三개년 계획은 축산의 증대에 대한 미증유의 급속한 템포——三년을 一년반으로、즉 二배로——를 예견하고 있다。그 때에는 一九三七년에 비하여 꼴호즈에 있어서의 가축 두수는 다음과 같이、즉 대각(大角) 가축은 二・三배로、돼지는 三배로、양은 四배로 각각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농민 대중의 열렬한 지지 협조로 이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一九四九년에는 약 十二만의 새로운 꼴호즈 가축 농장이 건설되였으며 꼴호즈에 있어서의 대각 가축의 두수는 二一%、돼지는 七八%・가금(家禽)두수는 二배 등등으로 증대하였다。

당과 정부는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에도 또한 거대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一九四六——一九四八년에 三년 간에만도 이 부문에 있어서의 자본 건설(資本建設)의 발전은 거의 三배로 증대하였다。六백개의 식료품

제조 공장이 조업하고 있다。최근 二년 간에 방직 기계 제조는 三배 이상으로 증대하였다。

당 및 정부의 정책과 사회주의 경쟁의 힘찬 앙양의 혜택으로 중요 소비품 생산은 최근 수년 간에 二—三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대하였다。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인민 경제 발전、특히 농업 및 공업(소비재 생산)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수요를 부단히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前提)를 조출하였다。쏘베트 나라에서는 년년이 소비 상품 류통이 증대하고 있으며 끌호즈 상업이 확대되고 있다。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상업망의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방면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쏘베트 동맹 내각과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의 결정으로 一九四七년 十二월에 실시된 화폐 개혁과 식료품 및 공업 상품에 대한 배급제 철폐는 전후 시기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거대한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화폐 개혁은 화폐 류통면에 있어서의 제二차 세계 대전의 악결과를 청산하였으며、쏘베트 루블을 완전한 가치로 회복시켰으며、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을 제고시켰으며、또 이와 마찬가지로 끌호즈원들의 소득을 제고시켰다。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근로 대중의 물질적 복리 향상의 주요한 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로동자 및 끌호즈원들의 로동 생산성의 급속하고도 부단한 제고이다。로동 생산성의 부단한 제고는 로동자들의 로동 임금의 증대와 로동일에 의하여 분배받는 끌호즈원들의 수입을 증대케 한다。로동 생산성의 제고、소모된 기계 및 기타 기구의 개선과 함께 연료 및 원료의 절약은 생산 원가의 계통적 저하를 보장하며、바로 그것으로써 공업품 및 식료품에 대한 국정 가격을 계통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를 조출하였다。

최근 三년 간에 쏘베트 공업에 있어서의 로동 생산성은 년년 一三—一五%로 제고되였으며、생산 원가는 부단히 저하되고 있다。인민 경제의 발전、즉 로동 생산성의 제고 및 생산 원가의 저하에 의거하여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소매 가격의 계통적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一九四七년 十二월에는 식료품 가격—빵、맥분 및 기타—은 그전의 식량 지급(支給) 가격에 비하여 一〇—一二%가 저하되였다。공업 상품에 대한 가격은 三·二배가 저하되였다。一九四八년 四월 十일에는 일련의 공업품 및 식료품 가격은 一〇—二〇%가 인하되였다。一九四八년 十一월과 十二월에는 다시 생산품 가격의 부분적 인하가 있었다。두번째의 가격 인하는 一九四九년 三월 一일에 실시되였는데 그 때에는 기본 식료 상품에 있어서는 一〇%、공업 상품에 있어서는 一〇%로부터 三〇% 까지의 새로운 생산품 가격의 인하가 있었다。국정 가격의 인하는 끌호즈의 시장 가격의 대폭적 인하를 초래하였는 바 거기에서는 가격은 규칙적으로 같은 수준에서、지어 국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정된다。모든 이것은 주민의 구매 능력의 급진적 증대를 보장한 것이다。一九四八년 한해에만도 주민은 가격 인하로 말미암아 八十六억 이상을 리득하였으며、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二배 이상으로 증대되였다。一九四九년에 주민은 가격 인하로 말미암아 규정 임금 외에 七十一억 루블의 리득을 보았다。가격으로 환산하여 농민의 수입은—농촌 경리에 있어서의 동일한 로동으로 계산하여—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一四%가 많으며 전쟁 전인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三〇%가 높았다。一九四九년 一년 간에 주민에게 지급한 상품은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二〇%가 많았으며、이리하여 식량 상품의 판매는 一七%가 증대하였으며、공업 상품은 二五%가 증대하였다。

一九四九년에 있어서 공업 및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과와 관련하여 그리고 또 로동 생산성의 제고 및 생산품 원가 저하와 관련하여 쏘베트 동맹 내각과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중앙 위원회는 대중의 소비품인 식료품 및 공업품에 대한 국정 소매 가격의 새로운(제三 인하에 따라)인하를 실시할 것을 고려하였다。맥분、곡물 및 빵은 二一—三〇%、탈피 곡물은 一二—二〇%、우육 및 그 가공 제품은 二四—三五%、어물은 一〇—三五%、유류(油類)는 三〇%、우유 및 그 제품은 一〇—二五%、사탕은 一二—一五%、과실은 一五—三〇%、공업 제품은 一〇—三五%、비누는 四〇—五〇%가 각각 인하되였다。

국가 상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격 인하의 혜택으로 주민들은 一년에—계산에 의하면—약 八〇〇억 루블을 리득하고 있다。그 외에 국가 상업에 있어서의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끌호즈 시장 및 협동 조합 상에 있어서도 또한 거의 동일한 정도의 가격 인하를 초래하였는데 주민들은 약 三〇〇억 루블의 추가 리득을 받고 있다。따라서 새로운 가격 인하로부터의 주민의 총 리득은 약 一천 一백억 루블에 달한다。

새로운 가격 인하의 결과로—一九五〇년 二월 二十八일부 쏘베트 동맹 내각과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중앙 위원회의 결정에는 지적되여 있다—루블의 구매력은 새로 현저히 제고될 것이며、외국 화폐의 교환률에 비하여 쏘베트 루블의 교환률은 일층 크게 개선될 것이며、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의 앞으로의 참다운 제고가 있을 것이다。년급(年給) 수급자 및 봉급자들의 상태가 확실히 개선될 것이며、가격 인하의 조건 하에서 년급 및 봉급액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감가(減價)된 공업품 구매에 있어서 농민들의 비용이 현저히 감소된 결과로、그리고 또한 농작물 및 축산물 국정 수매 가격이 변하지 않은 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입은 앞으로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

쏘베트 화폐 제도의 공고화에 관한 선명한 지표로 된 것은 금본위에 대한 루블의 교환률의 변경 및 외국 화폐와의 관계에 있어서 루블 교환률의 제고이다。 一九四七년 十二월에 실시된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화폐 개혁 및 화폐 개혁과 동시에 실시된 전표제의 철폐, 그리고 一九四七——一九五〇년 간에 三회나 실시된 일용품 가격의 현저한 인하는 루블을 더욱 견고케 하였으며, 그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외국 화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교환률을 제고시켰다。

서부 제국가에 있어서는 화폐 가치가 저락되였으며, 계속 저락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구라파의 화폐들의 평가 절하에로 이르게 하였다。 북미 합중국에 관하여 말한다면 일용품 가격의 부단한 등귀와 이에 따르는 만성적 인플레이순, 이러한 것들이 역시 딸라의 구매력을 저락시키는 부절적 원인이다。

이 모든 사정과 관련하여 루블의 구매력은 그의 공식 교환률보다 더욱 제고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정부는 루블의 공식 교환률을 제고시킬 것과 또한 一九三七년 七월에 설정되였던 바와 같이 루블의 교환률의 계산을 딸라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금본위에 립각하여 루블의 금 함유량에 상응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상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예견된다。 현 미국 대통령 토루맨은 국회에 보낸 자기의 교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나라의 주민의 四분지 三은 최저한도의 생활비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것, 식료품 가격이 너무도 고가(高價)이라는 것, 수백만 근로 인민들이 빈민굴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인민의 대다수가 의료 시설을 리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 수백만 인간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四천 五백만 근로자 중에서 적어도 二천만의 근로자들은 실업의 성장으로 빈궁과 기아에 운명지여져 있다。 공적 자료에 의하면 六백만 농업 경영자 중 반분은 자급 자족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수년 간에 十만의 농업 경영자는 령락하여 대 자본가적 농장 및 재배지(栽培地)에서 로동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는 농업 프로레타리아의 대렬에 전락하였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업은 증대하고 있다。 실업자 및 반(半) 실업자 수는 四백만을 릉가하고 있다。 소매 가격의 인상으로 주민의 구매력은 끊임없이 저락되고 있다。 례컨대 영국에 있어서는 一九四九년 一년 간에만도 식료품 및 연초의 도매 가격은 평균 一九%가 증대하였는데 그 중에서 곡물 가격은 三一%, 우육(牛肉), 어물(魚物) 및 계란은 二三%가 등귀하였다。 부르죠아 국가에 있어서의

로동자의 실질 임금은 전쟁 기간보다 현저히 저하되였다。 모든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전쟁 전 소비 규준보다 현저히 저하된 규모에 의하여 공급하는 배급제가 보존되여 있다。 영국 레이버당 통치자들은 군비 증대를 도모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고 견디라』고 설교하고 있다。

모든 중하(重荷)를 근로 대중의 어깨에 걸머지우는 세금이 부단히 증대하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 로동자들은 임금의 三분지 一을, 세금으로 바치고 있다。 부르죠아 국가 정부의 이 모든 침략적 제국주의 정책의 수행에 리용된다。 인민들의 소비를, 희생시켜 가지고 『마샬안』의 노예로된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의 군국주의화가 수행되고 있다。

전후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물질적 상태는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공황의 타격으로 악화되고 있다。 작년에 미국 및 기타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의 공업 생산은 축소되였다。 농업 위기도 또한 더욱 강렬히 일어나고 있었다。

자본가적 독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층은 막대한 량의 식량을 없애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 농무장관 부레넌은 一백 三十만 톤의 감자를 없애버릴 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수백만 근로자들이 첨예한 식량 결핍을 체험하고 있는 때에 있은 일이다。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의 승냥이 법칙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이미 一九三〇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잉」생산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알지 못하는 경제 체제, 대중이 빈궁과 실업, 기근과 령락을 당하게 되는 모멘트에 있어서 부득이 그 「여분」을 태워 버리게 되는 경제 체제 —— 이와 같은 경제 체제야 말로 스스로 자가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쓰딸린 전집 제十二권 三二三페지)。

* * *

쏘베트 정부와 공산당은 인민 대중의 복리의 향상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으며 또한 광범한 사회—문화 방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로동자, 꼴호즈원 및 인테리겐차의 로동 조건과 생활 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쏘베트 동맹의 국가 예산의 세출의 압도적 부분은 인민 경제와 사회—문화 방책의 재정으로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매년 국가 사회 보험에로 수백만금이 지출되고 있다。 전쟁 전 제五개년 계획의 시기, 즉 一九二八——二九년부터 一九四〇년에 이르는 시기에 사회—문화 방책에 대한 국가 예산에 의한 지출은 二十六배로 증가되였던 것이다。 一九四九년에 있어서 교육 보건 및 체육 문화 사업에 대하여, 사회 보험, 자녀가 많은 모성과 남편 없

는 모성에 대한 부조, 또한 휴양소와 료양소에의 무료 및 특전이 부여된 입소권,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로동력 상실자에 대한 년금, 그리고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에 의하여 쏘베트 국가는 一九四〇년의 거의 三배가 되는 一천 一백억 루블 이상을 지출하였다.

거대한 예산 지출은 쏘베트 인민의 과학과 문화의 개화를 보장하고 있다. 전쟁 전의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참다운 문화 혁명을 완수하였었다. 즉 쏘베트 동맹의 민족들의 모국어로써 하는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을 고정화하였으며, 숙련 로동자의 수백만 간부들을 양성하였으며, 새로운 쏘베트 인테리겐차들을 조출하였으며 건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전후 五개년 계획의 四년 간에 거대한 복구 사업이 수행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물질 문화 및 정신 문화의 중요한 지표에 있어서 전쟁 전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 一九四九년부터는 전반적 七년제 의무 교육제로 이행하고 있다. 중등 학교와 고등 학교에 있어서 학생과 교원의 정원은 一九四〇년보다 현재 三六% 증가되였으며 과학 일군들 정원은 一九四〇년에 비하여 거의 二배로 증가되였다. 의사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되였으며 병원, 산원, 의료 구역과 의료망들은 확장되였다.

국가 기업소와 국가 기관, 그리고 지방 쏘베트들, 또한 주민들은 一九四六—一九四九년 간의 국가 크레지트의 혜택으로 七천 二백만 평방메타 이상의 주택지를 건설하였으며 복구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 지방에서 二백 三十만의 가옥을 건설하였으며 도시의 정리, 록화(綠化), 료양지, 료양소, 휴양소의 건설에 대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四년 간에 一八五개의 도시와 촌락에 수도를 가설하였으며 二十七개 도시에 전차, 무궤도 전차를 인입하였으며 세개의 새로운 중요 간선(幹線)인 까스 배송관이 모쓰크바, 레닌그라드, 끼예브, 그리고 기타 도시들의 수단의 아파트들에 까스를 공급하고 있다.

쏘베트 동맹의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매년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동 조건과 생활 형편의 개선에 대하여 거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 쏘베트 국가와 공산당은 곤난하고 위험한 작업의 기계화, 그리고 생산 행정의 자동화와 합리화의 방법에 의한 로동자와 끌호즈원들의 로동의 경감(輕減)에 대하여 부단히 배려하고 있다. 쏘베트 동맹에서는 이미 그러한 곤난한 직업, 례컨대 야금업에 있어서의 운반(運搬)로동, 석탄 공업에 있어서의 믿차 로동, 하천 정박소(河川淀泊所)의 하역(荷役)로동과 같은 그러한 직업은 없어졌다. 곤난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곤난한 조건에서 로동하고 있는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높은 로동 임금과 일련의 특전(휴가의 증가, 주택의 특전)이 구정되여 있다.

기업 관리와 직업 동맹 단체는 국가의 부담으로 되는 로동 보호, 모성과 유아에 대한 보호, 휴가의 허여(許與)에 관한 국가 법률의 준수에 대하여 엄격히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자본주의적 나라의 로동자들은 오식 공상이나 할 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과학, 기술, 문화의 모든 수단은 로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리용되고 있으며, 그들은 기계에 대한 부속물의 역할에 까지 그것을 불구화하고 있으며 비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 합중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예산에 있어서는 심지어 평화적 시기에도 세출의 중요한 항목은 전쟁 방책의 재정으로 되고 있었다. 경찰 기관과 감옥의 유지에 대한 세출이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세출을 릉가하고 있다. 부르죠아 정부는 사회—문화 방책에 대한 국가 세출을 삭감하고 있다. 一九五〇—五一년의 북미 합중국의 국가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의 七一%가 전쟁 독적을 위하여 돌려져 있고 겨우 一%가 교육에, 그리고 一% 이하가 의료에 돌려지고 있다. 부르죠아적 「문명」이란 이러한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는 해마다 주택 건설, 공공 단체 건설, 문화 건설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량곡 수입이 축소되고 있다. 그 대신에 작년의 영국 예산에 있어서는 군사 목적에 대한 지출이 五八%가 증가되였다.

현 나라들에서는 년년 파업 운동이 장성되고 있다. 혹독한 반 로동적 국가 법률과 직업 동맹 반역자들의 간계(奸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파업에는 수十 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一九四九년에 북미 합중국에서는 三천회 이상의 동맹 파업이 일어났으며 그 동맹 파업에는 三백만 이상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북미 합중국에서의 파업 운동의 규모에 관해서는 동맹 파업의 결과로 五천 五백만 로동일을 상실하였다는 그 사실이 말하여 준다. 파업 로동자들의 요구는 그들의 임금을 작년에 등귀한 물가에 비례하여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그들은 기업가들의 부담으로 되는 보험 기금의 조출과 로동 보호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근로 대중의 합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지배적인 제국주의의 층은 무자비한 탄압으로써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 * *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 로동자에 관한 그리고 그들의 복리의 향상에 관한 배려는 모든 국가적, 당적, 경제적, 직업 동맹적 활동가들의 제일 첫째의 의무로 되여 있는 것이다.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국가의 지도자들은 로동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의 향상을 자기 생활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앙 위원회의 성원, 정부의 성원인 우리들에 관해

서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생활, 인민의 전반적인 복리와 모든 근로자의 수백만 대중의 [illegible] 위한 투쟁의 생활 이외에 다른 생활이 없다」——쓰딸린 동지의 이 말씀을 쏘베트 인민들은 심심한 감사로써 받아 들이고 있다. 매개 쏘베트 공민은 자기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쓰딸린적 배려를 감지(感知)하고 있다.

레닌—쓰딸린당은 결코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도시와 촌락에서 사회주의 생산은 확고하게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민 경제, 과학, 문화의 모든 부문은 거창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쏘베트 인민들의 수요와 정신적 흥미는 증대되고 있다. 「현재의 로동자들, 우리 쏘베트 로동자들은——一九三一년에 이미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식료품 공급의 의미에 있어서나, 주택 문제의 의미에 있어서나, 문화 및 기타의 온갖 수요를 보장해주는 의미에 있어서나, 자기의 모든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켜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쏘베트 로동자들은 「그의 모든 물질적 문화적 수요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이 요구를 실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一판 三三六페지. 당출판사판 제三분책 三一三페지).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중앙 위원회는 전체 선거자들에게 주는 자기의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공산당은, 앞으로도 쏘베트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공산당은 쏘베트 인민의 국민 소득의 더 한층의 장성을 달성할 것이며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실질적 로동 임금의 장성, 그리고 로동 생산성의 제고 및 생산물의 원가 저하에 기초하여 대중적 소비품의 더 한층의 가격 인하를 달성할 것이다. 당은 더욱 주택 건설을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의 정리 사업, 학교와 병원, 아동들의 공동—생활적 문화 시설의 사업 개선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제기한다」

쏘베트 사람들은 위대한 쓰딸린적 배려에 호응하면서 더욱 레닌—쓰딸린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있으며 생산 계획을 완수하며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경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볼쉐위끼당의 령도 하에, 위대한 쓰딸린의 지도 하에 쏘베트 인민들은 사회주의 경제와 과학 및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풍부한 물질적 정신적 복지(福祉)에로, 공산주의의 승리에로 나아가고 있다.

(「볼쉐위끼」지 一九五〇년 四호에서 문광호 역)

꼰쑬따찌야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쏘베트에 대하여

박 태 화

쏘베트 주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 형태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승리는 부르죠아지를 진압하며, 부르죠아 국가의 기구를 파괴하며, 부르죠아 데모크라씨를 프로레타리아 데모크라씨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프로레타리아트 조직체의 하나의 형태가 쏘베트인 것이다. 쏘베트는 어떻게 어느 때에 발생되였는가?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첫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은 一九〇五년——一九〇七년 간에 로씨야에서 폭발되였다. 이 혁명의 시초는 一九〇五년 一월 九일에 일어난 사변이였으며 「피의 일요일」에 대한 로동자들의 격분은 전 로씨야를 휩쓸었다. 방방곡곡에서 로동자들은 「전제 제도를 타도하라!」는 정치적 요구를 들고 파업하였다. 一월 한달 동안의 파업 로동자 수는 四〇만명에 달하였으며 첫 三개월 간에는 一〇〇만명에 까지 이르렀다.

一九〇五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로동자들의 혁명 투쟁은 더욱 고조에 달하였고 더 적극적인 정치적 성격을 띠였다. 로동자들의 여름 파업들 중에서는 이와노부·워즈네센쓰크, 로드지, 와르샤와 및 오데싸에서 일어난 파업들이 그의 범위와 강력성으로 보아 특별히 뛰여났다. 이와노보·워즈네센쓰크 파업은 五월에 시작되였는 바 그에는 근 七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파업을 볼쉐위끼의 북부 위원회가 지도하였다. 一九〇五년 五월 十四일에 이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들의 회의에서 이 파업을 지도하기 위한 대표들이 선출되였다. 이 대표들로써 [illegible] 위원회 쏘베트가 구성

되였다。이 전권 위원 쏘베트가 로씨야에서 생겨난 첫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였다。쏘베트는 파업을 지도하였으며 파업자들의 명의로써 기업주와 정권 당국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로동자들 속에서 거대한 신임을 받았다。

이와노보·워즈네센쓰크 파업의 열성적 참가자인 프·싸모일로브가 쏘베트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쏘베트의 대중적 신망은 나날이 그 쏘베트를 선거한 파업 로동자들 속에서만 장성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범위를 벗어져서 멀리까지 전파되고 장성되였다。린접 도시와 소도시 로동자들로부터 주인의 억압에 대한 여러가지 송사와 요구가 쏘베트에 들어왔다。농민들에게로부터 지주와 농촌 관리들에 대한 송사가 들어 왔으며, 린접 도시와 소도시들로부터 대표들이 충고를 받기 위하여 또는 자기 주인에 대한 송사들을 자주 가지고 왔다。그들을 쏘베트 협의회에 초대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주었으며, 흔히 그들과 같이 쏘베트 위원 또는 당일군들을 과업을 조직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다」(프·싸모일로브「첫 로동자 대표 쏘베트」一九三五년도 로문판 四一——四二페지)。이와노보·워즈네센스크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는 一九○五년——一九○七년 혁명 행정에서 발생한 다른 쏘베트들의 원형(原型)으로 되였다。

一九○五년 가을에 이르러서는 혁명의 파도는 더욱 큰 힘으로써 로씨야 전역을 휩쓸었다。十월에는 로씨야의 각지에서 파업, 군중 대회, 시위 운동들이 노도와 같이 일어났으며, 이 전로씨야 정치 총 파업은 혁명 운동 력사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총 파업 행정에서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들이 뻬쩨르부르그, 모쓰크바, 끼예브, 로쓰또브 및 기타 많은 중심 도시들에 조직되였다。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들의 형성은 로씨야 로동 계급의 거대한 전취인 것이다。왜냐 하면 이 쏘베트가 로씨야의 혁명 운동 력사에 있어서나 국제 혁명 운동의 력사에 있어서 위대한 역할을 놀았기 때문이다。

레닌은 당시에 벌써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를 무장 폭동 기관으로 보았으며, 주권 기관의 맹아로 보았다。一九○五년 十一월 초에 쓴 자기의 론문에서 레닌은 쏘베트 형태로써 림시 혁명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천재적인 명제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로동자, 병사 및 농민 대의원 쏘베트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레닌은 쏘베트를 림시 혁명 정부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면서 쏘베트를 폭동의 기관으로 혁명적 주권의 기관으로 보았던 것이다。레닌은 쏘베트의 성원으로는 반드시 로동자들의 대표만을 인입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도처에서 투쟁하는 병사들과 해군들의 대표 및 혁명적 부르쥬아적 인테리겐챠들의 대표까지도 인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쏘베트 형태로서의 이 림시 혁명 정부는 자기의 강령 속에 八시간 로동제 실시, 전체 지주 토지의 몰수와 농민에의 토지 분여, 피압박 소수 민족의 해방 등의 중대한 조항 외에 전인민의 무장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레닌은 강조하였다。레닌은 전인민을 무장시킬 데 관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쏘베트의 성원 속에 「해군과 병사들의 대표」를 넣으라는 레닌의 지시는 혁명군의 핵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혁명의 편으로 가장 우수한 군대와 함대의 부분을 이끌어 넣자는 것이였다。무장한 로동자들의 부대와 인민편으로 넘어온 군인들의 부대는 혁명군 조직의 기초로 된다。쏘베트는 이러한 혁명군에 의거하면서 자기의 혁명적 파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혁명을 더욱 더 앞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는 모든 공장과 제조소에서 피선된 대표자들의 집회로서 아직까지 세계에서 보지 못하던 로동 계급의 대중적 정치적 조직체였다。一九○五년에 처음 생긴 이 쏘베트는 一九一七년에 볼쉐위끼 당의 지도 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조직한 쏘베트 정권의 원형이였다。쏘베트는 인민적 창발력의 새로운 혁명적 형태였다。그것은 짜리제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파괴하고 민중의 혁명적 층만으로 결성된 것이였다。그것은 짜리제에 대한 반대 투쟁에 일어선 인민의 창발력의 표현이였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 독본」一三六페지)。그러나 모든 쏘베트는 한결같은 역할을 논 것이 아니다。쏘베트의 역할의 여하는 그 쏘베트를 누가 지도하였는가에 달린 것이다。멘쉐위크들의 지도 하에 있은 뻬쩨르부르그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는 자기에게 부여된 과업들을 실현하여 내지 못하였다。뻬쩨르부르그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는 수도의 수비대를 전제와의 투쟁에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질 대신에 수비대들을 수도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송시킬 것을 요구하였다。그는 무장 폭동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로동자들을 무장시키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짜리제와의 투쟁에서 로동 계급을 약화시켰다。그러나 뻬쩨르부르그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가 비록 멘쉐위크들의 지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역할을 죄다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적지 않은 긍정적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쏘베트는 로동자들의 중압에 못이겨 十一월 파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고 관권(官權)과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절차로써 八시간 로동제와 출판 및 집회 자유를 가지였으며, 쏘베트를 통한 로동 계급 투쟁의 형태를 보여 주었다。레닌은 쏘베트들의 회합에 참가하여 그들의 경험을 타산하고 그 후에 쏘베트 국가에 대한 리론을 작성하였다。

볼쉐위크들을 수위로 한 모쓰크바 쏘베트는 혁명에

회에서 현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모쓰크바 쏘베토는 무장폭동을 준비하였고、열성적으로 로동자들을 무장시켰고、十二월 무장 폭동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모쓰크바에서는 볼쉐위크들의 지도 하에서 병사 대의원 쏘베트까지도 조직되였다。

혁명의 파도는 더욱 더 고조되여 혁명은 앞으로 전진하였다。十월 전로 파업은 폭동에 관한 문제를 당면 일정에 올려 세웠다。一월 사변부터 시작된 혁명의 모든 발전 행정은 투쟁의 최고 형태인 무장 폭동의 불가피성에로 이끌고 갔다。모쓰크바에서의 무장 폭동 준비의 중앙 기관으로는 볼쉐위크들에 의하여 지도된 모쓰크바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였다。볼쉐위크들은 쏘베트의 전투적 부대를 조직하였으며、그들에게 주기 위한 무장을 구득하였으며、병사들을 자기편으로 인입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볼쉐위크들이 활동한 군사 단체들 내에서는 제믈라츠까、야로슬라브쓰끼、리르원(쎄도이) 및 기타 볼쉐위크들이 사업하였다。

모쓰크바에서 볼쉐위크들이 맹렬히 무장 폭동을 준비하고 있은 반면에 멘쉐위크들이 우세를 차지한 뻬쩨르부르그 쏘베트에서는 멘쉐위크들이 무장 폭동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변절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특별히 그 속에서 뜨로츠끼가 흉악한 역할을 놀았다。뜨로츠끼는 뻬쩨르부르그 수비대 내에서 혁명적 사업을 전개할 대신에 도시로부터 수비대를 내여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十二월 五일에 볼쉐위끼당 모쓰크바 위원회는 모쓰크바 쏘베트에 무장 폭동에로 이행하기 위한 총 파업을 선언할 것을 제의하였다。로동자들은 자기들의 회의에서 이 제의를 적극 지지하였다。모쓰크바 쏘베트는 로동자들의 기세에 알맞게 무장 폭동에 매분(每分) 마다 준비되여 있으라고 호소하였다。쏘베트는 군대 내에서 장교들을 몰아내고、혁명적 관리를 수립하고 일정한 신호에 따라 인민편으로 넘어서라고 병사들에게 외쳤다。

十二월 六일 모쓰크바 쏘베트는 十二월 七일에 총 파업을 시작할 것과 또 그 총 파업을 무장 폭동에로 이행시킬 것을 결정하였다。드디여 十二월 七일에 총 파업이 시작되였다。로동자들과 총 파업을 진압하려 온 정부 군대와의 사이에 각 구역에서 개별적 충돌이 벌어졌다。정부 군대는 파업 로동자들에 대한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정부 군대를 반대한 로동자들은 전체 거리에서 바리까드를 구축하였다。바리까드의 구축에는 로동자、청년、지어 로인、녀성들까지도 참가하였다。로동자들은 달려드는 까자크와 헌병들을 영웅적으로 배격하였다。전투 부대들은 빨찌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모쓰크바 수비대를 폭동 진압에 리용할 수 없었다。왜냐하면 모쓰크바 수비대가 동요하였기 때문이다。모쓰크바주 지사 두바쏘브는 정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군대들을 뻬쩨르부르그로부터 모쓰크바에로

보내올 것을 요구하였다。당시에 니꼴라예브 철도(뻬쩨르부르그—모쓰크바 간의 철도)는 파업에 들어서지 않았다。정부는 이 철도를 경유하여 뻬쩨르부르그로부터 모쓰크바에로 쎄묘노브 부대를 출동시켰다。이 부대는 十二월 十五일에 모쓰크바에 도착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을 감행하였다。로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은 계속되였다。모쓰크바시 씨모노브 구역은 시내의 다른 구역들과의 련결을 끊고 로동자들이 「쏘베트 공화국」을 조직하였다。이 구역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인은 구역 로동자 대표 쏘베트였다。모쓰크바에서의 가장 오래고 격렬한 투쟁은 쁘레쓰냐에서 진행되였다。쁘레쓰냐 구역에서의 폭동을 로동자 대표 쏘베트와 병사 대표 쏘베트가 지도하였다。쁘레쓰냐 로동자 대표 쏘베트는 무장 폭동의 기관으로 되였으며 동시에 주권 기관으로 되였다。그는 지령(指令)을 발표하였으며 구역 내의 전체 주권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고 있었다。짜리 정부는 쁘레쓰냐에서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포병대를 출동시켜 十二월 十二일부터 혁명군의 진지를 포격하였다。포격으로 말미암아 쁘레쓰냐 구역은 불 속에 들어 갔고 끝끝내 폭동은 十二월 十八일에 정부군에 의하여 진압되였다。

모쓰크바 무장 폭동은 一九〇五—一九〇七년간 혁명 발전의 최고점이였다。무장 폭동은 모쓰크바에서 만이 아니라 거대 도시들、즉 싸르모브、돈바스、고르놉까、루간스크、쩨플리스、하리꼬브、로스또브에서도 진행되였다。로동자들은 어디에서나 짜리 군대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어떤 도시들에 있어서는 주권이 쏘베트의 수중으로 넘어 왔다。례하면 크라스노야르쓰크와 치따에서 그러하였다。크라스노야르쓰크에서는 파업 행정에서 로동자 대표 쏘베트가 조직되였으며、이 쏘베트는 병사 대표 쏘베트와 련합하였다。이 련합 쏘베트가 실지 상 주권을 장악하고 여러 개의 부서를 조직하였고、각 부서는 자기에게 해당된 일정한 사업 부문을 담당하였다。十二월 말에 반혁명은 원군(援軍)의 도움으로 이 쏘베트를 진압하게 되였다。이와 같은 사변은 치따에서도 있었다。거기에서는 철도 로동자와 병사들이 로동자 및 병사 련합 대표 쏘베트를 조직하고 十二월 중순에 완전히 주권을 쟁취하였다。그것은 一九〇六년 一월 二十四일 반혁명에 의하여 진압되는 그때까지 자기 주권을 유지하였었다。

一九〇五—一九〇七년 혁명의 실패 후에는 반동이 우세하면서 일찌기 력사에서 보지 못하던 암흑한 쓰똘리삔 반동기가 시작되였다。그러나 인민의 머릿속으로부터 새로운 주권 기관으로서의 쏘베트에 대한 사상을 소멸시켜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 ＊ ＊

一九一四년에 제국주의 전쟁이 개시되였다。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 제국의 발전의 불균형성과 주요

강국 간의 균형의 파탄과 전쟁 수단에 의해서 세계를 재분할하며, 세력의 새 균형을 조성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반영인 동시에 이 위기를 첨예화시켰으며 세계 자본주의를 약화시켰다. 로씨야의 로동자와 볼쉐위끼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성과적으로 리용하였으며, 제국주의 전선을 돌파하였으며, 짜리를 타도하였으며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를 수립하였다.

一九一七년 二월二十七일에 폭동을 일으킨 로동자와 병사들은 짜리 정부의 각료들과 장군들을 체포하고 감옥으로부터 혁명자들을 석방시켰다. 이리하여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은 로씨야에서 승리하였다. 二월 二十七일 저녁에 뻬뜨로그라드의 따브리궁전에 공장 기업소에서의 로동자들의 회의에서 선출된 쏘베트 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멘쉐위크들은 시가전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혁명의 열매를 재빨리 따먹기 위하여 쏘베트를 자기의 지도 하에서 조직하였고 그 속에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볼쉐위끼당 중앙위원회 로씨야국 위원인 몰로또브가 직접 시가전을 지도하고 폭동을 승리한 다음 그날 밤잖어 따브리 궁전에 오게 되였다.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는 이미 조직되였으나 병사 대의원 쏘베트는 그 때까지 아직 조직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몰로또브는 볼쉐위크들인 병사들을 병영에 파견하여 병사들의 집회에서 병사 대의원 쏘베트 위원을 선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날인 二월二十八일에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의 총회가 수백명 대표의 참가 하에서 개최되였다. 이와 같이 뻬뜨로그라드에서는 一九〇五년——一九〇七년 혁명 때와는 달라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가 형성되였다. 병사들은 군복을 입은 농민들이였다. 이러한 사태는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을 표시함에 있어서와 군인을 혁명의 편으로 인입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혁명의 초기에 쏘베트가 출현하였다. 승리한 혁명은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에 위탁하였다. 一九〇五년 혁명은 쏘베트가 무장 폭동의 기관인 동시에 새로운 혁명적 정권의 태아란 것을 명시한 것이였다. 쏘베트의 사상은 근로 대중의 의식 속에 살아 있었으며, 그들은 짜리제가 전복된 그 이튿날부터 이 사상을 실현하였다.

二월 二十八일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의 총회에서 병사 대표들은 반동적 장교의 명령으로부터 병사들을 해방시킬 데 대한 의견을 제의하였다. 쏘베트의 한 위원인 쏘몰로브를 수위로 한 명령 작성 위원회가 조직되였고 그들은 여러 병사 대표들의, 대중적 의견을 반영시킨 명령 제一호를 작성하였다. 이 명령의 주요 조항들로서는 전체 군인 부대들에 병사 대표 위원회를 조직할 것과 장교들을 선거할 때 관한 것이다. 그러나 쏘베트의 지도부에 앉은 멘쉐위크들은 군인 부대들에서 장교들을 선거할 데 관한 명령 조항을 빼여버렸다.

무장한 인민들인 로동자와 병사들은 쏘베트에 자기 대표를 보내면서 쏘베트를 인민 정권 기관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가 혁명적 인민의 전체 요구를 실현하며, 우선 먼저 강화 조약을 체결하리라고 생각하였으며, 또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로동자와 병사들은 자기를 과신(過信)하였다. 쏘베트 내에서 다수를 차지한 멘쉐위끼와 사회 혁명당원들은 전쟁을 종결시키고 강화를 체결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혁명을 리용하여 전쟁을 계속하려 하였다. 혁명과 인민의 혁명적 요구에 관해서는 사회 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은 혁명은 이미 끝났으니까 현재의 임무는 그것을 공고하게 하며, 부르죠아지와 손을 잡고 「정상적」인 립헌제의 궤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뻬뜨로그라드 쏘베트의 사회 혁명당원—멘쉐위끼 지도자들은 전쟁 종결의 문제와 강화 체결의 문제를 우물쭈물해 버리고 정권을 부르죠아지에게 넘겨 주려고 가능한 한의 방법을 다 썼던 것이다.

혁명이 승리한 그날, 즉 一九一七년 二월 二十七일에 다른 쪽으로서는 국회의 자유주의적 대의원들이 사회 혁명당원—멘쉐위끼 지도자들과 비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주이며, 민주주의자인 제四차 국회 의장 로드쟌꼬를 회장으로 하는 국회 림시 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내였다. 그리고 며칠 후 국회 림시 위원회와 로동자·병사 쏘베트 집행 위원회의 사회 혁명당원—멘쉐위끼 지도자들은 볼쉐위끼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로씨야 신정부의 조직, 즉 부르죠아 림시 정부를 조직할 것을 협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쏘베트 집행 위원회의 사회 혁명당원—멘쉐위크들은 정권을 부르죠아지에게 양도하였으며,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는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볼쉐위크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혁명당원—멘쉐위크들의 행위를 다수결로 승인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두 정권, 두 독재의 특수한 교차가 생겼으니 그것은 림시 정부의 형식을 취한 부르죠아지의 독재와 로동자·병사 대의원 쏘베트의 형식을 취한 프로레따리아트와 농민의 독재였다. 즉 二중 주권이 존재한 것이다.

쏘베트 내에서 사회 혁명 당원과 멘쉐위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승리한 로동자와 농민이 부르죠아지에게 정권을 넘겨준 원인에 대하여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최초에 쏘베트 내에서 멘쉐위끼와 사회 혁명 당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승리한 로동자와 농민이 자발적으로 부르죠아지의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레닌은 이것을 정치에 수백만의 무경험한 민중이 각성하고 정치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소경영자이거나 농민이거나 또는 최근까지 농민층이던 로동자이며,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중간에 선 사람들이였다. 당시의 로씨야는 구라파의 모든 대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부르죠아적인 국가였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거대한 소부르죠아적 물결이 일체를 휩싸았으며, 수효로써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선진한 프로레타리아트를 압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비상히 광범한 로동자층에 소부르죠아적 정견(政見)을 감염시켰으며, 침투시켰다」(레닌 전집 제二〇권 一一五페지).

이 소부르죠아적 자연 생장의 물결이 멘쉐위끼와 사회혁명당원의 소부르죠아적 당을 표면에 나서게 한 것이다.

다른 한가지 리유는 전시 중에 일어난 프로레타리아트의 구성 성분의 변화와 혁명 초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과 조직이 불충분한 데 있었다고 레닌은 지적하였다. 전시 중에 프로레타리아트 자체의 구성 성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본직 로동자의 약 四〇%가 군대에 징병되였다. 전시 중에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심리를 가지지 아니한 소경영자, 수공업자, 소상인들이 공장으로 들어왔다.

로동자층의 이러한 소부르죠아층이 멘쉐위끼와 사회 혁명당원들의 소부르죠아 정치가를 배양하는 토양으로 되였다.

이 때문에 정치에 경험이 없고 소부르죠아적 자연 생장의 물결에 휩쓸리고 혁명의 첫 성과에 도취한 광범한 인민 대중이 혁명의 최초 수개월에 타협주의 당의 포로가 되여 부르죠아 정권은 쏘베트에 그가 자기 사업을 수행함에 방해하지 않으리라는 유치한 생각에서 국가 정권을 부르죠아지에게 양여하기를 동의한 것이였다」(당출판사판 三〇九—三一〇페지).

二월 혁명 후에 구성된 二중 정권은 오래 존속될 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사변의 모든 행정은 정권이 림시 정부의 수중에거나 또는 쏘베트의 수중에거나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기를 요구한 때문이다. 림시 정부는 대중의 절실한 요구인 평화, 토지, 빵, 민주주의 자유 등에 대하여 기만적으로, 즉 제국주의 전쟁에서 로씨야가 승리하고야만 이 요구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앞으로 소집될 헌법 제정 회의(언제 소집될는지도 모르는)에서 해결하자고 미루었던 것이다. 타협적 당들인 사회 혁명당과 멘쉐위끼는 대중에게 림시 정부를 지지하라고 호소하면서 로동자와 농민을 부르죠아지의 후비군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타협적 당들의 기만적 선동에 포로된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레닌은 이러한 사람들을 량심적인 미혹된 방위론자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에는 사회 혁명당원 및 멘쉐위끼의 약속과 설복의 정책이 아직도 옳은 정책이라고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과 설복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변의 경과와 림시 정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사회 혁명당원 및 멘쉐위끼의 타협 정책이 천연(遷延) 정책이며 경신자(輕信者)를 기만하는 정책이란 것을 폭로하고 또 증명한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의 기본적 타격의 방향은 로력 대중을 부르죠아지와 타협시킴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노는 사회 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을 고립시키는 데 있었다. 이 당들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로력 대중과 제국주의와의 결렬을 타산할 수 없으며, 또 이 결렬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쏘베트 혁명의 승리를 타산할 수 없었다.

볼쉐위크들은 자기의 당면한 임무로써 대중 속에서 끊임 없는 해설 사업으로써 림시 정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하며, 사회 혁명당원과 멘쉐위끼의 배반 행위를 폭로하며, 림시 정부가 쏘베트로 바꾸어 지지 않는 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 주는 데 두었다. 때문에 당시, 즉 七월 사변 전까지의 二중 정권 시기에 볼쉐위크들은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표어를 내 걸었던 것이다. 볼쉐위크들은 사회 혁명당과 멘쉐위크들을 고립시키며, 또 그들로부터 로동자 및 농민의 광범한 대중을 분리시키는 투쟁을 쏘베트 정권을 위한 대중의 혁명 운동의 형태로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표어 하에서 쏘베트를 대중을 동원하는 기관으로부터 폭동 기관, 주권 기관, 프로레타리아적 새 국가 기관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투쟁의 방도로서 실현하였다.

레닌은 一九一七년 四월에 자기의 유명한 「테제」에서 국회제 공화국으로부터 쏘베트 공화국으로 넘어갈 것을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씨야에 있어서 현재의 특징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의식과 조직이 부족한 탓으로 부르죠아지에게 정권을 넘겨준 혁명의 제一 단계에서 정권을 프로레타리아트와 빈농층의 손에 넘겨주어야 할 제二 단계에의 이행에 있다」(레닌 전집 제二〇권 八八페지). 계속하여 레닌은 「국회제 공화국이 아니라—로동자 대의원 쏘베트가 국회제 공화국으로 복귀하는 것은 일보 퇴각이다—하부로부터 상부까지 전국적으로 로동자, 농업로동자 및 농민의 대의원 쏘베트 공화국이다」(동서 동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의 원칙에 따라 볼쉐위크들이 二중 정권 시기에 제기한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표어는 멘쉐위크들, 사회 혁명당원들 및 립헌 민주당원들과의 블럭의 파렬, 또한 멘쉐위크 및 사회 혁명당원들로써 된 쏘베트 정부의 수립(당시에 쏘베트는 멘쉐위끼—사회 혁명당적이였다)과 반대파(볼쉐위크들)의 자유

로운 선동의 길리와 쏘베트 내에서의 여러 당의 자유로운 투쟁의 방법에 의하여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로정에 따라 볼쉐위크들이 쏘베트를 전취하는 것과 쏘베트 정부의 구성을 변경함에 성공할 것을 타산한 바의 쏘베트 내에서의 여러 당의 자유 투쟁을 의미하였다。이 계획은 물론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의미한 것은 아니였다。그러나 이 계획은 의심할 것도 없이 독재의 보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의 준비를 쉽게 하였다。왜냐하면 이 계획은 멘쉐위끼와 사회 혁명당원들을 집권자의 자리에 세워 놓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실제에 있어서 반혁명적 정강을 실행하지 아니치 못하게 하면서 그 당들의 정책의 폭로와 그들의 고립과 대중으로부터의 그들의 분리를 촉진한 까닭이다。

一九一七년 七월 三일의 뻬뜨로그라드의 로동자들과 병사들의 평화적 시위 운동이 반동적인 사관 학생 부대들과 장교 부대들 및 전선으로부터 소환된 무지한 반혁명적인 부대에 의하여 진압되고, 멘쉐위크들과 사회 혁명당원들이 참가한 반혁명적 련합 림시 정부에 의하여 볼쉐위끼당이 습격을 당하고 대탄압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볼쉐위크들은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표어를 림시로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왜냐하면 실지에 있어서 二중 정권은 종말을 고하였기 때문이다。

二중 정권은 부르죠아지에게 유리하게 종말을 고하였다。즉 일체의 정권은 림시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며 사회 혁명당원과 멘쉐위끼를 지도자로 하는 쏘베트는 림시 정부의 부수물로 전화한 것이다。쓰딸린은 제六차 당 대회에서 「혁명의 평화적 시기는 끝났다。비평화적 시기, 충돌과 폭발의 시기가 시작되였다」고 지적하였다。볼쉐위끼당은 七월 사변 이후에 「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표어를 림시적으로 철회하였다。그러나 이 표어의 림시적 철회는 결코 쏘베트 정권을 위한 투쟁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였다。그 것은 혁명 투쟁 기관으로서의 쏘베트 전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멘쉐위끼와 사회 혁명당원이 지도하고 있는 현존 쏘베트, 즉 부르죠아 림시 정부의 부수물로서의 쏘베트에 대해서 말한 것이였다。이 것은 볼쉐위끼당이 혁명이 새로 앙양되는 환경에서 다시금「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내걸 것을 예정하고 당면 순서에서 그 표어를 제거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一九一七년 八월 二十五일—三十일 간에 꼬르닐로브의 반혁명적 폭동은 볼쉐위크들에 의하여 지도된 무장한 로동자들의 적위군 부대에 의하여 섬멸되였다。꼬르닐로브파의 괴멸은 사멸한 것 같이 보이던 쏘베트가 실지에 있어서는 혁명적 반격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여러 쏘베트와 그의 혁명 위원회들이 사실 상 꼬르닐로브군의 진로를 차단했으며, 그 세력을 타파하였다。꼬르닐로브에 대한 투쟁은 취약하였던 로동자·병사 쏘베트에 새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그 것을 타협 정책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였으며, 그 것을 혁명적 투쟁의 대로(大路) 위로 인도했으며, 또 볼쉐위끼당 측으로 전환시켰다。

쏘베트의 볼쉐위끼화의 지역은 확대되여 각 공장들과 군대들은 그 대표들을 개선하여 멘쉐위끼와 사회 혁명당원 대신에 볼쉐위끼의 대표를 쏘베트에 보내게 되였다。꼬르닐로브파에 대한 승리의 이튿날인 八월 三十一일에 뻬뜨로그라드의 쏘베트는 볼쉐위끼의 정책에 찬동한다고 언명하였다。뻬뜨로그라드 쏘베트의 종래의 멘쉐위끼와 사회 혁명당원 파의 상임 위원회는 총사직하고 볼쉐위끼에게 자리를 내 주었다。九월 五일 모쓰크바의 로동자 대의원 쏘베트는 볼쉐위끼 편으로 이행하였다。사회 혁명당원과 멘쉐위끼파의 모쓰크바 쏘베트 상임 위원회도 역시 총 사직하고 볼쉐위크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였다。「모든 주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표어가 다시 당면 순서에 나섰다。그러나 이것은 벌써 정권을 멘쉐위끼의 쏘베트의 수중에 넘기는 낡은 구호는 아니였다。

그 것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였다。지금에 와서는 쏘베트들은 그 대다수가 이미 볼쉐위크들의 것이 되였으므로 이 구호는 제국주의와의 완전한 결별과 볼쉐위크들에게로의 주권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였다。이제는 이 구호는 폭동의 방법으로써 혁명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표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조직 및 그의 국가적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쏘베트를 국가 주권의 기관으로 변환케 한 그 전술의 극히 귀중한 의의는 그 전술이 수백만 로력 대중을 제국주의로부터 분리시키였고 멘쉐위끼 및 사회 혁명당을 제국주의의 무기로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로, 말하자면 곧은 길로 인도한 데 있는 것이다。

뻬뜨로그라드와 모쓰크바 및 기타 대 도시들의 쏘베트가 볼쉐위크들의 수중에 장악된 후에는 무장 폭동의 조직과 쏘베트에의 주권의 이행이 가능하였다。볼쉐위끼당의 지도 하에서 각지에서 무장 폭동의 준비가 맹렬히 진행되였다。一九一七년 十월 九일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뻬뜨로그라드 쏘베트 내에 군사 혁명 위원회가 조직되였다。이 위원회는 정부가 볼쉐위끼의 영향 하에 있는 혁명적인 군대들을 수도로부터 전선에로 이송시키려는 시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十월 十二일 뻬뜨로그라드 쏘베트 집행 위원회 비밀 회의는 이 군사 위원회의 과업을 더욱 광범히 작성하였다。즉 수도를 방어함에 필요한 최저 력량의 설정, 병사 단체와의 련결, 수도 및 그 부근의 수비대 수요의 정확한 통계의 장악, 수도 방어 공작 계획, 수도에서의 학살자들의 행동의 미연 방지와 로동

자들의 무장화 및 수도에서 혁명적 규률의 확립 등이 그의 과업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혁명 군사 위원회는 자기 수중에 무장 폭동의 실지적 준비 사업을 집중시키면서 폭동의 합법적 참모부로 나섰다. 그의 관활 하에 적위병, 혁명적 해군 및 수도 수비대가 모두 소속되여 있었다.

수도의 모범을 따라 다른 도시들과 전선들에서도 쏘베트 내에 혁명 군사 위원회들이 조직되였고 그들이 폭동 준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十월 十六일 당 중앙 위원회 확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쓰딸린을 수반으로 한 폭동을 지도할 당 중앙이 선출되였다. 이 당 중앙은 페뜨로그라드 쏘베트 내의 군사 혁명 위원회의 지도적 핵심이였으며, 실제적으로 모든 폭동을 지도하였다.

一九一七년 十월 二十四일에 무장 폭동이 시작되였다. 十월 二十五일 아참에 레닌은 페뜨로그라드 각 구역에서 혁명군들이 중요한 정부 기관과 전신 전화 기관 동을 장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로씨야의 공민에게」라는 새 주권에 관한 볼쉐위끼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에는 부르죠아 림시 정부가 전복되고 국가 주권이 쏘베트의 수중에 넘어 왔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였다. 주권을 장악한 쏘베트들은 즉시에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에 착수하게 되였다. 十월 二十五일 오후 二시 三十五분에 페뜨로그라드 쏘베트 비상 회의가 열렸다. 레닌은 이 회의에 七월 사변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출현하였다. 회의에서 레닌은 말하기를 「그 혁명의 불괴성에 대하여 항상 볼쉐위크들이 말하던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이 수행되였다. ……로씨야 력사에 있어서는 지금 새 기원이 닥쳐왔으며 이 세번째 로씨야 혁명은 반드시 그의 최종 결과에 있어서 사회주의 승리에로 가져갈 수 있다」 (레닌 전집 제二二권 四페지)라고 지적하였다.

一九一七년 十월 二十五일(十一월 七일)오후 十시 四十五분 스몰리에서 제二차 전로씨야 쏘베트 대회가 열렸다. 이때에 페뜨로그라드 폭동은 이미 승리의 정점에 있었으며, 수도에 있어서의 정권은 사실 상 페뜨로그라드 쏘베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다. 대회는 자기의 이름으로 일체의 정권이 쏘베트 수중에 넘어 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대회는 자기의 선언 가운데 쓰기를, 「로동자, 병사 및 농민의 절대한 다수의 의사에 의거해서, 페뜨로그라드에서 결행된 로동자 및 수비대의 승리적인 폭동에 의거해서 대회는 자기의 수중에 정권을 장악한다」 라고 하였다. 그 이튿날 밤에, 제二차 쏘베트 대회는 평화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강화에 관한 교섭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三개월간의 즉시 정전을 협약할 것을 교전 각국에 제의하였다. 대회는 토지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서 「지주의 토지는 하등의 대상 없이 즉시 폐지된 것」으로 되였다. 이 법령은 토지의 사유권을 영원히 폐지하였으며, 토지를 전인민적, 국가적 소유로 대체하였다. 대회는 국가 주권의 지도 기관을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전로 쏘베트 중앙 집행 위원회가 선거되였고 레닌을 의장으로 한 첫 인민 위원 쏘베트가 형성되였다. 쓰딸린은 민족 문제에 관한 쏘베트 인민 위원장으로 취임되였다. 인민 위원 쏘베트는 완전히 볼쉐위크들로써 구성되였다.

수도에서 쏘베트가 승리한 후 전국 각지에서 쏘베트의 확립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광대한 국토에 쏘베트 정권이 어떻게도 급속도로 보급되였던지 레닌은 그것을 쏘베트 정권의 「개선 행진」이라고 불렀다.

※ ※ ※

쏘베트 정권은 그 존재의 첫 시기로부터 쏘베트 국가를 공고히 함에 주력을 집중하였다. 우선 먼저 낡은 부르죠아 국가 기관을 파괴하고 새 쏘베트 기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발긴에서 탄생한 이 쏘베트 국가는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로동자와 농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최고점이였다.

이제는 그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과렬과 민주주의의 전세계사적 새 형태의 발생을, 즉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표시하였다.

一九一七년 十월 二十五일(十一월 七일)부터 쏘베트 정부는 자기의 법령으로써 혁명 진의 모든 국가 기구, 즉 주권 기관, 행정 기관, 재판 기관, 검찰 기관, 군대, 감옥 및 기타 온갖 진압 기관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명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 기관들을 창설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 승리 후에 전체 로씨야 지역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 기관으로 나타난 쏘베트란 대체 어떠한 것인가? 레닌은 이미 一九一七년에 쏘베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는 첫째로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무력을 주는 새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그 무력은 낡은 상비군의 무력과 같이 인민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련결된 것이요, 또 군사 상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무력이 재래의 무력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한층 위력있는 것이요, 혁명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무력이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꾸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이 기관은 밀접하며 분리할 수 없으며 용이하게 검열할 수 있으며 또 쉽게 경신할 수 있는 그러한 련락을 대중과, 즉 인민 대다수와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니 과거의 국가 기관에는 이와 비슷한 것조차 전혀 없었다. 세째로 이 기관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가 없이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성원이 선거되고 또한 경질됨으로 말미암아 재래의 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것이다。네째로 이 기관은 온갖 종류의 직업들과 튼튼한 련락을 가지게 한다。그리함으로써 관료 제도가 없이 가장 심각한 성질을 가진 여러가지 개혁들을 하는 것을 쉽게 하여 준다。다섯째로 이 기관은 전위대의 즉 압박받는 계급들인 로동자와 농민들의 가장 자각적이며、가장 정력있는 선진 부분의 조직 형태를 준다。그리함으로써 그는 압박받는 계급들의 전위대가 그를 통하여 지금까지 전연 정치적 생활 밖에、력사 밖에 처하여 있던 그 계급들의 거대한 대중 전체를 향상시키며、교양하며、훈련하며、자기의 뒤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되는 것이다。여섯째로 이 기관은 의회제의 웃점을 직접적이며、정면적인 민주주의의 웃점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즉 선거를 받는 대중의 대표자들을 거쳐서 립법과 행정의 기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이것은 부르죠아적 의회제에 비하여 민주 제도의 발전상에 있어서 전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일보 전진인 것이다。……만일 혁명적 계급들의 인민적 창조력이 쏘베트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면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로씨야에 있어서 회망없는 일로 되였을 것이다。왜냐 하면 프로레타리아트가 이전의 기관으로써는 의심할 것 없이 주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나 새로운 기관은 즉시에 조직할 수 없는 까닭이다」(레닌 전집 제二一권 二五八—二五九페지。「레닌주의의 제문제」제一분책 一八三—一八四페지)。

쏘베트에 관한 레닌의 학설은 그 후에 레닌의 위대한 전우이며 계승자인 쓰딸린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였다。쓰딸린은 쏘베트 정권의 특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쏘베트 정권의 특징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쏘베트 정권이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국가 조직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요、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 조직이라는 점에 있다。왜냐 하면 쏘베트 정권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로동자와 피착취 농민들의 결합과 협력의 무대로 되며 또 자체의 사업에 있어서 그 결합과 협력에 의거하며 그리함으로써 주민의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권력、이 다수자의 국가、그들의 독재의 표현으로 되는 때문이다。

그것은 쏘베트 정권이 계급 사회의 모든 국가 조직 중에서 가장 국제주의적이라는 점에 있다。왜냐 하면 쏘베트 정권은 온갖 민족적 압박을 분쇄하며 제민족의 근로 대중의 협력에 의거하며 그리함으로써 그 대중을 단일한 국가적 동맹에 련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때문이다。

그것은 쏘베트 정권이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선봉、즉 가장 결속되고 가장 의식적인 쏘베트의 핵심인 프로레타리아트가 그 대중을 지도하는 사업을 그 자체

의 구조로 말미암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쏘베트 정권이 립법권과 집행권을 단일한 국가 조직에 통일하며 지역별 선거구를 생산 단위、즉 제조소와 공장으로써 바꾸어 놓으며 로동자 및 일반 근로자 대중을 국가 관리 기관과 직접 련결시키고 그들에게 국가를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오직 쏘베트 정권만이 군대를 부르죠아 통수부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부르죠아 제도 하에서와 같은 민중을 압박하는 무기로부터 군대를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의 부르죠아지의 기반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는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오직 쏘베트적 국가 조직만이 낡은、즉 부르죠아적 관료 및 법관 기구를 참으로 일거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레닌)는 점에 있다。

그것은 근로자 및 피착취자들의 대중 조직들을 국가 관리에로의 항구적인、무조건적인 참가에 끌어 넣는 쏘베트적 국가 형태만이 장래의 국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적 요소 중의 하나인 국가성의 소멸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쏘베트 공화국은 탐구되였고 마침내 발견된 정치 형태인 바 이 정치 형태의 틀안에서 프로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제一분책 六三—六五페지)。

그러므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로동자、병사 및 농민 대표들의 쏘베트 공화국은 보다 높은 형의 민주주의적 제도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로의 가장 전전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것이다」(레닌 전집 제二二권 一三一페지)。

낡은 부르죠아적 의회 형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쏘베트 주권의 위력은 어데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쏘베트가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포괄적인 대중적 조직이라는 데 있다。왜냐 하면 오직 쏘베트만이 전체 로동자들을 망라하는 까닭이다。

둘째로、그것은 쏘베트가 로동자、농민 및 륙해군 병사 등 모든 피압박자、피착취자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거기에 있어서 대중의 선봉、즉 프로레타리아트가 대중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가장 쉽게 가장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적 조직체인 데 있는 것이다。

세째로、그것은 쏘베트가 대중의 혁명적 투쟁、그의 정치적 진출、가장 유력한 대중 폭동 기관이며 금융자본의 전능과 그의 정치적 부속물을 깨뜨릴 만한 기관인 데 있는 것이다。

네째로、그것은 쏘베트가 대중 자체의 직접적 조직、즉 대중이 새 국가의 건설과 관리에 참가하는 것을 최대

한도로 쉽게 하며 낡은 제도의 파괴를 위한 투쟁 및 프로레타리아적 새 제도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대중의 혁명적 정력, 창발성 및 창조적 재능을 최대한도로 전개케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요, 따라서 가장 권위있는 대중의 조직체인 데 있는 것이다.

실로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정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의회 제도적 낡은 형태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 조직체의 새 형태인 것이요, 로력 대중을 착취하며 압박하는 임무에 들어맞게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압박과 착취로부터 그 대중들을 완전히 해방하는 임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임무에 들어맞게 한 국가의 새 전형인 것이다.

쏘베트 주권은 공민 전쟁 시기에 일체 국가 기구를 원수를 물리침에 리용하여 력사적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더욱 공고화되였다. 평화적 건설기에 있어서 쏘베트 주권은 다른 어떠한 주권 형태보다도 인민의 창발력을 발휘시켰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건설 사업을 조직하였고 신축성있는 생활력을 보여 주었다.

一九一七년부터 一九三六년까지에 쏘베트 주권이 실현한 위대한 혁명적 사업들은 쏘련을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선진적인 공업 국가로 전환시켰으며 국내에서 일체 착취적 요소들을 청산하였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쓰딸린적 헌법에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이 헌법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을 로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적 국가로 규정하였으며 쏘련의 정치적 기초를, 지주와 자본가의 권력을 타도하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획득한 결과로 성장 강화된 근로자 대의원 쏘베트로 인정하였다. 쏘련 국가 정권의 최고 기관은 쏘련 최고 쏘베트이다. 쏘련 최고 쏘베트는 평등의 권리를 가진 련맹 쏘베트와 민족 쏘베트의 량원으로 구성되며 무기명 투표에 의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선거권에 기초하여 四년을 임기로 하여 쏘련맹의 공민으로부터 선거된다.

쏘베트 주권은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서 자기의 우월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쓰딸린은 一九四六년二월九일 자기의 선거 전 연설에서 쏘베트 동명의 전승 원인이 쏘베트 사회 조직과 쏘베트 국가 조직에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은 자본주의 체제의 약화와 쏘베트 국가 위력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 전쟁에서의 쏘베트 동맹의 결정적 역할로 말미암아 파시즘이 괴멸되고 중앙 및 동남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인민 민주주의가 승리하였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쏘베트 국가의 모든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일체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요소를 청산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인민 공화국의 형태로써 표현되고 있다.

一九五〇년 六월 十일 인쇄
一九五〇년 六월 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十一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조 훈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 一一五번

ㄱ—21521